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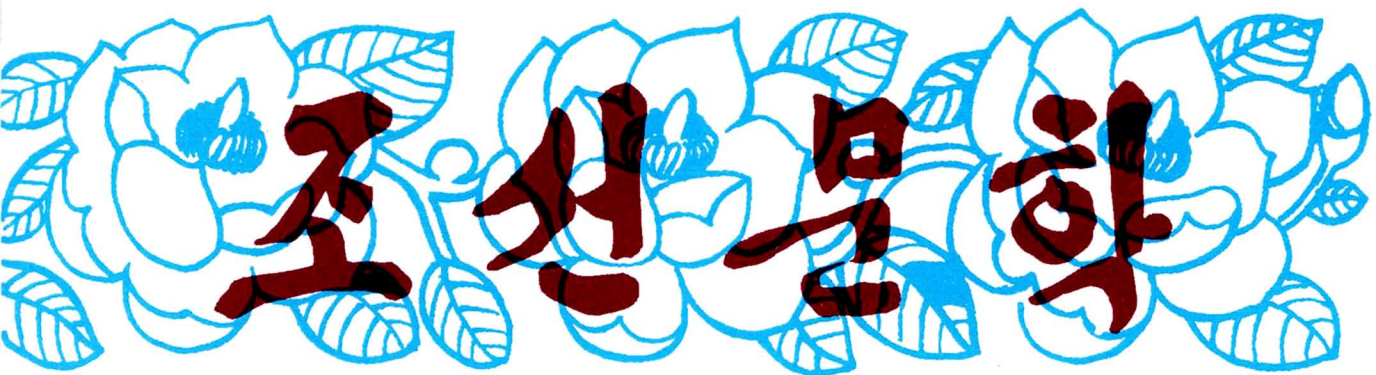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발행 600

특간호

10

주체86(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6(1997)년 제 10호

(루계 제 600 호)



◆◆◆◆◆ 차 례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	4
절세의 위인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7
인민은 삼가 축하인사 드립니다.....	10
력사의 추대	11
10 월의 환희.....	12
오늘이 며칠입니까.....	18
영원한 기발	19
명절	30
사향가소리	38
우리 당 총비서동지께 영광을!.....	39
대원수의 위용은 (외 1 편).....	42
명절날의 담시	42
다시 왔습니다	43
이 위대한 길은	44
그날의 첫 환호성에	44
10 월찬가	45
자연도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듯	46
김정일동지는 로동당의 위대한 지도자.....	47
백두산이 받들었다.....	47
총대에 비낀 인간상	48
오늘의 이 감격을 안고.....	51
영원한 메아리	51
태양과 생명	52
위대한 장군님을 충효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21 세기를 김정일세기로 더욱 빛내어나가겠습니다	53
영광의 천만리	54
우리 당은 김정일동지.....	55
총창처럼 버려진 붓대로	55

오늘입니다	56
영원히 해빛 밝은 날로	56
환희의 분출	57
열망	58
해빛 눈부신 평양의 하늘아래서	60
잡지 《조선문학》과 작가	61
나의 스승	63
벗과 함께 걸어온 나날	65
잡지 《조선문학》에 첫 시가 발표되던 때로부터	67
내 마음의 목소리	68
붉은기정신이 구현된 우리 소설문학	69
나를 알려거든	75
조선의 선언 (외 1 편)	76
믿음	76
탄부들속에서(외 2 편)	77
내 여기 찾아올적엔	77
탄부의 마음	77
잡지 《조선문학》은 조선문단의 얼굴	78
기다리는 《벗》	79
우리의 자욱	8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양양된 정치적열의와 드높은 혁명적신심에 넘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도 (직할시) 대표회, 성, 중앙 및 도당 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의 대표회들이 진행되었다.

대 표 회 들 에 서 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모든 대표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들어선 력사적전환기에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도 (직할시) 대표회, 성, 중앙 및 도당 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의 대표회들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대 표 회 들 에 서 일 치 하 게 강조된바와 같이 **김정일**동지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전당, 전군, 전민을 이끄시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주체혁명위업의 가장 총직한 계승자,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여오신 력사적로정은 혁명의 내외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당과 혁명 앞에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방대한 과업

이 나선 간고하고 시련에 찬 시기였다. 세계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장기적인 대치속에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계급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준엄한 시기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가까운 동지, 가장 충실한 방조자로서 우리 당을 진두에서 조직 령도하시여 혁명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수호하시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면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양양과 빛나는 승리로 확고히 이끄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의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찬연히 빛내이시고 혁명과 건설이 새롭게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들에 완벽한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심으로써 우리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전반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군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전반적혁명무력을 통솔하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당과 사회주의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참다운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무적필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지시고 경제문화건설전반에서 일대 전변과 빛나는 개화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적령도자의 품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곁을 함께 나누시면서 참다운 인민적정치, 인덕정치를 펴시여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된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우리 인민모두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온갖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후 김정일동지께서는 더욱더 엄혹해지는 정세속에서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백절불굴의 완강한 혁명적의지로 이겨내시며 전당, 전군, 전민을 령도하시여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당과 혁명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이 당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으로 지향되고 일관되도록 이끄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게 하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자주 시대의 상징인 주체년호와 태양절과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게 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로 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한결같이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가 처한 침예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 진지를 튼튼히 다지시는 한편 우리 혁명의 기둥,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더욱더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으며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일떠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와 련이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전당적, 전인민적 사회주의총진군전투의 제일선에 서시여 모든 고난을 단신으로 헤치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당과 군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사적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정치와 군사,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 빛내일수 있었다.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그처럼 엄혹한 정세와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드팀없이 전진시키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력사의 기적이다.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3대헌장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옳바른 통일방략을 제시하시여 아버지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조국의 통일과 무궁한 번영을 념원하는 온 민족의 기대가 김정일동지께 집중되고 있으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가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우리 세대에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대외활동에서 주체의 대, 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

우도록 하시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백방으로 높이시였으며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참으로 지난 3년동안은 전체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세계제국주의반동들과의 총포성 없는 엄혹한 전쟁에서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헤아릴수없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온 영웅적투쟁과 자랑스런 승리의 나날이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정치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쌓아놓았으며 우리 혁명과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국제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신되는 절대적이며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령도자로, 친근한 스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공지와 자부심, 열정과 기세는 백배천배로 충천하고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게 모든 운명과 미래를 의탁하고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것은 일찌기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70여성상의 기나긴 세월 년대와 년대를 이어온 우리 인민의 고결한 전통이다.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도 (직할시) 대표회, 성, 중앙 및 도당 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의 대표회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한것

은 우리 인민이 력사적으로 간직해오는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드팀없는 의지를 반영한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과 열화같은 충성의 일념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모든 대표회참가자들은 끝없는 기쁨과 감격에 넘쳐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할 결의들을 일치하게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전당의 의사에 따라 30여성상의 오랜 기간 불면 불휴의 혁명활동으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로속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인민을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닌 자주적인민으로 키우시였으며 이 땅에 **김일성**민족의 룡성과 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포한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는 조선혁명위업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반드시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며 우리나라는 멀지 않아 통일된 강토에서 7천만 겨레가 참다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주체의 조국으로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체86(1997)년 10월 8일

절세의 위인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안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류달리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가에 인민의 환호성이 메아리쳐 흐른다.

우리 당의 총비서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추대한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던 용암의 분화구가 터진듯 폭풍같은 인민의 환호성은 당창건의 52년의 년륜을 새기며 흘러온 뜻깊은 10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 있는것은 대단히 기쁜일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보낸 지난 3년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움트고 자란 진실한 마음이다. 그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순결한 랑심과 확고부동한 신념에 떠받들려 성취되였다.

하여 오늘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김일성**동지의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우리 혁명력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맞이하였다.

기쁨이면 이보다 더 큰 기쁨, 영광이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 있으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김일성**동지의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것은 5천년민족사에 다시없을 대행운이며 민족의 부흥을 안아올 특기할 대사변인것이다.

이 민족적대행운의 시기, 격동적인 새로운 시기에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김격과 환희의 최절정에 우리 작가들이 서있다.

이 시각 우리 작가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으로 짝차있고 백두위인에 대한 전례없는 숭배열로 뜨겁게 끓어번지고있다. 아울러 한 세기에 두분의 천출위인을 모시고 혁명해온 우리 작가들은 오늘 또다시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당복을 다시금 새로이 감수하며 무한한 창작적충동에 휩싸이고 있다.

현시기가말로 우리 작가들이 그 어느때보다 더 더욱 분발하여 수령형상작품창작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이 사업에 자기들의 깨끗한 당적랑심과 창작적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할 때이다.

문무재덕을 겸비한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30여성상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면서 주체혁명위업 계승완성을 위한 길에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그이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로 문예사에 있어보지 못한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하였고 수령형상작품창조의 귀중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우리 문학예술의 거장이시며 우리 작가들 모두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심을 심장으로 뜨겁게 체험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에 매혹된 우리 작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이를 주체위업완성의 위대한 계승자로,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마음을 담아 충성의 노래들과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여왔다.

지난 시기 창작한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푸른 하늘》, 《예지》, 《불구름》, 《력사의 대화》, 《동해천리》를 비롯하여 수백편의 단편소설들이 창작되였다. 그리고 시가분야에서도 장시 《인민은 노래한다》,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를 비롯한 수많은 서정시들을 창작하였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기다렸습니다》등 장군님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담은 칭송의 송가들이 울려퍼지였다. 이렇게 우리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에 대한 빛나는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충실성 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왔다.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들은 그야말로 소기의 성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현시대가 바라는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데 총집중해야한다.

수령형상작품창작을 더 왕성하고 활발하게 창작하자! 시대와 혁명은 우리 작가들을 부른다.

20세기도 저물어가고 21세기가 바야흐로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한 수령

형상시작품은 더 훌륭하게, 보다 수준있게 창작하여 **김정일**시대를 빛내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30여년간 우리 몸가까이 모시고 혁명해온 실생활을 통해 그이의 위대성을 온 심신으로 체험한 동시대의 작가로서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몸을 잠그지 않는다면 작가적망심이 없는 인간이나 다름없다.

혁명투쟁과정에 세대교체가 일어나는것은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는 혁명의 필연적현상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은 오늘 역사적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혁명의 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꽃듯이 즐기치게 이어져가고있다.

참으로 우리는 대를 이어 수령복, 당복을 받아안은 20세기~21세기의 행운아들이다.

주위세계를 둘러보면 자기 수령을 잘 모시지 못한 나라들에서 작가들은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저버리고 패배와 비판에 잠겨 앞날에 대한 낙관이없이 무서운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이러한 때 또다시 수령복, 당복을 영원히 누리고있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작가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시대에 사는 행운아들인가.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도, 누릴수도 없는 수령복, 당복을 세상에 대고 공지와 자부에 넘쳐 땀땀이 웨쳐야 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절세의 위인, 백두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모신 크나큰 민족적 공지와 자랑을 안고 우리 당과 혁명이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한 격동적인시기에 맞게 시대의 숨결에 호흡하여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문학작품에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혁명력사,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하기 위한데 형상의 각광을 돌리는 것이다.

혁명적문학작품창작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의 위대성을 우리 인민들과 후손들에게, 역사앞에 전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의 기본의 기본이며 현시기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가장 숭고한 발현으로 된다.

우리 문학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 당의 문학, 수령의 문학이다. 그런것만큼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전환적인 시기에 맞게 우리 문학을 당의 문학, 수령의 문학으로서의 자기 면모를 더욱더 훌륭히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선다.

그래야 우리 문학이 자기의 본성과 사명에 맞게 로동계급이 혁명위업의 본질과 그 승리의 합법칙적과정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그릴수 있으며 사람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기 위한 수령형상작품창작과 동시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의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고 모든 형상요소를 그이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 창작의 곁을 집중시켜나가야 한다.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중심에 두고 그이의 성격적핵을 깊이 있게 파보여주어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최상최대의 높이에서 간직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30여년동안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면서 언제나 수령님의 사업을 충실하게 보좌해드리시였으며 수령님의 서거이후 수령의 후계자로서의 귀감적품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여주시였다.

지난 3년간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드리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 수령님의 유훈을 더 잘, 더 빨리 관철하겠는가 하는 오직 하나의 지향으로 일관되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조선에서 그 어떤 정치적변화가 일어나리라던 세계의 억측과는 달리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였고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떨쳐나섰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으로 보다 절대적이고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것이였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그이의 충성과 효성의 숭고한 세계를 감명깊게 그리는데 큰힘을 넣어야 한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 기본을 두고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심오하게 그려내야 하며 동시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위대한 품모도 감명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인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금성철벽의 당으로 만들어주신 장군님의 업적에 대한 예술적형상을 통해 그이이시야말로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해야 한다.

또한 수령님의 서거이후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혁명의 난국을 단신으로 맞받아나가시며 우리 당과 혁명, 사회주의를 고수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도 역사적사실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장군님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장군님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수령과 전사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식간의 혈연적관계라는것을 형상으로 꽃피워야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총서《불멸의 력사》(항일혁명투쟁시기편)창작경험에 기초하여 총서《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창작을 주도적으로 완강하게 밀고나가는데 창조집단의 집체적지혜를 최대한 발양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깊이있게 형상하자면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자기의 고유한 생리와 미학적원칙들을 불후의 고전적로작《주체문학론》의 요구대로 철저히 지켜나가야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에서는 력사에 실지있는 위인을 형상하는것만큼 장군님을 제일주인공으로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모든 형상요소를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 집중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작품의 내용도 철저히 력사적사실에 맞아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우리 당의 력사이며 우리 혁명의 력사이다. 따라서 장군님을 형상한 작품은 그이의 위대한 업적과 풍모를 후세에 길이 전하는 력사문헌적의의를 가진다. 그런것만큼 인물관계와 사건줄거리를 비롯한 작품의 기본대가 력사적사실에 맞아야 한다.

또한 수령형상작품일수록 그이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직접적표사도 자유분방하게 펼쳐보여야 한다. 여기서도 위대한 인간, 령도자로서의 사색의 세계를 다각적으로 깊이있게 새롭게 펼쳐보이는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인간적풍모의 전면모를 생동하게 그려내기 힘들다.

탐구적이고 분석적이고 독창적인 그이의 사색의 세계를 높은 지성세계를 가지고 진지하게 파 보여줌으로써 사상리론가, 정치전략가, 령도예술가로서의 위대성, 인민적령도자로서의 풍모를 사람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작가의 개성과 특기를 살려 종자와 세부, 언어형상을 기발하게 착상하고 형상으로 꽃피워 수령형상작품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문학작품에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민감하고 기동성 있게 반영하는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새로운 전환기에 맞게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고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는 당의 사상과 의도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문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작품들에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신속정확히 반영하여 작품의 형상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작가들은 소설, 시, 아동문학, 예술산문 등 문학형태적특성을 살려 당정책을 기동성있게 반영하는 단편소설, 벽소설, 수필, 단상 등을 널리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가사문학에 힘을 넣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훌륭한 명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해야 한다.

노래로 정치를 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인민군부대 중대예술소품들을 보아 주시면서 그들이 창작한《정말 좋은 세상이야》,《군민일치사상 만세》,《가마마차 달린다》 등의 노래들에 자기들의 생활이 그대로 비껴있어 가사들이 생활적이고 진실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창작에 구현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종전의 가사창작에서의 편향을 극복하고 인민군군인들의 창작경험을 따라배워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발휘되는 우리 사회의 진모습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한 가사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문학은 인간감정의 정화이며 심장의 웨침이다.

우리 나라밖에 없는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면 우선 우리 작가들자신이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적신념과 깨끗한 량심, 숭고한 도덕의리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정신을 키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속에 성장해온 우리 작가들의 심장이 그 은혜를 모르고 그에 보답할줄 모른다면, 그이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꿰지 않고서는 수령형상문학의 그 위대한 세계를 빛나게 창조할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제1선에서 받들어나가는 사상전선의 전초병, 당의 작가답게 시대와 혁명앞에 걸머진 책임감을 자각하고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장군님의 위대성을 립체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한 시대적명작들을 끊임없이 창작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 힘있게 고무해야할것이다.

여기에 백두산의 아들, 위대한 태양만을 따르는 조선작가들의 가장 깨끗한 량심이 있고 가장 큰 영예와 작가적보람이 있는것이다.

인민은 삼가 축하인사 드립니다

김송남

우리 기쁨 노래가 되어
하늘과 땅 온 누리를 덮습니다
천만 심장들이 터치는 이 환호성에
산천초목도 감격에 설렙니다

력사를 밝히시며 더 높이
혁명을 이끄시며 영원무궁히
빛나시라고 빛나시라고
마음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받들어모신 이날

장군님의 그 빛발을 받으며
우리의 당기가 더 높이 나뭇깁니다
그 붉은 기폭아래
우리 군대, 우리 인민, 우리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투쟁의 큰길에 오릅니다
오, 우리 장군님이 얼마나 귀중한분이신가를
사무치게 새겨온 그 오랜 깨달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이날은
이 강산과 우리 인민이 맞이한
세기의 새 명절

정녕 아버지 수령님과 꼭 같은신분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오늘이 있고 래일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깨달으며 깨달으며
우리 인민은 노래합니다
대를 이어 누리는 우리의 수령복을...
아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미소
가슴뜨겁게 안기여 주신
우리 장군님은 도덕의리의 최고화신,
겹치는 시련 앞장에서 헤치시며
포성없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김정일장군님은
주체혁명의 위대한 령장

믿으면 힘이고
따르면 승리가기에
바라시는 그곳에
피여 꽃이 되고 타올라 불길이 되고
순간에 총폭탄으로 터질수도 있는
충효의 한마음이

장군님을 더 높이 받들었습니다

백두의 붉은기 높이
내 조국이 새진군의 북소리 높이 울립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또다시 질주할
새 세기의 불변궤도를 저 멀리 내다봅니다
이 길우에서
제국주의 봉쇄와 압력은 부서져나가고
우리 식 사회주의 빛발은
더 높이 나래칠것입니다
바야흐로 통일의 아침은 밝아오고
자주세계의 영원한 봄이 꽃필것입니다

기쁩니다
힘이 솟습니다
마음 든든합니다
장군님만 계시면 이긴다는것은
멀고 험한 길 헤쳐넘으며
혁명이 우리에게 넘겨준
가장 값비싼 진리이며 유산

아, 오늘은
이 진리가 또다시 승리한 날입니다
이 유산이
후손만대에 영광의 빛을 없어주고
세계 만방에 희망의 노을 펼쳐주는
새 세기의 새 명절입니다

이 기쁜날
심장을 합쳐 삼가 드리는
우리 인민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즐기줄기 환희안고 일어서는 산발
굽이굽이 감격터치며 내닫는 강하
행복에 설레이는
이 강산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경애하는 장군님 높이 받들어
삼가 올리는 축하의 이 인사는
따르는 마음이 하늘에 닿는
다함없는 흠모의 인사
결사옹위 맹세가 불길과 같은
충효의 인사

아, 20세기 령마루에 빛나는 태양
21세기도 환히 밝힌 위대한 태양
찬란하시라 더 높이 영원무궁히

김일성민족의 저 휘황한 미래로
우리를 령도하시며 이끄시며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력사의 추대

변흥영

내 오늘
위대한 령사의 시점에 서서
환희에 찬 가슴을 헤친다
이 땅이 맞이한 영광을
소리높이 노래한다

오, 조선은
위대한 령수를 높이 추대했나니
들으라, 세계여
인민이 목메여 웨치는 만세소리
이 강산에 더져오르는
열화의 폭풍, 감격의 환호성을

걸어온 혁명의 천만리길에
모든 희망, 모든 운명을 맡기고
인민이 한마음 다하여 모셔온분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우러르면 푸른 하늘이 열리고
신심의 밝은 해발이 비쳐오는
영명한 우리의 지도자!

이슬내린 논머리에서
막장의 휴게실에서
경축의 광장과 대회장들에서
스스럼없이 마음속 소원도 아뢰이며
스승으로 어버이로 따르고 받아들여온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토록 비범한 예지로
먼 세기의 언덕넘어
력사가 갈길을 밝혀주시고
그토록 무비의 담력으로
천만대적도 손안에 쥐락펴락하시는
희세의 위인!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하늘땅이 눈물에 잠긴 그 슬픔속에서도
오직 그이 계시여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떠선 인민
한결같이 오늘의 추대를 바랬건만
그이께서 가장 숭고한 도덕과 의리로
수령님만을 받들어 모셔왔거니

그리도 겸허하시고
그리도 효성이 지극하신 그이께서
력사에 높이 추대되신 이날을
내 어찌 기쁨의 눈물로 맞이하지 않으랴
인민이 어찌 만세의 환호로 경축하지 않으랴

오, 부러워하라 세계여
조선이 맞이한 이 행복 이 영광을
언제나 수수한 잠바옷차림으로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해오신 그이
그토록 위대한 분을 더 높이 받아들여올린
오늘의 이 감격 오늘의 이 경사를

이는 곧 사회주의조선이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이 닥쳐도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영원히 승리하며
영원히 번영할
력사의 추대

이는 곧 그이를 모시여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이
위대한 수령님 개척하신 그 한길로
더 역세게 걸어갈
의지의 선언
신념의 선언

그렇다, 조선은
언제나 인민속에 계시여
인류의 광명한 앞날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21세기의 하늘에 무궁토록 빛나실
영원한 태양을 받아들여올린것이다!

10월의 환희

김만영

1

물결에 물결을 잇고
환호에 환호를 이으며
끝없이 흘러흐르는
걱정의 대하
감격의 대하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그 어디이나
거리와 거리를 메우며
밀려오는 사람들의 파도
붉은 기발의 파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꽃다발을 흔들며
두손을 높이 들어 부르는 만세소리
10월의 환희
10월의 대하가 흐른다

모시고싶어
우리 수령님처럼 그렇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높이 받들어모시고싶어
기다리고 기다려온 이날

간절한 소원을 안고
넌년이 기다려온 이날
나도 한 물갈기가 되어
파도마냥 높뛰는 가슴을 안고
뜨거운 이 대하에 들어서노라

지구가 진동하는듯
우주가 들리는듯
천지를 진감하는
만세소리 만세소리...

우리 이날 이때까지
그이를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셔왔건만
우리 당의 수위에 추대한
오늘의 감격은 류다르구나
걱정과 기쁨에 휩싸여
심장과 심장을 터쳐 부르는 그 이름

울린다
누리에 올려퍼진다
우리 늘 불러온 그 이름

그리도 친근하고 소중한 그 이름
나도 목청껏 웨친다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동지!

아,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당의 위대한 수반
김정일동지이시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을 내 맞는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순간에 내 서있는것인가
이런 순간을 위해서라면
내 한생을 기꺼이 바쳐도
아까움 없을
력사에 두번다시 없을 이 시각

보라
백두광명성을 맞이한 기쁨을
청청밀림의 거목에 새기던
저 백발의 로투사들
최고사령부를 따라
전화의 불바다를 헤쳐온 로병들

회의장마다에시
붉은 대표증을 들고 환호를 터치던
저 로동계급과 농민들
지식인들과 청년들
구내길에서 마을길에서
당대표들을 바래우던 사람들
후더운 눈물을 흘리고 흘리누나

두어라, 그들의 눈물을
나무람 마시라
폭풍같은 만세소리에
그들의 흐느낌소리가 섞이는것을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부둥켜안는 사람들
그이 슬하에서
참된 삶을 누려온
그 행복 그 환희가 차넘치는
10월의 내 조국이어

한마음으로 우러르는

그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분이시여라
우리와 언제나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기에
낳아키워준 부모보다
우리는 그이의 한생을 더 잘 알고있노라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태어나시여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오신분
일찌기 수령님 사업을 보좌하시며
위대한 그심장을 다해
수령님을 충효의 최고높에서 모셔오신분

그이는 조국을 정치대국으로 빛내신
사상과 이론의 거장
우리 조국을 군사강국으로 펼치신
천출명장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를 펼치시고
일심단결의 대가정을 꾸리신
령도의 영재

우리는 잘 아노라
수령님을 잃고 비애의 바다에 잠겼던
우리 인민
우리 조국을 이끌어오신 세월
시련의 그 3년
의지의 그 3년을...

그 3년에
나도 우리 인민도
더 매혹되었노라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수령님 그대로
오직 수령님 그대로이신
그 숭고한 도덕과 의리 앞에

수령영생위업의 새 시대를 펼치시며
단신으로 제국주의 포위환을 짓부시고
원썬들에게 조선의 맛
조선의 본패를 보여준
무적필승의 그 담력앞에

그 3년
《고난의 행군》길을 걸으며
우리의 승배심은 활화산처럼 타올랐노라
신념의 붉은기로
황색바람을 몰아내고
배신자들과 역적들을
력사의 오물로 쓸어버리며
대오의 순결성을 정화시킨 그 심장앞에

나는 안다
세월은 막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음을
하나 세월이여
지구의 자전이여 공전이여
이 시각만은 흐름을 멈추라
력사의 이 시간을 세기의 하늘가에 새기라

아, 만민의 환호가 터져오르는곳에
바라고 바라던 숙망의 그언덕
인류의 희망과 기대가 모여지는 그 정점에
경애하는 그이는 계시는가

혁명이 나아가는곳에 그이 계시여라
사랑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는곳에 그이 계시여라
정의와 진리 승리와 영광이 시작되는곳에
그이 계시여라

이른새벽
동녘하늘에 타오르는 노을인양
희망이 시작되는곳에
김정일화 향기풍기고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높이 울리여라

물노니, 사람들이여
정녕 수령님 계시던
숭엄한 그 방은 비여있었던가
정녕 해와 해를 넘어
3년 석달 비여있었던가

아니다
오, 아니다 순간도 비여서는 안될 그 방은
3년 석달 그 어느 하루도 비여있지 않았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간을
인민은 심장속에 더 높이 모셔왔거니

그 마음과 마음들이 붉게 피어
꽃물결이 되었다
그 마음과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온 나라가 하나의 광장으로 되었다

수백만 당원들이 심장으로 받드노라
우리의 혁명무장력이
백승의 총대로 받드노라
마치와 낫과 붓을 든 인민이
절대의 총의로 받드노라
인사를 받으시라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우리의 이 인사는
수령님과 함께
세기의 변혁을 안아오며
이 땅에 흘러간
향도의 그 많은 낮과 밤들에 드리는
인민의 인사

이 나라 천리전선길을
걸음걸음 승리로 빛내며
이 땅에 새겨진
최고사령관의 자욱자욱에 드리는
조국의 축하

오,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그대로 이어
주체의 력사를 빛내여가는
혁명의 령수
탁월한 계승자께 드리는
시대와 력사의 감사여라

2

들으라, 세계여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세차게 뿜어번지는 만세소리
더욱더 뜨겁게 부르는 그 이름

이 만세소리를 들으며
광장의 한끝에라도 서보면
세상사람들 누구나 알수 있으리라
우리 인민이 어찌하여
감격에 목메어
그리도 그 이름을 부르는가를

생명으로
운명으로
이 나라 인민이
한결같이 심장으로 부르는 그 이름
김정일동지

나는 아노라
어떻게 그 이름이
이 나라 어머니들의 가슴에 자리잡았는지
어떻게 그 이름이
이 나라 아이들과 로인들
이 나라 병사들의 가슴에 새겨졌는지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광은
그 이름과 순간도 떨어진적 없거니
아, 그 이름은 량심이며 진리
투쟁이며 혁명이기에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그 이름 익혔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순간에도
그 이름을 부르는것이 아니더냐
그 이름과 더불어 나도 살기에
때없이 그 이름 부르면
인민을 위해 한생을 드바빠 사시는
그이의 모습이 안겨와
가슴 뭉클 젖어라

장장 30여성상
수령님의 원대한 뜻 꽃피워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엄높이 내세워주시며
그이는 세월을 한손에 거머쥐시었나니

소문도 없이 문득 찾아오시여
정답게 나의 손도 잡아주시던 그 손
우리 아이들의 신발문수도 재해보시고
찬바람부는 천리전선길에서
병사들의 솜옷깃도 여머주시던 그 손
어머니손처럼 언제나 따스한 그 손!

우리 그 손을 잡고
7월의 눈물바다에서 일어섰노라
그 손을 부여잡고
제국주의 봉쇄와 그 우에 겹친
자연재해의 시련을 헤쳐왔노라

그 어려운 나날
그 준엄한 나날
혁명의 주력군
우리 군대를 이끄시고
천리 최전선에 계신 우리 장군님

쪽잠에 드시며 굵이굵이
찬죽을 드시며 련련 수천리
가고 또 가시는 그 길우에서
아침해가 솟고
별이 돋았다

전선길, 전선길
혁명의 최전선길
그 길을 따라
이 강산에 봄이 오고 가을이 왔다
승리의 노래가 울리고
우리의 미래가 펼쳐졌다

그 길이 없었다면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운명의 그 길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열번도 더 망국노가 되었으리
수려한 산천은 폐허에 울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는

지구우에서 없어졌으리

오, 후더워오는 이 가슴
정녕 위대한 그이의 손에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만능보검이 쥐여져있나니

그것은
강철의 신념으로 버리신
불변의 원칙
주체의 방책

만약 그이께서
그 누구의 손을 빌어
3년 석달
조국과 인민 앞에 닥쳐온
시련과 재난을 물리쳤다면
그이에 대한 우리의 매혹
이처럼 열렬하지 못하리

그이는 자애롭고 예지에 넘친 그 안광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다보셨고
자신의 억센 걸음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끌어
우리앞에
조국의 창창한 대로를 열어놓으시었거니

어제도 오늘도
그이의 투쟁력사는
준엄한 나날에
더더욱 인민의 마음을 움직여온
실력의 력사
어려운 나날에
더더욱 인민의 사랑을 받아온
믿음의 력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인민에 대한 절대적 복무로
당도 인민을 위한 당
군대도 인민을 위한 군대로 만드시여
우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하여 우리의 세월은
우리의 백두산앞에
제국주의자들을 무릎꿇리고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준
최고사령관의 세월

내 어찌 시인일수 있으랴
인민이 제일로 살기 좋은

주체의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한
이런 기적의 창조자
이런 세기의 영웅이 이끄는
위대한 시대를 다 노래하지 못한다면

울려가라 나의 노래여
인민이 터치는 만세소리
인민이 목청껏 부르는 그 이름
시구마다
가락마다
장엄히 울리게 하라

그 이름 부르면
가슴은 마냥 행복에 젖고
온몸엔 햇빛이 따스히 쏟아져내리고
강산은 기쁨에 설레이나니

나는 본다
그 이름이 울려가는곳에서
해빛에 번쩍이는 억만창문들
불야경을 이룬 철의 지구
황금물결 춤추는 풍요한 들판을

가는곳마다 넘쳐나는
들끓는 생활과 아름다운 노래
북남 삼천리를 오가는 우리 겨레들
7천만이 한가정된 우리 민족

나는 본다
그 이름이 울려 일어서는
삼천리 통일조선을 본다
지구우에 우뚝 솟은
강성대국을 본다

아, **김정일**동지
정녕 그 이름 불러불러
인민은 한없이 행복하여라
정녕 그 이름
울려울려
내 나라, 내 조국은 끝없는 영광 떨치여라

3

이 세상 끝까지 울려여가라
뜨거운 심장으로 부르는 그 이름
세월의 끝까지 울려여가라
불타는 신념으로 웨치는 그 이름
김정일!
김정일!

이 세상 그 누가 모르랴
그 이름을 부르는 인민의 웨침속에
그이를 끝까지 따라갈

우리의 맹세가 비끼고
그이를 위해 총폭탄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결사의 각오가 끊어번지는것을

우리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안으시고
그 한어깨우에
력사의 짐을 통채로 떠메시고
복잡다단한 이 세기에 나서신
우리의 령도자!

인민때문에 오늘까지
너무도 고생 많으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으신
친애하는 그이를 우러러
천만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
솟구치는 진정을 아뢰이나니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시며
그토록 험한 길을 쉬임없이 걸으신
그 발걸음
이제 또 헤치셔야 할 가시덤불길
넘으셔야 할 풍랑은 그 얼마입니까

새벽까지 꺼질줄 모르던
당중앙의 그 불빛을
이제 또 몇천 몇만밤에 이어가시고
천리전선길과 현지지도길에 붙어치던
눈보라와 비바람은
이제 또 얼마나 맞으셔야 합니까

이 시각 마음속으로
온 나라 인민들의 손을 다 잡아주시며
장군님 한분만을 하늘처럼 쳐다보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두고
생각은 얼마나 많으십니까

《고난의 행군》도 끝내고
조국도 통일하고
사회주의도 더 줄기차게 이끌어가고...
혁명의 성스러운 위업
시대와 력사의 초행길이
장군님만을 기다리고있나니

그 많고 무거운 짐중에
내 다만 한짐이라도 덜고
쌓이고 쌓인 그 심려중에
내 한갈피라도 대신해드릴수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라 장군님이시여
장군님 결심하신것은
우리 반드시 하리라

장군님 실재하신것은
우리 반드시 꽃피우리라

그것이 하늘을 내리우고
땅을 가르는 일이라도
바다를 메우고
산악을 옮기는 일이라도
기꺼이 어깨를 들이밀리라

우리를 부르시라
그 길이 진펄길 천리라도
우리는 우리의 장화를 신고
우리 식으로 걸어가리라
그 길이 불타는 강 만리라도
우리는 우리의 배를 무어타고
우리 식으로 건너가리라

우리에게는
50여년세월
우리의 피와 땀을 바쳐 세워놓은
우리의 사회제도
우리의 경제체제
우리의 문화와 도덕이 제일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세운 혁명의 원칙에서
0.001미리의 양보도 없노라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고
종심도 깊지 않은 이 강토에서
한걸음만 물러선다면
제국주의풍랑이 순간에 우리를 삼키리
우리는 우리의 모든것을 잃으리

우리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을 잘 알기에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여도
비관하지 않노라
잘 먹고 잘살 생각보다
혁명할 생각에 가슴 더 불타노라

통일이 되기전에는
그 어떤 화려한 생활을
우리 바라지 않노라
통일이 되기전에는
풍족한 살림이 차례진다 하여도
우리 마음 편히 살수 없노라

통일의 그날에
우리의 모든 희망
우리의 모든 념원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있어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나니

우리에게는 남에게 없는
주체의 방책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것을 모르고
우리 식만을 아노라
우리 식은 주체!
오직 백전백승하는
김정일식!

우리 식
장군님식
우리 장군님의 령도를
순간이라도 떠난다면
혁명은 제갈 길을 잃고
우리는 사회주의를 잃으리니

장군님의 령도— 그것은
혁명의 생명선
민족의 생명선
사회주의 생명선

그래서 자나깨나
맑은 날이나 굵은 날이나
그이의 말씀만을 듣고
그이의 령도만을 받드는것은
수십년동안 그이를 모시며
우리 가슴에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었거니

우리 더 새벽일찍 일어나리라
우리 더 밤늦게까지 일을 하리라
그이의 뜻을 받들며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깃들어있는
내 조국을 만방에 떨치리라

잠을 자도
장군님의 구상을 새기며 잠을 자고
꿈을 꾸어도
장군님 정치를 받드는 꿈을 꾸리라

불노을 피는 구내길과
봄빛흐르는 들길
동트는 수도의 새벽거리에서
우리 장군님
수령님과 함께 펼쳐가시던
민족의 부흥과 조국번영의 구상을
이 땅 이 하늘에 가득히 꽃피우리라

통일조선의 래일을 앞당기며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장엄한 선군길에 오른
사랑하는 조국이며, 앞으로
복받은 인민이며, 앞으로
세기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서계시나니

로동당세월은 영원하리라
삼천리강산에 통일은 일어서리라
인민주체
민족자주로 빛나는
로동당시대는 오늘도 좋지만
래일에 더욱더 번영하리라

그렇다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로동당
그이는 우리 공화국
그이는 우리 혁명무력
그이는 아, 그이는
주체의 우리 조선

우리를 인도하시라
위대하고 친근한 어버이이시여
강성대국의 번영과
창창한 미래를 설계하시며
세월의 끝까지
이 나라 이 인민을 이끄시라

우리의 운명
조국의 운명을 위해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위해
우리는 장군님의 손만을 잡고
장군님의 령도에 충실하리라
장군님따라 천만리를 가고 또 가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어진대도
우리는 끄떡없이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장군님만을 받들며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를 더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리라
환호하라, 강산이여
축포를 울리라, 나의 조국이여
그대만이 지닌 오늘의 이 행운
그대만이 안은 오늘의 이 수령복을
하늘땅 끝까지 펼쳐가라
우리 부르고 부르는 그 이름

우리 더치고 더치는 만세소리는
승리와 영광으로 찬란할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영원히 영원히 울려퍼지리라

아, 폭풍치는 이 시대의 장군
백두산의 장군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러러
10월의 환희는 누리를 떨친다

조선의 함성은 세기를 떨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 만세!
주체86(1997)년 10월 9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정동찬

오늘이 며칠입니까
우리 민족이 어버이를 잃은
그 영결의 날로부터
며칠몇밤이 지난
오늘입니까

참으로 바라온
오늘이어서
이날의 력서를 아이들과 함께 번지며
위대한 인간이 오르신
그 숭고한 미덕의 높이에 눈굽을 닦습니다

하루
한시가 그림계
추대의 마음 비쳐온 인민의 소원을
굳이 미루어오신
김정일 동지

세기와 더불어 계시는
수령님만 생각하시고
수령님만 모셔온 그 충정

예전처럼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을
한몸에 다 안으시고도
어버이의 중임을 보좌하시는
그 시점에 서계시었기에

굳이 사양하신
나날은 력사의 끊어진 순간도 아니고
령수의 빈 공간도
아니였습니다

더 굳건히
이어지고
더더욱 노도같은
사회주의대화의 흐름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분명 오늘에서
인민에게 수락하셨습니다
수령님 남기신 유훈중에서

가장 힘들게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날에
백두성탄생을 알린지도 반세기를 넘어
년륜을 새겨온
밀영의 푸른 거목도 기쁨에 겨워
맑은 이슬 떨어졌을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밤의 초병이 되어
당중앙창가의 불빛아래서
그이께서 하시는 일 지켜온 정원수들도
감격에 설레었을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 길이 모시고
자신의 일만은 단호히 물리치시는
령도자의 그 의리심에
조선이 울고
세계가 울었습니다

그분의 오늘은
어제와 같은 오늘입니다
그분의 래일도
오늘과 같은
래일입니다

믿어온 그대로이며
따라온 그대로 모시는
민족의 행운을 안고
그저 다만 늦어진 오늘의 그 심중앞에
머리 숙어질뿐

보통로동일의 이 하루가
위대한 경축의 날로
력사에 새겨지는
이날에
우리는 누리를 향해 뵈칩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은
사회주의의 제일수령을 모신 나라
영원히 대를 이어 빛나는
태양의 조국입니다

영원한 기발

김익철

1

몽갑 남폐자의 태고연한 대밀림은 자기 품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을 흥분속에 지켜보듯 조용히 설레이고있었다. 짐승들만 넘나들던 이도화원의 막바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반토굴과 천막들이 일어서고 남단과 북만일대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 아침 일찍 눈덮인 밀영을 돌아보고계시였다. 경위중대장 오성수가 동행했다. 8련대 숙영지에 이르러 방금 경계근무를 교대하고 돌아오는 대원과 마주쳤다. 그런데 그의 손에 뼈라가 들려있었다. 그것을 받아 드시고 앞뒤를 훑어보시는 그의 안광에 언뜻 어두운 빛이 스쳐지났다.

《여기도 조용하게 지낼곳은 못되는구만...》

사령관동지께서 격하신 어조로 말씀하시며 오성수에게 뼈라를 넘겨주시였다.

(악착한놈들, 여기에까지!!)

오성수는 섬찍한 마음으로 뼈라를 눈더듬했다. 이 일대의 락도와 여러개 사단이 포위진을 쳤다는 위협조의 내용이었다. 인간세상과는 담을 쌓은곳으로 알았던 이 수림에마저 적들의 축수가 미치고있다고 생각하니 머리끝이 쭈뼛했다. 사령관동지를 다소나마 안전한곳에 모셨다고 안도감을 가졌던 자신이 어리석게 생각되였다.

《사령관동지, 우리 소대장동문 언제 옵니까?》

《아, 동무가 박순범소대지. 곧 올게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며 미안한 기색을 보이시였다. 지난 9월 림강 묘령에서 장백지구로 파견된 정치공작원들과 련계를 맺기 위해 박순범을 파견하시였다. 워낙 규률있고 싸움 잘하는 소대여서 소대장이 없지만 제앞치레를 잘해나갔다.

8련대 숙영지를 돌아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뒤집을 지신채 묵묵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눈밝히는 소리에 틀동을 맞추어 그이께서 차신 목갑총이 규칙적으로 흔들리였다.

《필쩔 난다는 사람이 늦는것을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불안을 숨기지 않으시였다.

《...》

오성수는 아무 말쑈도 드리지 못했다. 박순범을 초조하게 기다리시는것은 금후 행동방침수립과 관련되리라고 짐작될뿐이였다.

《경계근무를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서금철동무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

오성수는 대답이 궁하여 어깨에 멘 목갑총끈만 만지작거렸다. 부대가 여기로 오는 도중 신태즈 부근에서 서금철을 조장으로 하여 일본말에 능한 리재석에게 며칠사이에 이 일대의 적정을 상세히 정찰해올 임무를 주어 쫓아냈다. 약속한 날자를 이틀이나 어기는것으로 보아 무슨 사달이 난것 같았다.

《사람을 띄워 알아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오늘까지 기다려봅시다.》

그이께서 이렇게 이르시고 사령부쪽으로 향하시였다. 오성수는 뜻하지 않은 뼈라와 박순범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가 경위중대천막앞에 이르렀을 때 방금 도착한 서금철이 마주나와 보고를 했다.

《범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왔구만. 그런데 왜 이리 늦었소?》

오성수는 반가움보다 사령관동지께 걱정을 끼쳐드린 야속함이 앞섰다.

《...》

수수한 막벌이군차림인 서금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틀었다. 이상한 기미를 차린 오성수는 그의 곁에 의례히 있어야 할 리재석이 보이지 않아 다우쳐물었다.

《재석동문 어데 있소?》

《저 혼자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적정을 재확인한다며 혼자 나갔다가...》

서금철은 바지주머니에서 글쭉지를 꺼내여주었다. 오성수는 속이 철렁하는것을 느끼며 황황히 글쭉지를 펴들었다.

나를 찾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이 일대를 적의 3개 사단이 포위진을 쳤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다시 나을길이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 마지막길을 갈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 심정을 리해해주시 바랍니다. 재석

글쭉지를 쥔 오성수의 손이 풍을 만난듯 부르르 떨리였다.

《그러니 변절!!... 이게 사실이요?》

오성수는 눈에서 불을 뿜으며 소리질렀다.

《이틀이나 찾았지만 끝내...》

서금철은 고개를 푹 떨구고 불살을 떨었다.

오성수는 실성한 사람처럼 진정을 못하고 이리 저리 발만 옮겨디디였다. 갑자기 현훈증이 일어나 눈을 감고 몸을 가누었다.

(혁명은 어찌되던 제 목숨부터 건지겠다!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합쳐야 할 급박한 때에 도망을 찬단말인가!)

오성수는 뺨이라도 호되게 맞은것 같이 분하고 치가 떨렸다. 더구나 걱정이 궁급하시여 기대속에 기다리시는 장군님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뼈라때문에 받으신 충격이 사라지기도전에 그것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큰 타격을 어떻게 안겨드린단말인가. 그는 경위중대 소대장으로부터 중대장에 이르는 4년간 사령관동지를 몸가끼에서 모셔오면서 이렇게 딱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렇다고 보고를 안드릴수도 없었다.

《빨리 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금철이 기여드는 목소리로 청을 댔다.

《그러구두 사령관동지앞에 나설 생각을 하는게 장하오. 가세요!》

오성수는 어처구니 없어하며 앞장섰다.

그들이 사령부에 들어서자 통나무로 무은 탁자를 마주하시고 무엇인가 쓰고계시던 사령관동지께서 《아, 왔구만!》하고 반기시며 일어나시었다.

《사령관동지, 저를...》

서금철은 뒤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 질린 얼굴로 서있는 오성수를 알아보시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시었다. 오성수는 입이 열리지 않아 글썽지를 내드리었다.

글썽을 더듬으시는 사령관동지의 안광은 의혹, 놀라움, 분격의 빛으로 변해가시었다. 서금철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사령부안을 거니시었다.

《사령관동지! 다시 가서 붙잡아오겠습니다!》

서금철이 격분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봐두시오. 혁명은 강요하는게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정하시었다.

《그럼 저에게 처벌을 주십시오.》

《처벌!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매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지켜볼수야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사람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몹시 서거운 어조로 말씀하시고는 이마전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거둬 쓸어들리시었다. 오성수는 리재석의 처사에 억이 막혔다.

그로 말하면 보친보전투때 주재소에서 구출된 사람이었다. 소학교 훈장을 하던 그는 학생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들은 독립군이야기를 몇번 한것이 단서가 되어 불온분자로 구속되었었다. 놈들의 율가미에서 구원되게 된 그는 감격하여 아버지를 데리고 장군님을 찾았었다. 한때 독립군에 관여했던 그의 아버지는 서슴없이 장군님께 아들을

을 말졌다. 입대 초기 그는 적을 과대평가하며 의기가 박약한 발언을 가끔 하여 여러번 비판과 충고를 받았다. 그때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실천투쟁을 통해 단련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일본말에 능한 그는 경찰임무수행에서 남다른 역할을 하여 장군님의 치하를 여러번 받았고 독립임무를 맡아안은 신임까지 받았다. 그런 그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적에게 겁을 먹으면 중당에는 그 길로밖에 갈데가 없습니다. 대오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의 정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흥분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글썽지를 불판에 던져넣으시었다. 순식간에 재리로 날아오르는 광경을 보는 오성수의 마음은 비장한 걱정으로 끓어올랐다.

《성수동무, 이 일을 놓고 대원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천막으로 돌아온 오성수는 천막벽에 걸려있는 붉은 기발에 눈길이 닿았다. 외가구전투때 수류탄파편에 찢긴 자리가 눈을 아프게 했다. 가슴이 아팠다.

그때 기수였던 정경준은 가슴에 파편을 맞고도 기발을 휘저으며 대오를 돌격으로 불렀던것이다.

(재석이, 경준이가 목숨으로 지킨 기발을 버리고 도망을 가!)

오성수는 이 순간 기발이 더없이 소중한게 생각되었다. 그는 미처 손질하지 못했던 찢긴 자리를 정히 깎기 시작했다.

이때 사령관동지께서 천막안에 들어서시었다. 오성수는 일손을 멈추고 공손히 그이를 맞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세월과 더불어 색이 바래고 눈비에 삭아 넓어진데다가 총탄에 구멍이 뚫린 흔적을 주의깊게 더듬으시다가 채 깎지 못한 찢긴 자리에서 시선을 멈추시었다. 오성수는 거북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르기만 했다.

《중대장동무, 내가 미처 묻지 못했는데 7련대 천공작조 소식이 없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 의외로 물으시는 말씀이었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오성수는 사사건건 거북한 대답을 드리게 되는 자신의 처사가 야속했다.

《왕호부대도 그렇고 1군부대들이 도착하겠는데 숨웃이 채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근심어린 안색으로 말씀하시었다. 오성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께서는 아직 흠웃을 입고계시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계시는것이다. 열하원정의 후파가 장군님의 신상에 짐을 더해드리고있다고 생각하니 좌경모험주의자들에게 맹종맹동한 항일련군부대들에 대한 불만감이 한층 더해졌다.

《그들을 우리가 따듯이 대해줘야 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오성수의 심중을 짚어보신듯 당부하시었다.

《...》

오성수는 아무 말씀도 못드리고 눈을 습벅이기로 했다.

《중대장동무, 새 기발을 하나 만듭시다. 솜동복 때문에 군수관이 경황이 없겠는데 동무가 직접 말아해보시오.》

사령관동지께서 다시금 기발에 시선을 옮기시며 분부하시였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동지!》

오성수는 비로소 새 기발을 내들게 되었다는 기쁨이 앞서 주저없이 대답을 드리였다.

《하나 잘 만들어봅시다.》

《넌려마십시오. 사령관동지!》

오성수는 자신심에 넘쳐 대답을 드리였다.

2

속영지는 련일 도착하는 부대들로 하여 대사집처럼 흥성거렸다. 남만에서 활동하던 독립련대의 도착에 뒤이어 왕호부대가 나타났다. 마치 패잔병들을 끌어모은듯한 대오였다. 해지고 찢긴 여름군복차림에 머리와 다리에 아무렇게나 붕대를 휘감은 사람, 99식장총을 둘러메거나 지팡이대신 짚은 사람, 이런 각이한 모습으로 삼삼오오 떼를 지어 허우적이며 걸어왔다.

오성수의 보고를 받으신 사령관동지께서 하던 일을 미루고 급히 마중나오시였다. 오성수가 그이의 뒤를 따랐다.

거울진 체구에 안면굴곡이 뚜렷한 왕호는 《김사령!》하고 달려와 사령관동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러는 그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왕호를 외락 끄당기시여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이윽고 왕호가 자기 부대에 정렬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중대장들의 구령에 따라 병사들은 별로 서두르지 않고 정렬하였다. 길이가 들쭉날쭉한 대오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련민의 정이 어린 안색으로 대오를 더듬어보시였다. 동녕현성과 라자구를 련합작전으로 치던 때와는 대비할수 없게 행색이 초라하고 의기가 꺾이였다. 굶주림에 허기진 여윈 모습과 추위에 퍼렇게 이물이 진 얼굴들은 차마 보기조차 참혹했다. 좌경모험주의자들이 강요한 열하원정의 후과를 한눈에 볼수 있는 축도였다. 이들을 부른것이 백번 옳았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만일 이들을 버려두었다면 운명이 어떻게 끝나겠는가 하는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시였다.

《이렇게 환대해주어 황송합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해주지 않겠습니까?》

왕호가 한결 활기를 띠며 청을 드렸다.

사령관동지께서 흔연히 응하시였다.

《동지들! 우리는 지난날 항일의 기치아래 한전호에서 싸운 전우들입니다. 동지들이 흘린 피가 우리가 헤쳐온 투쟁의 자욱자욱에 스며있습니다.

힘난한 열하원정의 길에서 전우들을 잃고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인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불비하나마 동지들을 위해서 따뜻한 숙소와 식량과 필수품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모두 자기 집에 온것처럼 마음놓고 꼭 쉬며 원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장군님의 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누군가 《김사령 만세!》하고 웨쳤다. 뒤미처 대오에서는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가 일어났다. 《김사령께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어 고맙습니다.》

사령관동지의 손을 꼭 잡는 왕호의 구레나룻이 짙은 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리 대기고있던 대원들이 그들을 숙소로 안내했다.

어쩔줄 모르는 그들을 보면서 오성수는 장군님의 의리깊은 인정과 단 몇마디의 말씀으로 포옹의 품을 펼치시는 그 숭고한 품모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성수로서는 허전한 감을 금할수 없었다. 이들을 부르신것은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자는것일진대 도움은커녕 짐밖에 된것이 없는 서리맞은 과발모양의 대오였다. 열하원정의 후과로 일부 항일련군부대들이 약화된것과 때를 같이 하여 중일전쟁마저 둘러놓고 우리의 사령부를 압살하기 위해 발악하는 적을 한몸으로 막아나서신 사령관동지의 신상이 차츰 더 우려되였다. 왕호네들을 흔연히 맞으시는 사령관동지를 대하면서 그이께서 헤쳐나가실 앞날에 대한 기우로 눈물겨운 심정을 견디기 어려웠다.

《숨옷을 빨리 입혀야겠는데 동무네가 재봉대일을 도울수 없겠소?》

사령관동지께서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람루한 대오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며 하시는 말씀이였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빨리 추서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기발을 만들 조직사업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오성수는 왕호네들앞에서 우리 대오에 새 기발을 내들어 영향을 주게 하시려는것이라고 짐작하며 힘있는 대답을 드렸다.

그는 어제 사령관동지로부터 지시를 받자마자 재봉대에 한고향 너대원이 있는 서금철에게 과업을 주었다. 당장 천을 구해올 형편도 못되므로 쉽지는 않을것이였다. 독촉이라도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대에 돌아온 그는 서금철을 불렀다.

《금철동무, 사령관동지께서 재봉대를 도우라는 말씀이 계셨소. 세사람을 줄테니까 곧 그 일에 착수하오!》

오성수는 제잠담 이렇게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서금철은 두말없이 응했다. 재봉기수리에 능한 그는 드문히 재봉대의 초청을 받는 처지여서 안성맞춤이였다.

《기발감을 빨리 마련해야겠소. 될수 있겠지?》

《그 동무가 천과 물감을 물색하는중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각별히 관심하시는 일인데 책
입적으로 해야겠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금철에게 세사람을 붙여주고나서 경계근무초
소들을 순회하고 왔을 때 7련대장이 파견한 전령
병이 도착하여 기다리고있었다.

《기다렸소. 천공작조가 도착했소?》
오성수는 인사치레도 잊고 다우쳐물었다.
《예, 그런데...》

전령병은 별로 심각한 낯빛을 띠면서 봉투를
내밀었다. 좀해서는 글썽지놀음을 안하는 7련대
장의 성미를 아는지라 그는 서둘러 속지를 꺼냈
다.

경위중대장동무앞

방금 천공작조가 물자 전량을 해결해가지고 도
착하였는데 림석종이라는 왜놈군 군속 한명을 데
려왔음. 당자의 말이 사령관동지와 과거 동창지
간이며 중대한 일을 가지고 왔으므로 지체없이
상면시켜줄것을 요구하고있음. 나의 림장은 사령
관동지의 신변안전과 관련되므로 될수록 상면시
키지 않는것이 옳다고 보아짐. 심사숙고하여 처
리바람. 7련대장

오성수는 대뜸 가슴이 후두둑 뛰여 마음을 다
잡고 다시한번 글줄을 더듬었다. 소름이 오싹 끼
치었다. 그는 경위중대장의 예리한 판단으로 사
령관동지의 신변을 심히 위협하는 모략이 적들속
에서 꾸며지고있다는것을 직감했다. 사령관동지
와 아는 사이로서 적군의 군속이라면 필경 밀정
이나 변절자일것인데 그자가 공공연히 면회를 청
해왔다면 무엇을 뜻하는것인가. 그는 선뜻 판단
이 가지 않아 잠시 선결음을 하며 망설였다. 사
태가 점점 더 험하게 번져가고있었다. 증강되는
적의 포위진, 뼈라사진, 리재석의 도주, 기죽은
왕호네의 도착, 그런데 다 왜놈의 군속 끄나불의
공개적인 접근, 참으로 말할수 없이 꾀박한 현실
이었다.

오성수는 그냥 지체할수 없어 사령부로 달려갔
다. 그는 이때처럼 허둥거리기는 처음이었다. 경
위중대장의 보고를 받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적
들의 측수가 자신의 신변에 직접 미치고있다는
절박감을 느끼시었다. 더구나 그 측수가 다름아
닌 림석종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시여 운명의 희롱
같은 기이한 사실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었다.
《림석종이 나를 찾아왔다. 허허...》

사령관동지께서 어이가 없으신듯 크게 웃으시
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그이의 뜻밖의 반응
에 오성수는 더구나 마음이 긴장해졌다. 오죽 놀
라시였으면 저토록 태연하려고 애쓰시겠는가.

《우리가 남들이 꺾지 못한 시련을 다 이겨내며
싸우다보니 일찌기 어느 소설책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기이한 일을 당하는것 같습니다. 안그렇
습니까. 중대장동무!》

사령관동지께서 쓰거운 미소를 지으시며 오성
수를 마주보시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이께서 잠시 기억을 더듬으시다가 말씀을 계
속하시었다.

...아버님 친구들의 권고를 좇아 화성의숙으로
가셨을 때 첫눈에 뜨인 사람이 림석종이었다. 일
찍부터 통의부에 소속되어 독립군생활을 하다가
발탁되어 화성의숙에 온 사람이었다. 총명한데다
가 다혈질이어서 학과토론같은 때는 새 로션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성미가 꼬장꼬장하
여 바투 지내는 친구가 적은 그는 아직은 나이
어리시던 사령관동지를 섬서하게 대하였다.

한번은 다른 학교와 축구시합이 있었는데 그가
다리를 상했다. 그러나 각근히 돌봐줄 사람이 없
었다. 사령관동지께서 기숙사에서 침식을 같이하
며 열흘 남짓 간호해주시었다. 이를 계기로 가까
와지기 시작했다. 식사와 질이 낫다고 불만을 품
었던 그는 기숙사 사감과 대판 싸움을 했다.

사령관동지께서 큰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밥타
발을 한다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따끔히 충
고해주시었다. 그후부터 그는 머리를 낮추기 시
작했고 차차로는 어렵게 대하며 따르게 되었다.

김시우의 집에서 《ㄷ. ㄷ》를 무을 때는 누구
보다 열렬히 명세를 다졌고 화성의숙을 떠나 길
림에서의 활동도 같이 했고 무장을 갖추고 첫 무
장대오를 내올 때도 맨 앞자리를 차지했던 사람
이었다. 그랬던 그가 무기공작을 나갔다가 체포
된후 무소식이었는데 이런 기이한 상봉을 연출하
였다...

《중대장동무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 상면에 대한 의향을 물으시었
다.

《제 생각엔 그자를 사령부근처에 접근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겁니까?》

《저야 경위중대장이 아닙니까!》

《하하, 동창의 명분으로 상면을 청해왔는데 이
김일성이가 거절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동창이래두 삼가했으면 합니다.》

《혹시 중대장동무가 겁을 먹은건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실은 사령관동지 신변때문에
...》

《허허, 일없습니다. 만납시다.》

사령관동지께서 대범하신 어조로 결심을 밝히
셨다.

《...》

오성수는 하는수 없이 무언의 수궁을 했다.

사령부를 나선 그는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
아 망설이고 서있었다. 언제부터 일기 시작했는
지 칼바람이 숲정수리를 휘어잡았다. 가지마다
쌓였던 눈이 떨어져내리며 꽃보라처럼 흩날렸다.

적들이 버젓이 자기 끄나물을 사령관동지한테 접근시키는 정도이면 우리를 쥐고 놀아보자는 수작인데 과연 일이 어떻게 번져지겠는지 예상할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런 험한 형편에서 금후 행동 방침을 세우기 위한 회의는 어떻게 하며 단 하루인들 마음놓고 지낼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당장 다른곳으로 옮길 형편도 못되었다. 적의 포위속에는 조건에서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런데는 오불관언하고 툼툼이 회의준비에만 몰두하면서 불청객과의 상면도 주저하지 않고계시었다. 그는 경위중대장으로서 지금처럼 무겁게 임무를 감당하기는 처음이었다. 바라건대 만사여의하여 오늘의 하루하루를 감회속에 더듬게 될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할뿐이었다.

3

뜻은듯이 맑게 개인 아침이었다. 눈이 무겁게 쌓인 밀림속은 세상만물을 제모습 그대로 얼귀비릴듯한 폭한에 숨막힐듯했다.

오성수는 아까부터 경위중대 경계초소계선에 나와 7련대에서 호송해오는 림석종의 도착을 기다리고있었다. 흥분으로 하여 차츰 숨결이 짙아지는 그의 코구멍에서는 비자루같은 두줄기의 하얀 김이 뿜어나왔다.

이윽고 두명의 무장호송을 받으며 첫눈에 림석종이라고 짚어지는 사람이 나타났다. 빙천실지에 풍찬로숙하며 살아오는 사람들과는 봄봄이부터가 다른 허여멀끔하고 살갗에 윤기가 도는 상관이였다. 키는 보통이었으나 약간 치째질사한 눈은 그때사나운 느낌을 주었고 고급모직으로 된 누런 협화복에 박차달린 가죽장화를 신고 가슴을 내밀사한 자세로 걸어오는 모양이 마치 귀빈으로나 오는듯한 거드름이 풍기였다.

오성수는 지체없이 사령부로 데리고 갔다. 사령관동지와 이야기하고있던 왕호가 눈치를 차리고 슬며시 자리를 떴다. 막상 사령관동지앞에 서자 림석종은 급기야 섬서해하며 어색한 몸가짐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주어 감사합니다.》하며 엉겁결에 어리굽혀 인사를 했다.

《림석종군이 우리를 찾아온건 참으로 뜻밖입니다. 앉으시오.》

사령관동지께서 짧은 장군다운 위풍이 풍기는 담담한 음성으로 인사를 건네시자 림석종은 옛지기의 감정이 되살아났던지 한결 긴장이 풀린 몸가짐으로 의자에 앉았다. 오성수도 동석했다.

장군님께서 양철주전자의 짧은 물을 고뿌에 따라 권하시였다. 나 어린 전령병이 잘게 팬 장작을 안고들어와 사위여가는 불판우에 불을 지펴놓고 나갔다. 밖에서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사령부안은 봄날의 양지같이 따뜻하고 아늑했다.

관동군 정예사단들이 일격에 덮칠듯 겹겹이 포위진을 치고있는속에서도 질서정연하고 여유작작

하게 생활을 펴고있는것을 보는것이 너무나 뜻밖인지 림석종의 눈에서는 시종 의혹의 빛이 떠나지 않았다. 더구나 보통대원들은 솜옷을 입었는데 사령관이 아직도 수수한 여름옷을 입고 어느때건 싸움에 앞장설 태세로 허리에 권총까지 차고계시는 모습에 감동을 숨기지 못하고있었다.

화전이나 길림시절의 애절한 얼굴모습은 어데라없이 확연하였지만 사선의 고비를 수없이 넘으며 형성된 신심과 원숙감이 풍기는 몸가짐, 강인한 의지와 락관이 넘치는 표정 등이 조화를 이룬 완성된 인격의 새로운 모습이였다.

오성수는 경계심어린 예리한 눈길로 림석종의 감수에서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심리적변화를 놓침없이 포착하고있었다. 《이렇게 만나니 화전의 언덕에서 붉은기앞에 맹세다지던 림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월과 함께 림군은 상상할수 없게 변한것 같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여유있는 어조로 말을 건네시였다.

《인간으로 태어난것이 죄인가 합니다. 막상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니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생명이 있구야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림석종은 어색한 억양으로 대답했다.

《인생이란 그렇단말이지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사령관동지의 입가에는 랭소가 떠오르시였다.

《그런 덕에 림군은 꽤참게 지내는것 같습니다.》

《이에, 장군님의 옛지기라는 덕으로 그닥 불편없이 지냅니다.》

《하하, 내 덕이라구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장군님과 인맥이 있는 사람이면 최혜대우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 림군은 그 사람들에게 대한 신세갚음을 하자고 나를 찾아왔습니까?》

《장군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나는 지난날 친분관계를 중히 여겨 기약없이 산속에서 고생하는 장군을 사지에서 건지자고 이 걸음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동북 삼성을 단숨에 타고앉아 아시아대륙을 반나마 차지한데다가 중일전쟁을 당분간 제쳐놓고 유격대사령부를 없애버릴 목적으로 내륙에 투입한 병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남패자주변에만도 웅군 세개 사단이 포위진을 치고 신형포와 독가스, 비행대까지 대기상태에 두고있습니다. 강승약패라 결과가 불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고만있을수 없어 장군을 돕자고 찾아온겁니다.》

림석종은 자기 취지를 다 밝힌 안도감에서인지 손수건을 꺼내여 이마의 땀을 훔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이 짜준 각본을 외워대면서 그 무슨 의리라도 있는듯이 지껄여대는 림석종의 수작질에 고소를 금치 못하시였다. 한때는 늙으신 할머니를 엄동의 눈길에 내세우시여

《귀순공작》 놀음을 벌렸으나 안되겠다고 보았는지 이번에는 이런 얇은 수를 놓고있었다.

《하지만 림군이 스스로 찾아온거야 아니겠지요.》

사령관동지께서 비로소 엉큼한 구석을 찌르시었다.

《물론 그렇지요!》

이렇게 긍정하고난 림석종은 자기는 귀순공작 놀음이나 벌리는 보도파따위가 아니라 본국의 지령을 받은 관동군사령관의 위임을 받고 왔노라고 실토했다.

(흥, 이놈이 로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오성수는 적의를 참을수 없어 저도 모르게 목감춤으로 손이 갔다. 사령관동지께서 오성수에게는 짓을 하시고 림석종을 바라보시었다.

목숨이 아까와 놈들의 개노릇을 하는 그가 더없이 가궁하게 생각되시었다. 그에게는 지난날의 뉴대를 되살릴만한 실날같은 기대도 가지 않으시었다. 그가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는지도 뻔하었다. 까마귀 쩡잡을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놈들에게 호된 타격을 안겨야겠다는 각오만이 한층 굳어지시었다. 이 순간 사령관동지의 뇌리에는 놈들을 끌탕먹일 묘안이 번개처럼 떠오르시었다.

《그렇다면 림군이 긴한 문제를 가지고 왔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차차로 논의하기로 합시다. 우리는 급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일단락 상면을 끝내실 결심으로 이런 청을 대시었다.

《제 힘으로 될 일이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림석종은 일이 뜻대로 된다고 생각했던지 혼연히 수긍했다.

《아직 사령관을 만나지 못했다. 기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편지를 쓰시오.》

사령관동지께서 간명히 분부하시었다. 림석종은 작은 눈알을 팽글팽글 돌리다가 응낙했다.

순간 오성수는 장군님의 의도를 제격 알아차리고 속으로 환성을 질렀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동안은 마음놓고 회의도 하고 필요한 일을 할수 있을것이였다. 장군님의 림기응변적인 지략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대기중에 있던 호송원들이 림석종을 데려내갔다.

《저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격하신 어조로 말씀하시며 움켜쥔 주먹을 내드시었다. 오성수는 장군님을 우러르기만 했다.

《저 사람이 우리앞에서 감히 인생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뭐겠소. 목숨이 진할 때까지 오래도록 사는것인가, 아니면 나라도 백성도 다 모르고 안락이나

누리는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명예인가, 벼슬인가...》

사령관동지께서는 힘있게 고개를 저으시었다.

오성수는 가슴이 뻐근해났다. 그는 지금 인간 세상이라는 갈래 많고 복잡한 길을 헤매이다가 어느한 교차점에 서있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때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되어 두갈래로 뻗어온 인생길이 오늘에 이르러 얼마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는가. 과연 무엇이 이렇듯 상반되는 인생행로를 그어놓았는가.

오성수의 생각이 여기에 미쳤을 때 장군님의 갈리신 음성이 방안을 울리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내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 줄 결심이요!》

과연 그 대답이 어떤것이겠는지 오성수로서는 아직 짚이지 않았다.

《저 사람에게 대한 경계조치를 단단히 하시오. 그가 우리 수중에 있는 한 적들은 피동에 서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회의부터 해야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평연한 안색이 되시여 탁자와 마주앉으시며 문건에 손을 대시었다.

오성수는 흥분을 녹얳히며 조용히 사령부를 나섰다. 그가 중대로 통하는 언덕길에 올라섰을 때였다. 큰바위 뒤쪽에서 왕호가 불쑥 나섰다. 아마도 오성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린것 같았다.

《중대장동무, 아까 그 사람이 김사령과 동창지간이며 변절자라는데 사실입니까?》

왕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닌데...》

왕호는 기우가 비친 얼굴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의 급박한 정황을 두고 심심한 우려를 느끼고있었다.

《그래, 김사령은 앞으로의 구상을 어떻게 가지신것 같습니까?》

오성수는 그것을 금후 대오의 행동방향을 짚어보려는 의도로 리해했다. 이것은 성수자신이 은근히 마음조이고있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로서는 사령관동지의 진의도를 아직은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있었다.

《글쎄, 저도 아직은...》

《아, 그렇습니까, 중대장동무. 어련하겠지만 김사령을 아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라자구전투때의 일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우리가 서산포대를 점령하지 못하여 실패의 위험이 조성되자 김사령은 맨 앞장에서 대원들을 돌격으로 불러단숨에 포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무사하셨으니 말이지 나는 죽어도 쟁지 못할 대죄를 지었을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대비가 안됩니다. 나는 김사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칫하면 라자구전투때의 교훈을 되풀이할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리해됩니다까?》

왕호는 식지를 내들어 성수의 가슴노리를 꼭 지르기까지 했다.

《고맙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오성수는 사령관동지를 위한 왕호의 진심에 코 허리가 저러났다. 찍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령관동지께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조성된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시는 방책을 세우실것같이 각성하라는 암시로 받아들였다. 결국 성수 자신이 벌써부터 안고있는 고민을 왕호도 감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이 옷이 김사령께 지어 드린게 분명합니까?》

왕호는 입고있는 솜옷을 가리키며 물었다.

《…!》

오성수는 대답을 망설이며 생긋이 웃기만 했다. 재봉대에서 맨먼저 그이께 지어드린 솜옷을 입지 않고계시다가 왕호에게 먼저 입혔던것이다.

《김사령은 아니라고 딱 자르시는데 나는 아마 그분앞에 늘 인사불성의 처지로만 살아야 할가봅니다. 허허…》

왕호는 웃고있었지만 눈에는 물기가 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편할겁니다.》

오성수도 이렇게 적당한 대답을 했다.

《그럼 내가 한 말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왕호는 손을 들어보이고 성큼성큼 언덕길로 사라졌다. 오성수는 잠시 신중한 낮빛으로 서있었다. 만약 왕호가 우려하는대로 일이 번지진다면 자기는 력사와 민족 앞에 씻을수 없는 대죄를 짓게 되리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자기같은것은 백번을 죽는대도 아까울것이 없었다. 그러나 온 겨레의 운명이 오직 한분 장군님께 지워져있는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신상에는 절대로 털끝만한 화가 미쳐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새삼스레 파고들었다.

그러면서도 왕호가 가까이에 있는것이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사령관동지와외의 관계에서 그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이 의사표시를 할수 있겠기때문이었다.

사령부에서 열린 군정간부회의는 며칠째 계속되고있었다. 벌써 날이 저물었으나 하루 회의가 끝나지 않고있었다. 오성수는 회의의 안전한 보장을 위한 경계근무를 주관하는속에서도 회의진행정형에 대하여 은근히 마음을 썼다. 회의는 긴장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있었다. 급후 행동방침문제를 놓고 일부 항일련군부대 지휘관들이 의견을 달리하여 논쟁을 하는것 같았다.

오성수는 어떤 행동방침이 설것인가를 놓고 이쪽저쪽으로 추측과 판단을 옮겨가며 은근히 조바심을 느끼고있었다. 그의 기대는 사령부의 안전을 기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있었다. 그는 왕호로부터 받은 권고가 약한 몸에 보약처럼 유익한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령부주변을 서성거리고있던 오성수는 8련대 전령병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오는것을 띠여보았다.

(저 사람이 갑자기 웬일일까?)

오성수는 이런 의문속에 그에게로 접근해갔다.

《박순범소대장동지를 사령부에 안내해왔습니다.》

전령병이 제먼저 용건을 밝혔다.

《박순범이 왔소. 어디 있소?》

《경위중대에 와있습니다.》

오성수는 전령병의 대답이 떨어지기 바쁘게 제 잡담 앞장섰다. 박순범은 경위중대천막앞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순범동무!》

오성수는 반가움이 앞서 소리치며 달려갔다.

《중대장동무!》

저쪽에서도 반기며 서둘러 움직여왔다. 오성수는 그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그런데 박순범은 얼굴이 험색해지며 옆구리를 움추렸다.

《왜 그러우?》

《부상을 줌 입었습니다.》

《그래, 많이 다쳤소?》

《경상입니다.》

《다행이요. 조심하오!》

《사령관동지께서 몹시 기다리시겠지요?》

《음, 현대 지금 회의를 지도하고계시오.》

《사령관동지께서 안전한 조건을 마련하시고 여윌게 회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벌써 그 소식을 들었소.? 이를테면 우리는 <관동군>의 호위를 받으며 배포있게 지내는셈이요.》

《허허, <관동군>의 호위를 받는다는게 그럴듯합니다.》

《어마어마한 호위요, 허허… 오늘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걸으면서 이야기나 좀 합시다.》

오성수는 뒤짐을 지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곳 형편은 이뎡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박순범은 낮색이 어두워지며 잠시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말라버린채 눈에 묻힌 역새풀의 초리들이 눈가루를 물고지나가는 거칠은 바람결에 구원이라도 청하듯 몸부림쳤다.

《가는곳마다 밀정들, 수색검문소들입니다. 천신만고해서 두사람을 만나고 세번째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외진 산전막에 가서야 만났는데 숨어있던 밀정들이 불의에 달려드는 바람에 이렇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락이 절대로 장군님께서 장백지구로는 움직이시지 말아달라는 당부였습니다.》

박순범은 절대로란 말마디에 힘을 넣으며 명심하라는듯 오성수를 여겨보았다.

《음, 그렇단말이지!》

오성수는 자신의 우려가 공연한것이 아니었음을 재삼 느꼈다.

《이쪽으로 나오면서 보니까 놈들이 무슨 꿈꿈이를 꾸미는지 장백일대로 대대적인 무력이동을 하고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진출을 막자는것 같습니다.》

박순범은 성수의 반응이 미타했던지 이렇게 깃을 달았다. 오성수는 펄펄 난다는 사람이 부상자가 되어 돌아온것만으로도 충분히 수궁이 갔다. 그러면서 헤쳐나가야 할 앞길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가슴을 답답하게 눌렀다. 사사건건 덧쌓이는 시름을 안고 모대기시는 사령관동지께서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겨드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왔다.

《사령관동지께서 말씀드릴 때 그곳 동무들의 당부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오!》

오성수는 자기의 애바른 심정을 내색은 않고 태연히 귀땀했다.

《알겠습니다. 헌데 차후 행동방침이 어떻게 설것 같습니다까?》

박순범이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글쎄, 회의가 그 문제때문에 끄는것 같은데 아직은 판단이 잘 안가오.》

오성수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지금에 와서 이 문제는 지휘관들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관심의 초점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묵묵히 걸다가 사령부로 향했다.

그사이 회의가 끝났는지 사령부주변이 조용했다. 전령병에게 물으니 사령관동지께서 왕호와 함께 이팔숲쪽으로 가셨다고 알려주었다.

오성수는 박순범에게 기다리라고 이르고 달빛으로 한결 환하게 보이는 사령부동쪽 이팔숲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숲기슭에 이르러 인적기가 나는쪽을 눈주어보니 어깨에 외투를 걸치신 사령관동지께서 왕호와 나란히 서계시였다. 순수 산책이 아닌것 같았다.

《지금 형편에서 적을 맞받아나가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한것 같습니다. 이 겨울만은 안전한곳에 은거하면서 숨을 좀 돌려야 한다고 보아 집니다. 나는 이미 실패와 죽음의 대가로 뼈저린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왕호의 고집스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왕호동무가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있는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거듭 강조했지만 우리가 이번엔 내놓은 행동방침은 조성된 주객관정적세와 구체적실정으로 부터 우리 혁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확고한 주견과 원칙적립장에 기초하고있다는 점에서 왕호동무가 겪은 열하원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령관동지의 음성은 저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울렸다. 오성수는 마음이 바짝 긴장해졌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항일을 해오던 전과정으로 쳐도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유격전을 하는 우리에게 순편한 때란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황이 어렵다고 하여 피동에 선다면 패배와 죽음밖에 차례질것이 없습니다.》

문득 말씀을 끊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어깨에 흘러내린 외투를 추슬리고나서 감회어린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내가 갓 조직된 반일유격대를 거느리고 남만 원정에서 돌아와 왕청으로 옮겨가던 도중 로혹산 부근에서 불과 18명의 대원을 데리고 적의 4면포위에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산전막의 불아궁이 앞에서 우리 혁명의 명맥이 여기서 끊기고마는가 주먹으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만일 우리가 아닌 그 누가 대신 싸워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주저앉고말았을것입니다. 이런 일은 북만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서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 단 한번이라도 주저하거나 물러섰다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을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욱 어렵습니다. 대오안에서 도주자가 나고 밖으로는 변절자가 버젓이 찾아와 나를 회유하려고 있습니다. 장백지구에서 파견한 사람이 늦어지고있는것을 보아도 바깥형편이 어려울것이 뻔합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일제의 살벌한 폭압하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수 있겠습니까.》

왕호동무의 경우에야 열하원정의 길에서 많은 대원들을 묻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들이 당한 희생의 그늘밑에서 은신처나 찾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령관동지의 격하신 음성이 갑자기 끊기였다.

《그 생각을 하면 이 가슴이 터지는것 같습니다.》

왕호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우리 대오가 얼마나 자랐습니까.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적의 주력은 내가 말겠습니다. 왕호동무는 한 익측만 견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락된 의기를 가진 대원들을 가지고 김일성동지의 기대에 보답해내겠는가 이게 걱정입니다.》

《그 걱정은 마십시오. 내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달리해보겠습니다. 나도 어떻게하나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자는 사람입니다.》

《허허, 나도 그러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사령이 국경연안으로 나가시는 길만은 택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이 왕호가 라자구 서산포대의 교훈만은 잊지 않고있다는것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그 심정이 리해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왕호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오래도록 놓지 않으시였다.

그 순간 오성수는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대번에 능처지는것 같았다. 회의가 어떻게 끝나리라는것도 선명히 예상되었다. 그러면서도 사령관동지의 신변에 대한 우려만은 조금도 가사지지 않았다.

왕호가 고맙다고 생각되었다. 성수 자신이 감히 사령관동지께 드릴수 없었던 이야기를 그가 대번에 해주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불에 선평한것이 감촉되어 손바닥으로 문대였다. 비로소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있을것을 깨달았다. 감동없이 들을수없는 장군님 말씀이었다.

오성수는 한발 먼저 자리를 뜨며 생각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직은 인생초엽이라 할수 있는 20대의 청년장군, 지금의 정황에서 아무리 출중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닌 명장인들 어찌 호락호락 용단을 내릴수 있으랴싶어지면서 장군의 어디에서 그토록 드물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용단이 생겨날것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수가 없었다.

5

황시위같은 긴장과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던 속영지는 급기야 흥분과 환호로 뿔어번지였다.

드디어 군정간부회의가 끝나고 채택된 금후 행동방침이 선포되었다. 이에 따라 3개의 방면군이 편성되고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제2방면군을 친솔하시고 적의 주력이 집중된 국경지대로 진출하시게 된다는 사실이 공포되어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제1방면군에 속한 왕호부대에는 8련대의 어금이맞잡이인 사순범소대를 떼주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방금 사령관동지로부터 기발을 독촉받고온 오성수는 재봉대에 나가있는 서금철을 불렀다.

《중대장동지, 저를 찾았습니까?》

서금철이 급히 달려와 물었다.

《수고하오. 숨웃은 다 됐소?》

오성수가 미덥게 마주보며 반문했다.

《예, 오늘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기발이 어떻게 됐소?》

《다 만들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채근하시는데 빨리 가져오우.》

《제격 가져오겠습니다.》

서금철은 울 때처럼 반달음쳐갔다. 지체없이 사령부로 갔다.

오성수는 서금철이 가져온것과 본래것을 가지고 지체없이 사령부로 갔다.

《수고했습니다. 어디봅시다.》

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성수에게서 받아든 기발을 펼치시였다. 순간 기발에 울비치여 방안이 노을빛으로 짙었다.

《색갈도 곱고 큼직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꼭 마음에 듭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기폭을 눈더듬하시며 오래만에 티없이 밝게 웃으시였다. 온갖 시름을 다 안으시고 마음고생을 하시던 장군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성수는 절로 눈곱이 뜨거워났다. 그는 함께 가져왔던 본래 기발을 장군님앞에 내놓았다.

《그건 왜 가져왔습니까?》

장군님께서 의문이 비낀 시선으로 오성수를 바라보시였다.

《이 기발을 어떻게 할가 해서...》

오성수는 대답을 마무리지 못하고 주춤거리었다.

《새 기발을 우리가 들러는것으로 생각한건 아닙니까?》

《그럼?!...》

《헛허... 이건 왕호부대에 주자는겁니다.》

《예?!...》

오성수는 켤해진 눈으로 사령관동지를 바라보았다. 너무도 뜻밖이었다. 퇴색하고 낡아진 기발을 대할 때마다 새것을 들었으면 했던 소원이 풀리는가싶었는데 순간에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니 아쉬움부터 앞섰다.

《새것을 들지 못하는게 아쉽게 생각됩니까?... 그 심정이 이해됩니다. 물론 새것이 보기에는 좋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갓 치레거리로 기발을 드는것은 아닙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새 기발을 접어놓으시고 본래의 기발을 집어드시였다. 오성수는 이번에도 자신의 생각이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따르지 못했다는것을 심감히 뉘우치며 얼떨름한 표정으로 서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기발을 펴드시고 근엄하신 안색으로 눈더듬하시였다.

《이 기발에는 우리가 걸어온 자욱들이 지울수 없게 새겨져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기발을 다시금 더듬으시였다. 오성수는 그이께서 뜻깊은 말씀이 계시리라는 예감을 느끼며 귀를 바짝 강구었다.

《이 기발은 우리가 안도에서 첫 무장대오를 조직할 때 대오의 선두에 내들었던 기발입니다.》

깊은 감회에 잠기신 존안으로 오성수를 바라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기발을 탁자우에 퍼놓으시고 나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 기발은 무장대오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시던 어머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기발이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기발에서 어머님의 뜨거운 마음과 함께 대를 이어서라도 해방된 땅에서 근로민중이 복되게 살게 해야 한다는 숭고한 리념을 《지원》의 뜻에 새기신 아버님의 좌우명도 받아안으시였다.

갓 조직된 무장대오가 남만원정의 길에서 통화의 거리에 보무당당히 휘날리기 시작한 그 기발은 반일통일전선을 위한 오의성과의 답판의 길에

서도 힘차게 휘날렸고 조국진군의 첫 총성이 울린 보천보의 밤하늘에도 자랑스럽게 휘날렸다.

그 기발을 보실 때마다 사령관동지의 가슴속에 가장 아프게 새겨진것은 남만에서 돌아와 토기점골의 초가집에 들리셨던 일이었다. 생존하시는 어머님을 다시 뵈울수 없게 된 비통한 마음에, 성주가 조선이 독립되지 못한채 오거든 내 무덤을 파가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셨다는 절절한 말씀을 전해들으시던 그 쓰라림도 그 기발앞에 맹세로 삭이시었던 사령관동지이시였다.

하지만 그 길은 걸음걸음 가시덤불길이었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고비가 수없이 막아섰다.

생사를 가르는 아슬아슬한 고비마다에서 그이께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힘을 준것은 평범한 백성들이였다. 교하에서 체포의 위기를 목숨 걸고 막아준 이름 모를 녀인, 축한에 쓰러졌던 라자구 등판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준 산전막의 마로인, 적의 4면포위속에서 자신께서는 흑한으로 누워 부대자체가 전멸할 위험에 처한 원정대를 천길나락에서 건져준 생면부지의 김로인...

백성을 하느같이 믿으시는 《이민위천》의 좌우명은 이렇게 생겨났고 그 기발에 새겨졌다...

《이 기발을 지켜 희생인들 얼마나 많았소. 김리갑, 공영, 리팡, 김혁, 차팡수, 최창걸, ...》

장군님께서는 목이 잠기시여 이름을 더 려져하지 못하고 다시금 기발을 바라보시였다. 오성수는 불뭉치같은 걱정이 명치끝을 밀고올라 가까스로 숨을 쉬였다.

어찌 그들만이라, 김형권삼촌과 김철주동생...

순간 오성수는 장군님앞에 면구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게 기발과 사연이 얹힌 사령관동지이시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성수의 심정이 리해된다고 뜨거운 아량을 보여주고계시였다.

잠시후 사령관동지께서는 펼쳐놓은 기발앞으로 다가서시였다. 오성수는 축축히 젖어드는 눈길로 기발을 바라보았다. 지금껏 보아오던것과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안겨주는 기발이었다.

《여기 이 총탄자국은 로흑산전투때 생겼고, 저쪽것은 이 기발의 첫 기수였던 리동무가 희생될때 남긴 자국입니다. 그리고 이 총탄자국은 라자구 서산포대우에 휘날리던 때에 생긴 흔적입니다.

왕호동무가 우리를 존중하는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통일전선을 못했더라면 훨씬 더 어려웠을것입니다. 기발에는 이 모든것이 다 새겨져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기발에 새겨진 흔적들을 하나하나 더듬으시였다. 오성수는 눈망울이 젖어올라 물속에서처럼 앞이 뿌옇하게 보일뿐이었다.

《만일 우리가 지금같이 난관이 중첩된 준엄한 환경이라고 하여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 싸

움을 주저하거나 은신처를 찾는다면 이 기발앞에 뗏뗏할수가 없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기발앞에서 물려나시여 오성수를 응시하시였다.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단호히 물리치고 대적을 맞받아나갈 용단을 내리신 뜻이 비로소 리해되는것 같았다.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위한다며 왕호의 립장에 마음이 끌렸던 자신의 일면성이 심심히 뉘우쳐졌다.

《우리가 희생을 무릅쓰고 누구나가 우려하는 장백으로 나가려는것은 그것이 혁명선배들과 희생된 동지들 앞에 그리고 인민들앞에 혁명가의 참된 량심과 의리를 다하는 길이기때문입니다.

이것을 떼어놓고 사는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립석종이나 리재석이 목숨이 아까와 변절하거나 도주했지만 그들은 이 량심앞에 죽음을 선포한거나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인생의 가치를 운운할수 있겠습니까. 이 길에서는 설사 목숨을 바친다 해도 버릴수 없는것이 량심과 의리입니다.

정경준동무가 애석하게 희생은 되였지만 이 기발앞에 혁명가의 고결한 량심으로 영생하게 될것입니다.

혁명가는 어떤 역경에서도 고결한 량심과 의리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립석종이 그것을 버렸습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씀을 끊으셨다.

《...!!》

오성수는 립석종과 대면하신후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데 있는가를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비로소 깨도되는것 같았다.

자신도 왕호도 그토록 우려하는 위험도 무릅쓰시고 적의 주력이 기다리는 국경연안으로 몸소 대오를 이끄시고 나가시는 그이의 강인한 의지와 희생적용단이 어데에 뿌리를 둔것인가 하는것이 뜨겁게 가슴에 안겨왔다.

《새 기발을 들지 않는다고 하여 서운해질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혁명선배들의 뜻과 동지들의 고귀한 희생을 귀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혁명가의 량심과 의리로 지켜나가는데 있습니다. 기발은 우리의 이 숭고한 정신세계를 상징할따름입니다. 밖으로는 적들이 포위진을 치고 변절자를 파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안에서는 도주자가 나고 투쟁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형편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투쟁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하기 위해서도 혁명선배들의 뜻과 동지들의 피가 물든 이 기발을 들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대장동무가 그토록 아파하는 정경준의 희생을 더 내세워주고 빛내여주는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령관동지, 제 생각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오성수는 장군님의 의도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크나큰 감동에 휩싸였다. 자신은 닥쳐올 앞날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전전긍긍하였지만 사령관동지께서는 하나의 새 기폭으로 린접대오의 전투정신을 분발시키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갈 돌파구를 여실 구상을 하셨던 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 좀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번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행군길은 북만 원정때나 작년에 천리행군보다 훨씬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어이 뚫고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길에 가로놓이는 난관은 조국이 해방되고 새 조선을 건설하는 길에서도 있게 될것입니다. 먼 후날 우리의 후대들이 오늘의 일을 귀감으로 삼아 난관에 주저없이 승리를 확신하고 꺾꽂이 혁명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경험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 기발을 계속 들고나가는것이 의의가 큼니다. 중대장동무, 어떻습니까?》

《제가 그 깊은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오성수는 자책과 감동이 어울린 목소리로 대답 올리며 승엄한 마음으로 사령관동지를 우러렀다.

인생체험의 시간적길이로 보아서는 그리 길다고 말할수 없는 20대의 그이이시건만 어쩌면 그리도 세상리치에 밝으시고 누구도 따를수 없는 도량과 인품을 지니셨는지 그저 놀랍게만 생각될 뿐이었다.

그처럼 절충한 인간을 혁명의 사령관으로,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을 설레이게 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값있고 성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고있다는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채 살아왔다는것을 통절히 느끼었다.

(저 기발을 지키는것은 나의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사령관동지를 옹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내 이 길에서 열백번 숨저도 **김일성**, 그이만을 끝까지 받들리라!)

오성수는 스스로의 량심앞에 이렇게 맹세다졌다.

《나는 이 기발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신념을 더욱 가다듬고 그것을 량심과 의리로 지

켜나가려는 각오를 한층 굳게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중대장동무, 우리 앞날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북대정자를 향해 나아갑시다!》

사령관동지께서 굳게 움켜쥔 주먹을 앞으로 내드시였다.

《…!!》

오성수는 북받치는 흥분을 누르며 그이를 우러렸다. 그의 눈앞에는 승리의 개가높이 붉은기를 휘날리는 북대정자가 선히 밝혀왔다.

사령관동지께서 자리에 앉으시며 물으셨다.

《새 기수로 누구를 시키면 좋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물음에 오성수는 망설였다.

《내 생각엔 서금철동무가 어떨가 하는데…》

《그 동무라면 저도 찬성입니다.》

《자 그럼 이걸 도로 받으시오!》

사령관동지께서 기발을 넘겨주시였다.

오성수는 세상에 둘도없는 진귀한것을 받게 되는 심정으로 기발을 받아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발이 아니라 혁명가의 인생철리가 담긴 신념과 량심과 의리의 상징이였다.

×

력사의 거보를 내짚는 출정의 시각을 앞두고 전 대오가 수림속 넓은 공지에 정렬하였다. 모여 올때와는 외모도 투지도 판이하게 달라져 백만대적도 일격에 쳐부실 기백이 넘치였다. 그속에는 선두에 새 기발을 내세운 왕호부대도 있었다. 모두 새 동복차림에 얼굴색이 불깃불깃했다.

제2방면군 대오앞에 서금철이 높이 추켜든 기발이 엄숙한 기분을 돋구며 조용히 나뭇겼다.

《중대장동무, 나는 **김일성**동지 덕분에 빈몸으로 왔다가 저 붉은기를 가슴에 안고갑니다.》

왕호가 곁에 서있는 오성수에게 젖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우리 저 기발을 끝까지 지킵시다.》

오성수는 기발을 우러르며 왕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비록 기발의 크기와 모양과 기수는 달라질지언정 인류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위업과 더불어 세대를 이어가며 이 행성우에 영원히 휘날리게 될 기발이였다.

명절

김원종

1

석양머리에 집무실을 나서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손수 승용차를 몰아 봄이 오는 평양의 중심거리를 천천히 달리시었다. 심신이 한결 거뻐해지시었다.

오늘따라 평양의 봄경치는 사뭇 유정하고 가슴 뿌듯하게 안겨온다. 그이께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의 풍경을 다심하신 눈길로 여겨보시며 사색에 잠기시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이의 사색은 오늘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보고 생각하시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평양은 관서팔경중에서도 으뜸가는 절승으로 일러왔다. 산천경계가 수려하고 풍토 또한 온화하고 기름지며 길은 사통오달로 넓게 트이고 물산은 없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단군 이래 아득한 세월 우리 민족은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문명부강을 떨치며 자랑높이 살아왔다.

대동강에 얼음이 풀린다는 우수경칩이 지나 저기 룡라도 벼들가지에 새움이 트고 모란봉청류벽에 연분홍진달래가 새각시 단장하듯 피여날 때면 자연이 베풀어주는 류경의 이 아름다운 풍치를 두고 어느 나그네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는가.

게다가 금상첨화라는 말과 같이 이 자연의 수려함우에 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이 있기에 꽃피는 생을 상징하는 봄의 진미를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 만수대언덕에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고 천리마동상아래 울타리꽃이 노랑게 단장을 하며 양뿔나무가로수들에 구름꽃이 무너지게 피여날 때면 잔디밭 파아란 울밀대쪽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새들의 야단스런 우짖음소리와 어울려 마음을 즐겁게 한다.

더우기 이른봄날의 해질무렵 유난히도 짙은 석양이 우줄우줄 솟구쳐오른 초고층아파트들의 창문들에 비치여 금물같이 녹아흐르는 광경은 얼마나 장관인가! 이런 때면 그이께서는 오늘의 평양을 일떠세운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기상과 슬기와 구슬땀이 그대로 행복의 탑이 되어 솟아오른 것만 같으시었다. 자연이 제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우리시대 인간들이 창조한 저 값높고 긍지높은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에 비길 수 있겠는가...

그이께서는 연록색으로 물든 영광거리로 차를 몰아가시다가 앞자리에 앉은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에게로 얼핏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을 건넦시었다.

《...정전직후에 처음 건설한 이 거리가 이제와서는 좀 초라해보이었는데 저렇게 덩치 큰 건물

들을 알맞춤하게 배합해서 세워놓으니 새 거리에 비해서 별로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허전하던 공간도 메워지고 배경도 웅장합니다. 대극장만이 아니라 특색있는 건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리는 특색있는 건물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영광거리가 한결 웅장화려하고 이채로와진데 대하여 만족을 금치 못하시었다.

동행한 일군인 리경훈은 갱뽀한 얼굴에 굳어져 있던 긴장감을 풀며 조심히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새집들이 모두 다양하고 자리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한데 이제 보시겠다고 하신 건물은 대통령을 등지고 앉은데다가 정문까지 뒤골목으로 나있어서 좀...》

그이께서는 왼손을 가볍게 흔드시었다.

《나타나지 않는단말이지요? 경훈동무, 나는 바로 그렇게 한 것이 마음에 듭니다. 건축연구원도 그 골목 안쪽이지요? 바로 그것들이 유서깊은 영광거리의 깊이를 말해주는 거요. 오랜 거리는 이렇게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발뽀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원래 사람들이 안보는데서 화구를 막는 숨은 영웅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인민들속에 그런 진짜배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이께서는 변모된 영광거리를 계속 정깊은 눈매로 바라보시면서 건설일군들의 숨은 노력에 대하여 끝없는 고마움을 느끼시었다. 그들은 우리 평양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바로 그 사랑이 지혜와 열정을 낳아 평양을 이처럼 아름답게 꾸려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수록 그들 모두에게 최상의 영예와 행복을 안겨주고 싶으시었고 그들의 숨은 공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색끝에 다시 리경훈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오늘새벽에 훌륭한 노래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노래지만 곡도 좋고 가사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위원회에다가 잘 형상해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색이 있고 정서 풍부한 그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도의 거리에 정다운 불빛이 흐르고 은혜로운 사랑의 노래 넘치는 평양 평양의 밤 아 행복한 밤이여 아 수도의 밤이여>... 이 노래에는 우리 평양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평양에 대한 사랑은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당과 혁명에 대한 사랑입니

다. 이런 노래가 오래동안 파문혀있었다는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경훈동무는 노래를 즐기지 않습니까?》

리경훈은 줄지에 어깨가 좁아지는것처럼 몸을 웅크리었다. 그이께서는 앞을 내다보시며 혼자서 빙그레 웃으시었다. 리경훈이 건설부문의 교육사업이나 당사업에서는 일정한 경험도 있겠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는것을 생각하시었다. 아닐세라 잠시후 본인의 입에서 솔직하기는 하나 기여들어가는것 같은 대답소리가 나왔다.

《깊이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즐길줄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허심한 태도에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시며 웃음을 지으신채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러시다가 정색하고 조용히 타이르시었다.

《우리 일꾼들이 인정미가 있게 일하자면 음악을 알아야 합니다. 인민들의 사상과 감정, 지향과 념원이 노래에 담겨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전후 재더미우에서 자기의 힘으로 일떠세운 아름답고 웅장한 우리 평양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평양에 대한 훌륭한 노래가 아직 많지 못합니다. 좋은 노래가 있는것도 파문혀있는 형편입니다. 정치란 자기 인민을 아는것으로부터 시작되는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승용차가 대로를 벗어나 골목길에 들어서도록 유유히 물아가시었다.

봄을 맞은 거리는 그 어디나 벌써 명절단장을 하고있었다. 네거리모서리들에는 대형화분들이 나타나고 살림집창문가에도 꽃망울진 화분들이 가득가득 실려있다. 거리의 화성기에서는 방송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외국의 예술단들이 비행장에 도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있었다. 그리고 잇달아 7월에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대성황리에 펼쳐질것이다. 주체조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 이 세계적인 대축전을 잘 치르자면 룡라도에 건설되는 새 경기장도 중요하지만 거리의 그 어느 곳을 가보나 손색이 없어야 할것이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일부리 틈을 내시여 리경훈을 데리고 새로 건설되는 한 문화기관을 찾으시게 된것이다.

기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맞이한 건설장의 일꾼들은 당황해하면서 송구스러워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아직 정리사업을 끝내지 못한 건설장 주변을 허물없이 걸으시며 완공단계에 이른 건물을 이모저모로 살펴보시었다. 그러시다가 무뚝뚝 쌓아놓은 보도블록무지결에 서시여 저녁노을이 비껴 번쩍거리는 새 건물의 으리으리한 모습을 찬찬히 올려다보시었다. 웃쪽은 적갈색대리석의 무게있는 벽면이 유리판처럼 매끈하게 치솟은 반

면에 아래 부분은 부드러운 연회색대리석판을 곡선미있게 둘러쳐서 현대감과 어울려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다가 정면계단과 출입문형태에는 조선식의 고유한 구도와 무늬장식이 두드러져보였다.

그이께서는 두팔을 엇걸어 가슴우에 얹으시고 환히 웃으시었다.

《건물이 마음에 듭니다. 도안을 보던 때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집이 별로 크지는 않아도 품위 있고 독특하며 인상적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조선식의 사색형멋쟁이입니다. 분명 우리 식입니다. 설계가 아주 잘되었고 시공도 잘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축물은 이렇게 독특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조선맛이 나는것입니다...》

이 순간 그이의 눈앞에는 느닷없이 한 설계일군의 얼굴모습이 떠올랐다. 오래전 인상깊은 자리에서 망막에 새겨졌던 그 얼굴모습은 그저 허심하고 진지한 사색형이며 고지식하기 그지없는 성미 그대로였다. 그가 바로 평양시건설의 초기기부터 바로 이런 조선식현대건축의 설계를 훌륭히 창안하여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을 일떠세웠고 그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었다. 일본에 살다가 귀국한 설계가 김운봉이... 그렇지, 그의 이름이 운봉이지! 아마 이 건물도 그가 아니면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설계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건축미학사상을 누구보다도 앞장에서 실천에 옮긴 설계가중의 한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 그이께서는 뒤쪽을 돌아보시며 리경훈과 건설장의 책임일군을 향해 물으시었다.

《이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 두사람은 잠시 서로 얼굴만 마주보다가 이윽고 건설장의 책임일군이 떠듬거리며 처음 듣는 몇몇 이름을 꼽았다.

그이께서는 더 물어볼 생각이 없으시었다. 건물을 보니 틀림없는 김운봉의 숨씨인데 그의 설계가 아니라고 하니 그를 본판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애정을 품었던 그 이름을 듣지 못하고보니 사뭇 서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뒤집을 지신채 서너걸음 왔다갔다하시다가 집요하게 갈마드는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시듯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드시었다.

이때를 기다리고나있었던듯 리경훈이 다가서며 그이께 건물내부까지 보여드리고싶은 욕심에서 말씀올렸다.

《...내부는 초보적으로 정리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신 다음 정면 계단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시었다.

《들어가봅시다.》

건물내부 역시 훌륭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건설장의 책임일군에게 수고했다는 말씀만 여러

번하시었을뿐 어딘가 서운하고 그늘진 심정을 감추기 어려워하시었다.

다시 밖으로 나와 차에 오르시면서 그이께서는 바래워드리시는 일꾼들에게 이젠 날도 저물었으니 모두들 돌아가 편히 쉬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정다운 인사말을 남기시었을뿐이다. 그리고는 손수차를 몰아 곧장 당중앙위원회로 향하시었다. 벌써 외등이 환하게 켜진 현관에 들어서시었을 때에야 그이께서는 얼핏 리경훈에게 물으시었다.

《동무는 김운봉이라는 설계를 압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

뜻밖의 물음에 리경훈은 당황하면서도 곧 대답을 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시며 거듭 물으시었다.

《모를수가 없지요. 동문 건설부문에서 당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그 동무가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있습니까.》

리경훈은 말문이 막혀 머뭇머뭇하였다. 외등의 불빛속에서 그의 우둥통하고 희멀건 얼굴빛이 점점 자주빛을 띠며 컴컴해지고있는것이 확연히 알렸다.

그럴수록 그이께서는 대답을 재촉하시었다.

《왜 그렇니까? 그건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그런데 아니라…》

《우물우물하지 마시오. 나한테야 사실대로 말해야지요.》

《지도자동지!…저…》

《그 동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제가 알고있기는 오래전에 사망한것 같습니다.》

《사망했다구요? 오래전에? 아직 젊었었는데 왜 사망했습니까? 그런걸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

그이께서는 형광등의 불빛이 누렇게 색이 죽어가는 느낌이 드시었다. 리경훈은 그 다급하신 물음에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하면서 비석처럼 굳어져있었다. 저 사람이 그 사연을 다 모를수도 있다. 같은 건설부문이라고 해도 자기 산하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설계부문일꾼들은 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자주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찮게 생각했을까? 하찮게… 하찮게… 아, 이것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김운봉이 어떤 인간이며 그런 인간을 우리 당이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는것을 몰랐단 말인가? 아직도 많은 일을 할 사람이 왜 그렇게 일찌기 갔을까?

그이께서는 저려드는 가슴을 간신히 참아내시며 끝없이 자문하시는데 이윽고 리경훈이 말씀드렸다.

《이제 곧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밤늦게라도 내가 방에 있겠으니 수고해주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남모르게 파묻혔단 말인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가버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이께서는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시여 혼자 소리로 거들 되뇌이시며 힘겹게 층계를 한 단한단 툭아오르시었다. 그러시다가 계단의 굽인 돌이에서 누구도 보지 못할 순간에 손수건으로 얼른 눈굽을 닦아내시었다.

2

집무실의 한쪽 구석에 놓인 립체 록음기에서 녀성저음가수가 부르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그것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위원회에서 긴급히 형상해온 노래 《수도의 밤》이였다.

…

우리 당이 헤쳐온 눈보라
행복의 꽃보라 되어
우리 가는 앞길을 축복해주는
평양 평양의 밤
아 행복한 밤이여
아 수도의 밤이여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노래를 들으시며 자정이 넘도록 창가를 떠나지 못하시었다. 바라볼수록 아름다운 수도의 야경, 더군다나 지금은 봄명절을 눈앞에 두고 명절일색으로 불야성을 이룬 거리의 풍경에서 눈길을 땔수가 없으시었다. 행복한 밤이라고 노래부르는 가수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올수록 끝없이 깊어지는 생각을 털어버리기 어려우시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잊지 못할 사연이 그이의 가슴속에 파도쳐오기때문이었다.

그이께서는 참을수 없어 복받쳐오르는 슬픔을 느끼시며 다시는 만나볼수 없게 된 김운봉의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시었다. 바로 그와 같은 고지식한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드시였었다. 사리사욕을 모르고 명예와 부귀를 탐내지 않으며 마음속 깊이 뜨거운 애국심과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색하기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들이 언제나 사랑스러우시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높은 명예를 안겨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싶은것이 그이의 심정이시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해주지 못한채 영리벌을 하였다는 생각때문에 도무지 슬픈 마음을 달랠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아직 젊었을 때의 김운봉의 모습을 애모르게 그려보시면서 이윽도록 생각에 잠기시었다. 조금전 서류함의 깊숙한 구석에서 찾아내신 자그마한 수첩을 다시 펼쳐보시었다. 거기에는 원주필로 또박또박 써넣었던 이런 필적이 있었다.

《 김운봉, 평양도시설계사업소 부기사장. 수령님께 기쁨드린 설계가. 잊지 말고 표창할것. 주체50(1961)년 1.26》

그러나 그이께서 김운봉을 아시게 된것은 썩 이전부터였다. 그와 관련된 일중에는 무척 인상적인 사연도 있었다.

꽤 오래전의 어느날 밤이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어느 한 대상건설의 설계를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신 일이 있었다.

먼저 해당 부문 일군이 이름있는 설계가들을 한사람한사람 꼽아나가다가 누가 좋을것 같다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조용히 듣고계시던 그이께서는 그 일군이 가지고있는 명단에 올라있지도 않는 김운봉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며 의견을 내놓으시였다.

《얼마전에 일본에서 귀국한 건축전문가로서 지금 평양도시설계사업소 부기사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번 대상을 그 동무에게 맡겨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모두들 약간 놀라와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명단을 엮어내리던 해당 부문 일군이 서슴서슴 말씀드렸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털어놓고 얘기해보시오. 동무가 보건대 어떤 측면에서 내가 제외한 그 사람이 마땅치 않을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십시오.》

그이께서 허심하게 말씀하시니 해당 부문 일군도 용기를 얻어 자기 견해를 솔직하게 내놓았다.

《제가 알건대 그 동무는 일본에서나 조국에 와서나 아직 큰 대상설계를 맡아해본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또 뭘니까?》

《저... 갓 귀국한 동무인데 깊은 파악이 없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가슴이 답답하신듯 열려진 창문쪽으로 다가가 깊은 숨을 몰아쉬시고는 다시 되돌아오시였다.

방안에는 납덩이같은 침묵이 깃들었다. 오직 심려에 잠기신 그이의 발자국소리만이 일군들의 마음속 깊은곳을 두드리듯 울리였다. 누구도 남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이런 때는 자신과만 이야기할수 있다.

이윽하여 그이께서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갓 귀국하였기때문에 파악이 없다는것이 중점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대답을 주겠습니다. 아니, 그전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동무들의 생

각에는 그 동무가 일본에 있을 때 왜 큰 대상설계를 맡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그야 물론 실력이 딸리니까... 그 나라에서는 엄격히 실력본위가 지배하기때문에 말할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이로 보아서도 그렇게밖에 달리 될수 없었을것입니다...》

해당 부문 일군의 대답에 그이께서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실력본위라... 그것도 물론 작용했겠지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가 다름아닌 조선사람이기때문에 큰 대상설계를 맡기지 않았을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본래부터 그러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디다. 이게 바로 이국살이설음이라는겁니다. 동무들이 그걸 압니까?》

모두들 머리를 무겁게 수그리였다.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라기보다 평범한 한 인간의 인생사중에서도 자그마한 곡절을 파헤쳐 거기에서 민족의 운명과 조국의 귀중함을 절감하도록 깨우쳐주시는 그이의 모습앞에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설복조로 계속하시였다.

《김운봉동무는 어려서 생활이 곤란하여 해방직전에 일본에 건너가 신문배달, 가정교사 등으로 고학을 하여 설계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국으로 올 때 재산을 가지고 온것이 아니라 전후복구건설에 이바지할 여러가지 건축기술서적과 견본, 건축설계도면, 고건축자료, 사진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자산가도 아닌 그 동무가 그것들을 구하느라고 가산을 몽땅 팔아버렸다는것을 동무들은 알고있습니까?》

좌중을 향해 이같이 물으실 때 그이께서는 한 귀국동포의 애국충정에 접하던 감동적인 순간이 떠오르시여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움을 느끼시였다.

김운봉의 고향은 북청이라고 하였다. 가난한 집 자식이였던 그는 향학열이 남달리 높아 일제통치말기에 맨주먹으로 일본에 건너가 고학을 하여 설계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나 조국의 품에 안기고싶던 그의 꿈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신 다음에야 이루어질수 있었다.

귀국준비에 드바쁘던 어느날 그들 내의간에는 뜻밖의 의견상치가 생겼다. 결혼후 출장 고박한 세간살이에 쪼들려온 안해는 이 기회에 어떻게 하나 가정살림에 요긴한 물건을 한가지라도 더 장만하려고 신경을 썼다. 그런데 운봉은 건축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정신이 팔려 일본땅이 좁다하고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보기도문 고건축자료를 입수하는데 돈이 모자라게 되자 안해가 끌어들인 세간중에서 제일 값나가는 물건짝을 먼저 팔아버렸다. 귀국준비로 바빠 돌아치는 안해가 친척집에 간 사이에 운봉은 야금야금 값나가는 물건짝들을 거의 다 내다팔았다.

안해는 남편의 이러한 처사가 잘 납득되지 않아 결혼 이래 처음으로 푸념질을 하였다.

운봉은 손맥이 풀려 주저앉은 안해를 달래었다고 한다.

《당신이 원심쓰는 그런 물건은 우리 한가정의 살림을 위해서 필요한거요. 그러나 내가 구해들이는 자료들은 조국에 필요한거요. 부강한 내 조국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도 있소. 우리는 지난날의 망국노가 아니요. 난 내 가정보다도 내 나라를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일떠세우고싶소.》

안해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새삼스레 재인식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후 어느날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안해는 우연히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였다. 똑바우같은 실무가인줄로만 알았던 남편에게 일기를 쓰는 감정적인 뒤생활이 있는줄은 또 몰랐다. 안해는 그 일기장의 한페이지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구름너머 멀리 있는곳,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흑인의 애달픈 망향가를 부르며 내 청춘기는 이국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나는 이제 조국으로 가련다. 내 인생의 청춘기는 다시 시작된다. 귀국의 배길은 열려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지혜도 열정도 한생도 다 바쳐야 할 귀중한 조국이 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땅에 내 손으로 설계한 집을 일떠세워 내 나라를 빛내 이고자하는것이 바로 평생소원이 아니었더냐. 내 이 소원을 이룩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저 태평양의 천길 바다 밑에 있다 해도 기어이 얻어내고야말겠다...》

계속하여 그밑에는 그동안 수집한 우리 나라의 고건축자료와 설계도면으로 꼭 구해야 할 각종 기술서적들과 견제본들의 품목이 깨알같이 적혀있었다. 운봉은 사업면에서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일기장을 본 다음부터 안해는 행동목표를 바꾸었다. 어제까지는 한사람이 뛰던 일을 오늘은 두사람이 뛰게 되었다. 운봉이 자금걱정을 하면 안해는 아껴오던 가산을 조용히 내다 팔았다....

이렇게 둘이서 동분서주하며 한점두점 구해들이 각종 건축자료들은 무려 4만여점에 달하였다.

귀국날자가 되어 이사집을 꾸려놓고보니 웅근 두차관이 넘었다. 니이가다항에서 귀국선에 짐을 실을 때 인부들속에서는 큰 자산가가 귀국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실 가산이란 몇개의 껌짜와 지함, 트렁크가 전부였지만 그들 부부는 진짜 큰 부자가 된 심정으로 버젓하게 귀국선에 올랐다. 김운봉이 이렇게 가지고 온 건축자료들이 나라의 건축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 그이께서는 실로 기쁨과 감동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그 남다른 애국충정이 너무

도 고맙고 기특하시여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앞에서 자랑스럽게 소개도 하시였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보고 김운봉동무를 제의하는지 리해됩니까?》반문하시자 좌중은 감격분위기로 바뀌어 숨소리마저 높아진듯하였다.

《저희들의 생각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해당 부문 일군이 이렇게 자책의 말씀을 올리자 모두들 동감을 표시하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운봉동무가 아직 실천적경험이 부족할수 있기때문에 잘 도와주어야 한다시며 구체적인 방도대책까지 의논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불과 1년사이에 대상건물은 훌륭히 완공되였다. 건물을 돌아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누가 설계했는지 건물을 특색있게 아주 잘 지였다고 만족해하시면서 설계가를 찾으시였다.

그러나 이때 김운봉은 새로운 대상건설의 설계를 맡아가지고 먼곳에 가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운함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린 이 순간에 그를 수령님앞에 내세워주고싶은 심정이 간절하시였다. 이런 때에 그가 아버지수령님의 치하의 교시를 직접 받게 되면 이국살이 설움에 맺혔던 가슴이 다 풀리고 내 나라, 내 땅에 내 손으로 설계한 집을 세워보자던 평생소원이 희한하게 풀릴것이 아닌가...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중으로 본인에게 아버지수령님의 치하의 교시를 꼭 전달하라고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시여 수첩을 꺼내어 설계가의 이름을 적어두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이 애국충정이 높은 설계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두고싶으시였던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치하의 교시를 받은 다음부터 생의 전성기를 맞이한듯 열정가가 된 운봉은 인민문화궁전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과 락원거리와 같은 대규모건설의 설계집단에 참가하여 현장에서 자고깨며 밤낮없이 일하였다.

그러면서 집에다가는 가끔 이런 쪽지편지를 인편에 보내곤하였다 한다.

《부부동거동락이라고 당신도 일본에서 내가 설음받던 일을 잊지 않았을거요. 그러던 내가 지금은 조국땅에 대기념비로 될 건축물들을 척척 설계하고있으니 이야말로 우리 인생은 행운중에 가장 큰 행운을 만난게 아니겠소... 집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 당신이 리해해주. ...》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안해는 가슴후련한 기쁨과 동시에 묵은 자책감도 없지 않아 직장일에 더욱 열성을 내었다고 하였다. ...

그러던 그가 오래전에 사망하였는데 보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였구나! 왜 사망했으며 유가족들은 누가 돌보아주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있을까?...

부관이 벌써 두번째나 찾아들어와 밤이 너무 깊었다고 근심하고 나갔지만 그이께서는 리경훈의 보고를 듣기전에는 집무실을 뜨고싶지 않으시었다. 그래서 전에없이 행맹그렇하게 느껴지는 방안을 피로운 마음을 안고 거닐어도 보시고 창가에서 수도의 황홀한 야경을 깊이깊이 음미해보기도 하시면서 끝없이 자문자답하시었다.

운봉이 왜 사망했을까? 불치의 병일까 아니면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까? 일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이 일에 파묻혀 살아가느라면 뜻밖의 불행이나 불상사에 부닥칠수도 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어떤 일인지 운봉이 그렇게 값없이 생을 마칠 인간이라고는 생각할수 없으시었다. 지나온 그의 생활이 그러했고 가슴속깊이 간직된 보석같은 애국심이 그로 하여금 무의미하게 생을 마치게 할수는 결코 없으리라고만 생각되시는것이였다.

아니다. 김운봉이는 그저 죽어갈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이국땅에서 가산을 팔아 설계자료를 사가지고 온 그 김운봉이답게 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조용히 파묻혀버린것은 우리 일군들의 불찰이고 무관심때문일수있다. 무관심중에도 가장 무서운것은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다. 사람을 하찮게 대하는 그런 일군들이 아직도 우리결을 배회하며 자기를 위해 동분서주하는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렇다. 김운봉은 그저 갈수 없는 사람이다. 그가 것처럼 가치가 있는 술한 고건축자료들까지 사가지고 귀국하느라고 빈털터리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조선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다시 없다고 감격하여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값없는 생을 마칠수 있는가. 틀림없이 김운봉이는 값있게 생을 끝마쳤을 것이다. 그될수밖에 없는 인간이였다. 끝까지 알아야 한다 낱알이 알아보고 그의 한생을 높이높이 내세워주어야 한다. 빛내주어야 한다. 아, 그로록 티끌없는 애국심을 지니였던 고지식한 재간둥이가 어쩌면 그렇게도 일찌기 갔을까!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 평양에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화려한 우리식 대기념비를 더 많이 일떠세울수 있지 않았을까. 조국의 품에 안기여 평생소원이 풀렸다더니 왜 그렇게 서둘러 갔는가. 사람들은 지금도 수도의 거리거리를 자랑하며 행복을 노래하는데 그는 왜 남먼저 가야 했는가!...

그이께서는 물결처럼 런던아 밀려오는 비감에 젖으시여 자신도 모르게 손수건을 눈귀에 가져가시었다.

3

그이의 예감은 틀려본적이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강렬한 애정과 흔들리지 않

는 믿음때문인지도 모른다.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그이께서 일단 파악하시면 훌륭한 인간으로 되살아나곤하였다. 하물며 일찌기 파악하신 인간이 달리 될수 있겠는가.

리경훈은 자정이 넘어 김운봉의 최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는 흥분해서 보고했다.

주체66(1977)년 3월 평양 시내의 한 공공건물의 개작공사를 책임지고 일하던 운봉은 어느날 밤 현장을 돌아보다가 뜻밖의 일에 부딪혔다. 건설장의 한곳에서 불길과 연기가 뿜어나오는것이였다. 운봉은 그곳으로 달려가 불길속으로 뛰어들어 자고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질식상태에 빠진 녀성설계원을 찾아내어 문으로 떠밀어냈다. 그런 다음 옷자락에 불이 달린채 남은 사람이 또 없는가 확인하려고 불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구원된 사람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불을 토하는 문가를 향하여 발을 구르며 소리쳤으나 운봉은 대답이 없었다.

맹렬한 소화전투가 벌어진 뒤 사람들이 달려들어가보니 운봉은 오른손으로 왼손의 손목을 짊어잡은채 최후를 마쳤었다. 그는 동지들을 위해 한목숨 바친 그 순간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배려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시계가 상할가봐 손으로 그것을 감싸쥐고 쓰러졌던것이다.

장례식은 사업소에서 조용조용히 치렀고 유가족들도 소문없이 섭섭치 않게 위로해주었다. 모두들 떠들썩거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조심조심 눈치들을 보았다. 어느 명절전야에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준공식을 앞둔 때였다. 화재의 후과란 별로 크지도 않은것이어서 목조문틀 몇개를 교체하고 서너개의 방에 도색만 다시 하면 끝나는것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절행사에 지장이 있을가봐 허둥지둥하였다. 일군들의 신경은 사고심의에 쏠려있었다. 그 누구도 이 자그마한 사고가 우에 보고되기를 원치 않았다. 명절행사만 무난히 보장하면될것 아닌가. 그리하여 김운봉의 최후의 미거는 사고를 덮어버린 보신주의자들의 보자기속에 묻혀버리고말았다. 그후 일부 사람들이 그의 미거를 평가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의견을 말하였지만 그때마다 그 의견은 지나간 사고를 다시 들춰내는것이 누구에게 리롭겠는가하는 반대의견에 부딪치곤하였다. 이렇게 세월은 거의 10년이나 흘러갔다.

《...더우기 가슴아픈것은 당시의 일군들이 모두 제자리에 없기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별로 없게 된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희들의 불찰이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리경훈은 이런 말로 보고를 끝마치었다. 그런 다음 손수건으로 이마에 내뻐 진땀을 조심조심 문대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와 함께 소파에 가지런히 앉으시며 혼자소리처럼 뇌이시었다. 그러나 점점 격동적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 동무가 그럴줄 알았습니다. 아무려면 김운봉이가 그저 갔겠습니까. 생의 흔적을 남기고 갔겠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화구를 막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를 숨은 영웅들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운봉동무야말로 최고의 표창을 받아야 할 숨은 영웅입니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줄수 있는것은 다 주어야 하겠습니다. 신문과 방송, 텔레비존으로 널리 소개하고 유가족들도 돌봐줍시다. 이 사업을 당장 지체없이 포치해야겠습니다.》

이리하여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들에서는 밝아온 아침 첫 시간부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시를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김운봉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이 준비되었고 평양시당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유가족들을 참가시키는 성대한 수훈식의 조직사업이 벌여졌으며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존의 기자들과 촬영가들을 초청할 준비도 끝내었다. 그때로부터 이들이 지나 바로 4월의 봄명절의 전날밤이었다.

온 나라에 경축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평양의 거리거리는 온갖 장식등으로 꽃바다를 펼쳤고 어디서나 만수축원과 행복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그 모든 거창한 사업들을 친히 조직지도하시느라 불철주야로 일해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밤깊어 찾아온 리경훈을 데리고 또다시 거리로 나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차를 천리마거리로 몰아가게 하신 다음 인민문화궁전앞에서 잠시 멈추라고 하시었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전등불로 화려하게 장식된 궁전의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조선식지붕을 떠이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틀고앉은 이 웅장한 건물은 아무때 보나 정취있고 장쾌하였다. 언제나 인민들의 사랑속에 흥성거리는 인민문화궁전! 체육관, 병상관, 청류관과 더불어 이 궁전이 자리잡음으로써 보통강반이 행복의 락원으로 솟아올랐다.

그이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며 유보도로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시면서 리경훈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궁전도 김운봉동무가 책임지고 설계한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나는 이 앞을 지날 때마다 운봉동무 생각이 나곤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리경훈이 갑자기 곁에 다가서며 떨리는것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이께서는 좀 새삼스러운 느낌이 드시여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시었다.

그리자 상대방은 몸가짐을 어떻게 할지 몰라하며 한참이나 머뭇거렸다.

애정이 뚫어넘치는 그이의 안광, 가슴이 뻥뻥한 인간은 감히 곧바로 마주 보기 어려운 그 강렬한 눈빛을 우러러 리경훈은 지금 빠져린 자책감에 휩싸여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밀도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김운봉동무의 영웅적최후가 파묻혀있었던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

《그건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그이께서는 좀 의아하기도 하시었다.

그러나 리경훈은 끈질기게 계속하였다.

《물론 저는 얼마전에 현직에 임명되었고 또 그전에는 건설교육부문에 있었던것만큼 설계부문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이 없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운봉동무가 사망한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알고있으면서도 사망리유를 깊이 알아보고 하지 않았고 그저 재능있는 설계가 한사람을 잃었구나 생각하고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어떤 일군들은 매사에 책임한계를 명확히 그들줄 아는것이 하나의 장기라고 말한대지요?》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시며 불쑥 이렇게 반문하시었다. 그리자 리경훈은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허심하게 말씀올렸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사업실무에 빠져서 당사업자체의 목적과는 어긋나게 매정한 인간이 되어 버린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그이께서는 얼핏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시었다.

몇해전에 리경훈은 런대적인 책임을 지고 로동현장에 혁명화를 나간 일이 있었다. 산골광산으로 배낭을 메고 내려갈 때 역에 가족들이 나와서 그를 배웅하였다. 말 못할 괴로움이 가슴에 파고드는 이 작별의 순간, 발차시간을 몇분 앞두고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한 일군이 흠으로 나왔다. 리경훈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서 비판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나를 배래워 주려고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 일군은 배낭맨 리경훈을 알아보지 못하고 몇걸음 앞을 지나 다른 열차칸으로 가버렸다.

《사람들이 어쩌면 저런가!》

리경훈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새어나갔다. 슬픔과 환멸과 개탄이 온통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다가 불쑥 새어나온것이다.

가까이에 서있던 대학생인 맏아들이 그 말을 엿들었다. 여태까지 침울한 표정이던 그의 얼굴에 문득 아버지에 대한 편민의 정이 흐르면서 귀 가까이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 아버지는 자기 동지들이 이렇게 내려갈 때 역에 나와보셨습니까?》

리경훈은 아들의 정직한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런 때에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불쾌한 감정을 버리고 허심하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리경훈은 점잖게 한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짚었다. 그리고는 나직이 한숨을 쉬고나서 말했다는것이 다.

《네 생각이 옳다. 겪어보니 알겠다. 아마도 그래서 당에서는 나를 현장으로 보내는가부다. 인정과 의리를 떠나서는 동지가 있을수 없고 동지가 없이는 혁명을 할수 없다는 말이 과연 진리였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되겠다. 자, 방학을 하면 한번 우리 광산에 오나라.》

이런 생각끝에 그이께서는 리경훈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동무가 그때 광산으로 혁명화하러 떠난 뒤 대학에 다니는 동무의 아들이 나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나는 무슨 청원서인가 했는데 제목을 보니 감사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혁명화를 나갔는데 아들이 당에다 감사편지를 보내다니! 의아해서 읽어보니 진짜 감사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운데 역에서 아버지를 비판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방학때 아버지가 일하는 광산에 가서 작업반성원들속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대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당에서 저를 현장에 내보내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리경훈의 어깨를 여러번 두드려주시고나서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그래, 김운봉동무에 대한 수훈식을 언제 하겠습니까?》

리경훈은 감동에 젖은 눈귀를 손가락끝으로 얼른 문대고나서 말씀드렸다.

《집행단위의 일군들속에서 지금 경축분위기가 고조되는데 명절이나 지난 다음에 차차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순간 김정일동지께서는 놀라움을 감출수 없으시였다. 이 무슨 일인가! 어쩌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

시여 그이께서는 리경훈에게 추궁하시듯 반문하시였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상기시키는것이 명절분위기를 깨뜨린다는겁니까?》

《...》

《동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느덧 그이의 어조에는 노여움이 비끼기까지 하였다. 실로 그이께서는 이 사실이 전히 이해되지 않으시였고 참아내기 어려우시였다. 10여년이 지나도록 파묻어둔것만해도 가슴이 쓰리고 아픈데 이제 또 덮어둔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시였다. 도대체 그런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기초한것인지 알수가 없으시였다. 그들은 분명 사람의 운명을 첫자리에 놓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분위기에 맞추어 눈치놀음을 하는것이라고 생각되시였다. 이야말로 철학적신념이 똑똑하지 못한 일군들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중심의 우리 철학이 이론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땅위에 그 영생불멸의 철학사상을 현실로 꽃피워 인간애의 대화원을 펼쳐놓아야 한다.

그이께서는 타이르듯 말씀을 이으시였다.

《경훈동무, 일전에 김운봉동무의 최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당이래야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살수 있다, 우리 나라에 애국자가 많은것이 까닭이 있다, 이번에 당에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어 정말 고맙다고 하시였습니다. 경훈동무, 이런 수령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들의 애국충정은 영생합니다. 명절날에 수훈식을 본때있게 합시다. 그 소식을 들으시면 수령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리경훈은 감격에 넘쳐 부르짖는데 그이께서는 다시금 걸음을 옮기시며 인민문화궁전을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고계셨다. 여기서 바라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참으로 거창하고 아름다웠다. 그것은 변태적인 서방도시의 정신착란을 일으킬것 같은 자극적인 야경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고상한 미와 열정, 사색과 랑만이 간직된 인간지성이 정화된 창조의 세계였다. 주체사상탑의 해불아래 인간사랑의 새 세상이 펼쳐진 우리 평양, 이 눈부신 현실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요 향유자도 그들 자신이다. 그 무수한 별무리 가운데 김운봉이도 빛나고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들이 창조한 평양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도덕이고 의리이며 역센 신념이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사색을 이어가시였다.

×

명절이 지난후 첫날아침에 집무실에 들어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운봉의 만아들이 아버지의
 영웅메달과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시계를 받아안고
 삼가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었다.

《…한날 이름없는 설계가로 이국땅을 헤매이던
 저의 아버지는 조국땅에 훌륭한 건물을 세워놓는
 것이 평생의 꿈이며 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가 아니시였다면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10여년전에 소
 문없이 세상을 떠난 저의 아버지가 이렇게 영웅
 의 이름으로 불리워질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인민모두가 어버이수령님께 가장 귀중한 선
 물을 올려야 할 민족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가
 정에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니 이 사랑, 이 믿음에 무슨 말로 감사를 드
 려야 하겠습니까. …》

김정일동지께서는 편지의 구절들이 너무도 진
 실하고 대견하시여 거듭 읽어보시다가 붉은 마지
 크를 손에 드시고 활달한 필체로 문건결장우에
 엇비듬히 써놓으시었다.

《민족최대의 명절은 인민의 명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

사향가소리

홍현양

그 어디에서 들어도
 애끓는 그리움을 안겨주는구나
 사향가여
 너는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물소리
 너는 문밖에서 바래워주던
 어머니의 정다운 그 모습

어찌하여 너의 그 마디마디
 내 고향집 프락
 앵두나무잎에 이슬로 맺히느냐
 어찌하여 너의 그 소리
 때없이 백두밀영에로
 이 마음 조용히 이끄는것이나

알수 없구나
 산나물죽 끓이던 숙영의 그밤엔
 고향의 푸른 시내가로
 꿈을 실어가던 그 소리
 오늘은 나의 집 이 창가에선
 진대나무 천막가로 왜 부르는지…

아, 고향은 내 미처 몰랐던
 목숨바친 그 녀이었구나
 수양버들 늘어진 물가에
 내 물장구치던 그 웃음이
 너의 사랑
 몇몇이나 광야에 청춘을 묻었더나

들려오는구나
 안개피는 들가에 프락프락 발동소리
 저 먼 산관에 소들의 영각소리
 내 학교가던 들꽃의 그 봄날이
 너의 꿈이었던 그 미래
 너의 미래였던 오늘의 이 땅

아버지가 보습 대이던 사래긴 이랑에
 내 잔뼈 키워준 조국이 있었구나
 무르익은 산딸기를 입에 넣으며
 붉은 흙에 정이 들던 어린 시절이
 네가 나에게 준
 이름없는 집이었구나

쉽게 부르지 마시라
 굶이굽이 압록강을 피로 적신
 그 마디마디에
 고향을 그리던 우등불이 아직 타고있어
 너 없이 이 땅이 어이 있으랴
 네가 있어 제땅에 사는 내가 아니나

아, 사향가여
 너는 우리 수령님 한평생
 조국을 사랑하신 그 마음
 벼이삭 드시고 두렁길 밟으시며
 바라보신 이 땅
 너는 금물결 설레이는 그 소리

눈물속에 가슴치누나
 사향가여
 우리 수령님
 생의 마지막 나날에도
 다시 부르시고 또 불러보신 너
 내 자라난 조국은 바로 너였구나

너여서 조국은
 소백수 격정에 찬 물결소리
 목숨은 버리어도
 버리지 못할 우리의 고향이
 백두밀영임을 웨치고있구나
 아, 사향가소리여

우리 당 총비서동지께 영광을!

장해명

환호성이 터져오른다.

천지를 진감하며 강산을 뒤흔들며 10월의 창공에 환호성이 터져오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무한한 영광과 다함없는 행복, 끝없는 궁지와 누를길 없는 걱정으로 뒤설레이는 환호성.

그 열도에 있어서, 그 폭과 영역에 있어서 일찌기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와 세계정치무대에서 있어본적 없는 열화같은 환호성.

이 환호성은 자기 당의 총비서에게 전체 조선로동당원들과 전체 조선인민이 삼가 드리는 영광의 지지, 절대적 찬성인것이다.

지난 9월 21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할것을 결정하는 조선로동당 평안남도대표회가 열린 그날로부터 조국땅우에는 환호성의 낮과 밤이 흘러왔다.

저리저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용해장과 협동벌전야, 지하막장과 철리방선초소, 학원의 창가와 벌목장 할것없이 인민이 사는 그 어디서나 장군님을 칭송하는 뜨거운 환호성속에 날과 날이 흘렀다.

그 감격적인 소식은 오랜 세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축적되어 끓어번지면서도 장군님의 만류로 이룰수 없었던 간절한 열망의 화산을 터치는 분화구로 되었다. 련이어 전국각지에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대표회가 열렸고 드디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영광스리운 **김일성** 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추대하는 감격의 환호성이 10월의 하늘가에 터져올랐다.

그 환호성이 이 땅에 울리기 시작한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조선로동당 평안남도대표회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였던가.

아니면 통남산언덕을 내리신 걸음으로 당중앙위원회청사에 우리 장군님 조용히 들어서시던 그날부터였던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추앙과 신뢰의 감정이 우리 인민의 마음에 자리잡은것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영광의 대회장에서 주름깊은 얼굴에 뜨거운 눈물을 담고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로투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항일의 날 백두밀림에서 울리던 그 환호소리를 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을 우리 혁명의 명맥을 잇고 백두의 장수별을 이어 미래의 조국땅을 비

철 광명성으로 우리르며 백두밀림에 메아리치던 그 감격에 목메인 환호소리를.

력사에는 위인들도 많고 당계, 정계의 저명한 령도자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탄생의 첫날부터 민족의 태양, 민족의 령수로 떠받들리운 그런 위인, 그런 령도자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때 우리 수령님은 당의 총비서도 정부의 수반도 아니시였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해방시키시려 백두의 빙천설지에서 풍찬로숙하시는 빨찌산 대장이시였고 우리 장군님은 항일전장의 사령부 귀틀집에서 탄생하신 빨찌산의 아들이시였다.

나라가 언제 해방될지 당이 언제 창건될지 아직은 기약할수 없는 그 나날에 탄생의 고고성을 울리신분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이을 향도성으로 앞날의 조선을 이끌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장군님의 탄생의 비범성과 지니고계시는 절대적인 권위로밖에는 달리 설명할수 없는 전설 아닌 전설, 인류위인사에 전무후무한 일인것이다.

그렇다.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우리러 터친 이 환호성은 벌써 반세기 썩 이전에 시작된 력사의 환호, 력사의 축복이였다.

근로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 나라와 착취계급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정권을 잡은 나라로 나뉘어진 오늘의 세계.

량립될수 없이 극과 극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세계에서 어느 한쪽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쪽에서는 그 반대의 감정을 받게 되며 현재 그렇게 되고있는것이 통례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3년이 넘도록 우리 나라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성과 효성으로 하여 수령님께서 맡고계시던 직책이 그대로 비어있었다.

하지만 유일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지도자》라고 정중히 부르면서 담보서한을 보내여왔던것이다.

실로 우리 장군님은 적들까지도 인정하고 머리숙이는 아니, 온 세계가 흠모하고 우러르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환호성.

심장을 다해 경모의 마음 다해 자기 당 총비서에게 드리는 이 환호성.

당과 혁명앞에 빛나는 공헌을 쌓아올린 령도자만이 이런 환호를 받을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령도해오신 나날도 어언 30여년의 력사를 기록하고있다.

이 나날 장군님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이룩하신 업적은 실로 세계가 공인하는바 그대로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견줄수 있는 그렇듯 방대하고 위대한것이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문무재덕을 겸비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좌우명으로 삼으시는 인민사랑의 화신 우리 장군님.

이 땅에는 장군님 계시는 수도 평양으로부터 멀고 가까운곳은 있어도 그이와 멀고 가까운 인민이란 없다.

100살로인이 그이로부터 생일 100돐상을 받고 우리 글을 갓 익힌 6살난 어린이가 장군님께 무릅없이 편지를 올리고 또 회답서한을 받는다 하면 외진 초소의 병사도 자기 초소에서 최고사령관동지를 뵈옵는다.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는 사람을 두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당의 총비서, 혁명의 령도자로서의 위치를 떠나 순수 인간적으로 보통사람들의 말로 할 때 우리 장군님은 오로지 동지를 위해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그것을 수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락오신 여기시는분이다.

늘 바쁘시고 늘 시간이 모자라시여 전선길을 들추며 달리는 군용차안에서 잠시 쪽잠을 드시고는 오래간만에 폭 자보았다고 피곤이 다 풀렸다고 하시며 마음에 티 한점이라도 있다면 감히 마주 뵈옵수조차 없을 한없이 순결한 미소를 함뱉으시는분.

집무실문을 나서시면 인민들과 인민군전사들이 있는곳에 계시고 그곳을 떠나시면 또다시 곧바로 집무실로 향하시는 그이의 발걸음.

웁트는 봄날부터 눈내리는 겨울까지 춘하추동을 그 수수한 잠바옷차림으로 인민들과 인민군전사들을 찾아 끊임없이 걷고 걸으시는분.

일년 삼백예순다섯날 자식많은 어머니처럼 온 나라 인민을 돌보시기에 어느 하루 휴식의 명절도 일요일도 없으신 장군님.

오늘의 《고난의 행군》에서 어떻게 하나 인민들에게는 불편을 적게 하고 어려움은 하나라도 자신이 더 걸머지시려고 불철주야로 일하시며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니던 수령님 그대로 때로는 켜기밥으로 때로는 죽으로 끼니를 에우시는 장군님.

혁명이 시련을 겪고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오늘 장군님의 사랑은 백배천배로 더 뜨겁게 안겨진다.

아버이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가 비애에 잠겼던 그날, 먹는것도 자는것도 다 잊고 수령님만 애타게 불러찾던 그날, 소문도 없이 조용히 만수대언덕을 찾으시여 피약별아래 호상을 서는 인민들

을 보시고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령차매대를 전개하도록 해주신 목메이는 그 사랑.

작가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때아닌 때에 우리들에게 첫물로 탄 꽃강영이까지 보내주신 눈물겨운 그 은정.

민족의 대국상을 당했던 그날로부터 탈상하는 3년세월은 우리 장군님이 어떤분이신가를 더 잘 알게 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시고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튼튼히 강화발전시키시여 수령위업계승과 선대수령을 모시는데서 공산주의자의 진정한 도덕을 창조하시고 세계사적 모범을 이룩하신 숭고한 그 의리.

아버이수령님께서 오래동안 계시며 사업하시던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시고 수령님을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여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을 영원한 수령님의 세월로, 우리 인민을 김일성민족의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만고에 다시 없을 그 충효.

이렇듯 위대하고 헌신적인분을, 이렇듯 자애롭고 인자하신분을 총비서로 추대하였으니 어찌 심장의 만세소리, 격정의 환호성을 터치지 않으랴.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군사와 예술 등 혁명의 모든 분야를 무불통달하고계시는분.

이 땅에 일떠서는 거창한 창조물로부터 한편의 노래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직접 지도하시고 지구의 곳곳에서 벌어지고있는 대소사들을 다 헤아리시는 다재다능에 지인용을 겸비하신분.

그분의 담력은 얼마나 크시며 지략은 또한 얼마나 천변만화한것이던가.

우리의 사회주의를 없애보려고 사면팔방에서 피를 물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오히려 단매에 요정내시며 붉은기 날리는 사회주의 성벽우에 거연히 서계시는 정의와 평화와 안녕의 수호자이신 무적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천리전선을 주름잡아 달리시며 걸음마다 적들의 전쟁도발을 짓밟아버리시고 조국과 세계를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사회주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백두의 산악처럼 거연하시고 정일봉의 웅자처럼 누리에 그 위엄을 날리시는 천출명장을 우러러 터치는 환호성이기에 이리도 우렁차고 이리도 열렬한것 아니던가.

환호성.

20세기의 마지막 년대기우에서 세계를 진감시키는 조선의 환호성.

이 환호성이 울려가는곳은 그 어디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우리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계승해나가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도 모든 일이 잘되고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되어야할것임

니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합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장엄한 대오는 우리 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20세기의 언덕을 승리로 넘어 바야흐로 밝아오는 21세기로 들어서게 된다.

신심은 백배하고 기세는 충천하다.

세계여, 들어보시라.

위대한 장군님 따라 천만리를 걸어갈 맹세로 불타는 조선의 이 환호성을.

누구든 좋다.

로동자이든 농민이든 군인이든 지식인이든 환호성 터쳐올리는 그들의 심장에 귀기울여보시라.

그러면 듣게 되리라, 항일의 로투사들로부터 나아온 소년단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조선인민의 가슴에서 울리는 신념의 맹세, 우리 당 총비서동지를 따라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결사의 의지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한것은 장군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의 혼연일체에 불패의 견고성을 더해주고 있고 인민의 가슴속에 무한한 힘과 열정의 장약으로 되었다.

장군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지고 장군님을 위하여 불속도 물속도 웃으며 뛰어들리라는 각오를 더욱 새삼스럽게 강렬하게 다지는것이 누구나의 심정이다.

우리 당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이제 강성대국으로 세계우에 우뚝 키를 솟구며 일어서게 될 아직은 력사가 알지 못하고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장엄한 새 시대의 새벽길을 오늘 우리가 걷는다는 흥분과 희열에 가슴이 달아오른다.

이 길이 순탄치 않으리라는것을 우리는 안다.

넘어온 령보다 더 험한 준령이 막아설수도 있고 오늘의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강행군을 견게 될수도 있으리라.

허나 그 모든 고난과 시련도 10월의 창공에 울려퍼지는 조선의 환호성에 비끼는 그 신념과 의지는 꺾지 못하리라.

이환호성에는 열정에 넘쳐 토로하던 검덕의 영광부의 그 목소리도 있다.

《오늘 원썩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없애보려고 피를 물고 달려들지만 장군님, 우리가 이깁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항일의 피바다도, 전쟁의 불바다도 다 헤쳐넘은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령도자로 높이 모시였기에 오늘의 <고난의 행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장군님, 새 시대를 펼쳐나가시는 성스러운 투쟁의 맨 앞장에 언제나 우리 로동계급들을 불러주십시오.》

이 환호성에는 음성은 조용하나 사람들의 가슴을 한없이 파고들던 연백벌녀성관리위원장의 눈물에 젖은 목소리도 있다.

《장군님, 우리 연백벌에 오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찾아오셨던 우리 연백벌에 꼭 오십시오. 우리 농민들은 장군님을 해해년년 풍년벌에 모시렵니다.》

멸적의 총과 포신들이 숲을 이루고 무적의 함선과 은빛날개들이 조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금성철벽으로 지키고있는 초소마다에서 우리 당을 무장으로 받들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신념의 환호성이 울려퍼진다.

우리 작가들도 붓을 높이 들었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의 사명을 다할 때가 왔다는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명작으로 우리 당 총비서동지의 위업을 받들고 뜨거운 인민의 환호성을 더욱 뜨겁게 달굴 충성의 붓, 명작의 붓을 높이 들었다.

환호성.

위대한 장군님 따라갈 천만리에 끝없이끝없이 울려퍼질 환호성.

인민의 심장에서 터져올라 영원한 인민의 력사우에 무궁토록 울려퍼질 환호성.

인민들은 환호를 드린다.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실것을 바라는 뜨거운 신뢰와 다함없는 기대를 담아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영광드린다!

대원수의 위용은 외1편

박영

전화의 추억을 불러주는
훈장과 메달을 가슴팍에 단
로병들과 더불어
내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전승절의 이 아침

자욱자욱 그리움을 짙으며
한달음에 오르는 우리들을
오늘도 반겨 맞아주시는 아버지수령님
아, 수령님 그 모습을 내 저도 모르게
대원수복 입으신 모습으로
그려보게 되는 마음이어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우리의 조국을 자위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
쌓으신 업적 하늘에 닿아
조국과 인민이 삼가 드린 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히나 우리 수령님
겸허하신 저 차림으로
인민을 찾으시고 병사들속에 계시었으니
어이 알았으랴
대원수의 금빛견장
그이의 령전에 무겁게 놓일줄을...

절통한 그날의 마음들이
수령님 안아오신 위대한 전승의 이날에

대원수복 입으신 수령님 모습을
삼가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경모의 인사 드리나니

만고의 빨찌산대장
백전로장 대원수의 그 위용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
무적의 우리 강군에 다 주신것이 아니냐
자위의 우리 조국에 다 주신것이 아니냐

인민의 소원이란 소원은
다 풀어주시고도
삼가 지어드린 대원수복 입으셨으면...
간절한 인민의 그 소청만은
우리 수령님 끝내 잊으셨던가

이제라도 그이께서
대원수복 입으실수 있다면
꿈인듯 행복의 더운 눈물 옷섶에 떨어구며
대원수별 빛나는 군복의 단추들을
하나... 하나...
정히 채워드리고픈 간절한 마음이어

아, 영원한 우리의 수령 **김일성** 동지
한없이 겸허하신 저 모습에
조국과 인민, 군대를
천하를 떨치는 백전백승의 영웅적위용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절세의 대원수 그 위용 다 있는것이구나!

명절날의 담시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날씨도 더없이 쾌청한
오늘은 5월 1일 명절날
공장의 드넓은 운동장은
체육경기로 흥이 뿔네

축구경기 뒤이어 시작되
사람찾아달리기경기
선수들 저마다 자기 쪽지 들고서 찾네
-당비서동지!
-식당책임자어머니!

그런데 선반공처녀 옥정이

깜장눈이 그만 울상이 됐네
-평양에서 온 선수를 찾아
함께 달리시오
라고 쓴 쪽지를 든채

사연을 알리 없는 옥정이네 직장장
청높은 목소리로 다붙어대네
-예 옥정아 뭘하고 서있느냐!
-아니 평양에서 온 선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때 당비서를 어서 나가라고
재촉하던 정무원 부총리동지

그소리에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옥정의 손목 덩석 잡고
넵다 달리네

잠시 조용하던 운동장
또다시 응원으로 왁작 끓어번지네
-그래 그래 평양에서 온 선수야
저 부총리동지이지
-경기조직이 신통한걸 하하...

한발 앞서 내달리던 당비서동지
뒤따라 달려오는 부총리동지 보다가
그만 신발이 벗겨졌는가
펼썩 주저앉더니
신발을 바로 신는척

그사이
선반공처녀와 평양선수
앞으로 쪽 빠져 달리고
관람석에선 한마디씩 하네

당비서동지가 우정 저러는것 같다느니
경기에선 양보가 없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우리 선수 이겨라
-평양선수 달려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혁신과 기적을 창조해가는 공장가에
고조되는 응원의 함성 힘차게 울려가네

아, 우리 로동계급을
제일 믿고 사랑해주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명절을 맞으며 보내여주신 정무원 부총리동진
축하의 사절만이 아닌 평양선수

못잊을 오늘의 《고난의 행군》길에서 맞은
로동계급의 명절 5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여주신
평양선수에 대한 그 이야기
공장의 즐거운 추억이 되었네

다시 왔습니다

(총련) 고봉전

다시 왔습니다 아 내 조국
70을 넘어선 이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흐르는 내물은 나를 반겨 노래하고
몸은 질풍처럼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언제 봐도 조국의 하늘은 푸르청청
그러니 내 마음도 푸르청청

일본땅에서 귀가 아프도록 듣던 잡소리
원썩들의 검질긴 공화국에 대한 비방증상

내 몸에서 산산히 흩날려갑니다
내 몸은 하늘을 날듯합니다

내 이제 이길로 만수대를 찾아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립니다

나를 안아 공훈교원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앞에 이 몸을 세우립니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다시 왔습니다

인생 70년을 700년으로 늘인대도
못다 갚을 사회주의조국의 은혜

꿈엔들 잊으리까 수령님의 조국
순간인들 잊으리까 장군님의 조국

아! 조국도 하나 나도 하나
어머니조국이여 이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 위대한 길은

최영화

오늘새벽에도 나는
바람찬 서해 최전연길에
우리 장군님 또 하루
거룩한 자옥을 새겨가신 보도에
가슴을 적시었노라

지난해는 설달그믐날에도 걸으신
전연길
이해에도 쉽없이 이으시며
그 길에서
혁명을 이끄시고
사회주의를 지키시는
우리 장군님

그 불멸의 자옥들우에
이해의 꽃들과 노을인들
또 얼마나 피고지랴
그 끝없는 로고의 길들우에
부는 바람 내리는 눈비인들
또 얼마나 맞으시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며
한몸 인민의 성새가 되시여
한몸 조국의 방패가 되시여
한몸 수령님 유산의 수호자가 되시여

낮과 밤 가림없이
전연에서 전연으로
철의 걸음
무적의 자옥들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아, 장군님의 길

이 길은
장군님만이 내실수 있고
장군님만이 걸으실수 있는
위대한 길

이 길은
총대의 무게와 참뜻을 깨우쳐주고
군을 강화하여
나라도 당도 강화하고
어떤 대적도 이기시는
백두산장군의 군령도의 길이거니

이 길에 장군님 새기시는
그 한자옥 한자옥은
오늘의 우리 당이 내딛는 걸음이고
오늘의 우리 조국이 숨쉬는 숨결이고
세계를 흔드는 조선의 발구름이여라

그 자옥들을 따라서
총창의 대하가 물결치며 나아가고
수령옹위의 총폭탄정신이 번개친다
관가리싸움에서
원췌는 죽고 나는 사는 우리의 신념
최후 승리자의 큰 웃음이 하늘을 울린다

우리 장군님
무적장군을 이끄시고
원췌들을 발밑에 딛고서시여
동서천리 높고낮은 전연산발들에
백두령장의 추상같은 기상을 날리시며
적들을 천길낭떠러지에도 몰아가시는
승리의 길

붉은기를 날리며
우리 혁명이 달려나가고
우리 승리가 마주 달려오는
이 위대한 길은
그렇다, 이 **김정일**장군님의 길은
오늘의 조선의 길이다

그날의 첫 환호성에

서진명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환희와 감격을 안고와서인가
성지골,
한그루 구호나무앞에 서니
이 가슴 더욱 뚫어오르는구나
솔향기 싱그러운 청솔숲속으로

빛살처럼 비쳐드는 해빛너머
보여오는듯싶구나
장군별 빛나는 하늘을 더욱 밝히며
유난히 빛을 뿜는 백두광명성 우러르던
주체30년대 투사들의 그 모습

들려오는듯싶구나
 나무껍질 벗긴 소나무밑 등에
 먹즙도 진하게 한자 또 한자
 《백두산에 **김일성**대장 계승인 탄생!》
 환희의 노래 심장의 노래를 새기던
 투사들의 후더운 숨결소리

발목을 묻는 해목은 락엽
 덧쌓인 세월을 밟으며
 울렁이는 마음으로 나는 다가선다
 그날의 구호나무
 그날의 투사들앞에

달아오른 이 가슴에도 새겨안는다
 아직은 조국해방의 아침도
 멀리에 두었던 민족수난의 그날
 태양의 위업을 태양으로 이으실
 또 한분의 위인을 우러르던
 혁명의 1세들의 그 감격 그 걱정을

진정 내가 태어나기도전인
 멀고 먼 그날에
 투사들이 지녔던 그 행복 그 영광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커만가는
 나의 행복!

민족의 대통운!

《백두산에 **김일성**대장 계승인 탄생!》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이실 오직 한분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투사들이 터친 그날의 첫 환호에
 내 작은 목소리도 합치고싶구나!

세월과 인민이
 바로 그렇게 받들어 모신
 백두의령장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세상 큰 이 행복 이 영광을
 온 세상이 다 듣게 노래하고싶구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은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
 우리 인민은 영원히 수령복을 누리며
 더 살기 좋은 락원에서 살게 되었다고!

-영광군 자동리사적지에서-

10월찬가

박세일

10월이여
 너 조선의 10월이여!
 이 땅에 흐르는 1년 열두달중
 남다른 자량을 네가 지녔구나
 영광중에 영광을 네가 받아안았구나

기쁨도 행복도 무르익은 이 계절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했나니

이 무슨 인연인가, 10월이여
 장쾌한 해돋이와 마주한듯
 가슴빠근한 이 환희
 어이하여 너만이 우리에게 되었느냐

그날도 10월이었지
 암흑을 밝히는 해불인듯
김일성동지 추켜드신 《**ㄷ. ㄷ**》의 기발아래
 당의 첫 씨앗이 뿌려진 그날도...

역시 10월이었지

백두에서 들고온 그 붉은 기폭으로
 마치고 낮과 붓을 끌어안으며
 우리 당이 창건을 선포하던 그날도...

아, 이렇듯 의미깊은 10월에
 오늘은 또다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받들어 모셨나니

그이만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
 10월의 저 맑은 하늘을 닮아
 티 한점 없으리라
 그이 뜻을 꽃피워 우리 하는 일
 풍요한 10월의 전야처럼
 충효의 열매만을 익히리라

아!
 주체86년 오늘의 10월은
 이 땅에 영원한 명절로 남으리라
 인민은 언제나 이날에 살리라
 환희와 영광의 절정이었던
 복반은 이 10월에 마음두고 살리라!

자연도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력사적결정들이 도당대표회들에서 련이어 채택되어 온 나라 강산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끝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여 끝없이 설레이는 이 시각, 자연도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축복하는듯 조국땅 도처에서 신기한 자연현상들이 련이어 펼쳐져 만 사람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10월 2일 아침이었다.

회령시 오산덕에 모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는 류달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도당대표회결정에 접한 감격과 흥분을 안고 손에손에 꽃무음을 들고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이때 누군가가 경탄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꽃, 배꽃이 피었다!》

순간 사람들의 눈길은 소리가 난쪽으로 쏠리었다. 꽃이 피다니, 가을도 마가을, 모든 나무들이 잎이 지기 시작하는 때아닌 가을철에 꽃이 피었다단말인가.

정말 꽃이 피었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주변에 심은 20년생 배나무에 흰 배꽃이 활짝 피어나 파아란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가볍게 설레이고있었다. 세여보니 모두 55개의 아지에 85송이의 배꽃이 피었다.

존경하는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땅 회령에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계절을 초월하여 피어난 꽃송이들.

존경하는 김정숙동지의 축복의 마음, 온 나라 인민들의 축원의 마음을 안고 꽃망울을 터친 꽃송이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하는 뜻깊은 때에 맞추어 배나무가 꽃을 피

운것 같다.

정말 신통하다. 김정숙동지의 동상결에 있는 배나무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5돐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5돐에 맞게 55개의 아지에서 85송이의 흰 배꽃이 핀것을 보니 정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는 생각이 더 깊어진다.》

하늘이 낸 위인에게 드리는 대자연의 축복인가 만민의 순결한 마음을 담아 피어난 하얀 배꽃송이들.

이러한 신기한 자연현상들은 비단 이곳에서만 일어난것이 아니다.

박천군의 애두나에서도 해주의 돌배나무와 사리원의 살구나무에서도 전국 각지의 사과나무, 배나무, 단벗나무, 능금나무들에서 때아니게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 봄날의 향기를 그윽하게 풍기고있다.

9월 22일에는 서해기슭 웅진군 승월리에 1,500~2,000여마리의 제비떼가 날아들어 유난스레 지저귀며 낮추 떠서 영생탑을 중심으로 근 1시간동안이나 선회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추대하는 오늘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저 제비들도 강남으로 가던 길을 멈추었는가.

각지에서 나타난 신기한 자연현상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뜨거움에 목이 메여 이렇게 감동을 터놓고있다.

《자연도 하늘이 낸 위인을 알아보고 우리 장군님을 축복하는듯싶습니다.》

그렇다.

하늘이 낸 위인이실진대 자연인들 어찌 무심할 수 있으랴.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다. 그러기에 자연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추대한 오늘의 이 감격,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저 이렇듯 설레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정일동지는 로동당의 위대한 지도자

에르난 알타미라노 팔꼬니

김정일 동지 그이는
사회주의위업에
끝없는 로고 바치시는 지도자
인민의 다함없는 경모 받으시는 향도자

로동당의 향도자
진두에서
손길 높이 드시였어라
온 나라를 유일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인민의 나라로 더욱 튼튼히 다지시려
인민을 이끌어주시네

(필자는 베루시인임)

김정일 동지 그이는
조선을 건설하는 당

백두산이 받들었다

류동호

삼가 우러러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하늘땅이 환호성으로 설레이는 이날
격정으로 차넘치는 마음
어이하여 백두산으로 달리는것인가

장장수십년
장군님 이룩하신 그 위업
주체년호우에 빛나는 승리를
뜨겁게 새겨안은 이 가슴속에
소백수풀안의 환호소리
백두산의 봄우뢰소리
세월의 언덕을 넘어 메아리쳐온다

이 나라 조종의 성산이
반만년 민족사에 대통운을 알리며
백두광명성으로 받들어올린
우리 장군님

모습도 기상도 담력도
그대로 백두산을 닮은 장군
백두산의 붉은 기폭을
우리 당의 진군로앞에 휘날리시며
력사의 폭풍을 헤쳐 수십년세월
주체의 년대기우에 백승을 펼쳐오신
백두산형의 령도자 **김정일** 동지

동서해천리
이 나라 끝에서 끝까지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일심단결의 혁명대군을 이끄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가시는

천하제일명장 우리의 최고사령관

한없이 넓은 그 품에 인민을 안으신분
그처럼 열렬하게 조국을 사랑하시는분
그이만이 혁명의 명맥을 이을수 있고
그이만이 태양의 위업을 빛내일수 있기에
장군님을 우러르는 이 가슴속에
더 높이 솟아 빛나는 백두성산

오, 그이는
백두대산줄기로 뻗어 내린
내 나라 금수강산 삼천리에
통일조선을 장엄히 안아올리실 장군
붉은기 휘날리는 주체의 하늘아래
자주시대를 펼쳐가시는 장군

우리 장군님의 그 품속에
운명도 생활도 미래도 다 맡기고
장군님 모시고 받들어가는
위대한 **김일성** 조국이며
슬기론 **김일성** 민족이며

그이는 이 세기의 한복판에
신념의 산악으로 높이 솟아
력사의 폭풍을 뚫고 시대를 향도하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총비서
주체위업의 승리를 빛내이실
우리 세상의 영원불멸의 태양

오,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
그이를 백두산이 받들었다

총대에 비낀 인간상

문상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손으로 록음기의 전원스위치를 끄시고 다른 한손으로는 보시던 문건을 급히 덮으시며 움쭉 몸을 일으키시었다.

《무엇이라구?...》

그이께서는 집무탁너머로 리동무의 길쭉한 얼굴을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뚫어지게 바라보시었다.

리동무는 탁자가녀으로 굴러가 위태롭게 건들거리는 원주필을 황급히 바로잡아놓았다.

《최현동지가 애용 권총을 회사했다?!...》

언제나 담차고 우렁우렁하시던 그이의 음성이 별스레 아슴푸레한 공간 한끝에서 울려오는듯 가늘게 느껴져 리동무는 정신을 버쩍 차리었다.

오래동안 사적부문의 중요직책에 있으면서 때없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가르치심을 받곤하던 그였건만 지금처럼 심각해지신 안색을 뵈옵기는 처음이였다. 무엇인가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놓은듯한 예감이 온몸을 엄습한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였다. 착각이 아닌가싶을 정도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결 사려깊은 표정을 지으시며 그를 가까이 부르시었다.

《좀 차근차근 이야기하시오.》

그이께서는 장승처럼 굳어진 리동무의 어깨를 손으로 지그시 누르시며 함께 쏘파에 앉으시었다.

...그무렵 리동무네는 혁명사적사업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리용된 사적물들을 대대적으로 발굴수집하고있었다. 이미 지난 기간 몇차례에 걸쳐 사적물들을 발굴수집한 뒤였으므로 그 일은 험치 않았다. 술한 사람들이 항일혁명투쟁참가자들과 연고자들을 찾아다녔으나 소득은 극히 적었다.

그러던 어느날 리동무는 최현동지를 찾아갔던 한 일군한테서 귀가 번쩍 트이는 말을 듣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사용하던 권총이 그에게 있다는것이였다.

《그래 권총을 내놓겠다고 합니까?》

《말도 마십시오. 슬슬 눈치를 보다가 후대교양에 꼭 필요한 사적물이니 그 권총을 회사해달라고 말한마디 비쳤다가 줄경을 치르었습니다.》

《줄경은 왜?...》

《아바이가 대노하여 눈살을 찡긋이 세우면서 <뵈어 뵈었다구? 그전엔 나를 일러서 수령님께서

주신 호박물주리를 앗아가더니 이젠 하나밖에 없는 권총까지 내놓으라구?> 이러면서 펄펄 뛰지 않겠습니까. 주리를 틀기전에 썩 물러가라는 호령소리에 그만 뉘이 다 빠지는줄 알았습니다.》

첫 교섭은 실패였다. 하지만 단념할수는 없는 일이었다. 두번째, 세번째... 다섯번째만에는 리동무가 직접 최현을 찾아갔다.

그의 절절한 이야기와 간청을 말없이 듣고있던 로투사는 부지중 신음소리같은 한숨을 입귀로 내보내었다.

《할수 없지. 가져가오.》

최현은 철궤안에서 귀한 보물이라도 꺼내듯 조심히 권총을 내놓았다. 마디굵은 그의 손가락들이 떨리고있었다.

붉은 천에 싸인 권총을 이윽도록 들여다보며 로투사는 다시금 후- 하고 숨을 크게 불어쉬었다. 마치 사랑하는 애인과의 리별의 시각을 아끼는 것처럼 윤기나는 쇠불이를 오래도록 쓸어만지던 그는 총을 도로 갑에 넣더니 책상우에 놓았다가 쑥 내밀었다.

《자, 가져가시오. 내게는 살불이와 같은것이지만 어찌겠소... 교양사업에 잘 써주시오.》

로투사의 술진 눈섭이 푸뜰 움직거렸다. 얼굴빛은 말할수 없이 서운한 기색이였다. 장중보옥을 내놓는다 한들 그렇게까지는 침통해하지 않았을것이다.

리동무는 그 거동을 보기가 참으로 딱하였다. 하지만 보다 큰일을 위하여 할수 없이 권총을 가지고 물러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열어제긴 창문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창가림막을 휘저으며 불어왔다. 오곡을 여물쿠는 싱그러운 바람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답답한 감을 이기지 못하시여 옷단추를 벗기시었다. 방금전 리동무의 이야기를 들으신 충격때문인가?

《목갑총을 베야 잠이 잘 오지요.》

문득 아득한 시절에 그이의 심중을 울려주던 최현의 목소리가 귀전을 울리었다.

해방직후 어느날 저녁무렵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댁에 돌아오시니 뜻밖에도 최현이 옷방에서 네활개를 펴고 코를 골고있었다.

가끔 댁에 무렵없이 들려 《우리 장군, 우리 장군》하며 극진히 위해주던 무뎌하고 인상좋은 항일혁명투사를 보자 그이께서는 여간 반갑지 않

으시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최현의 머리맡에 목갑총이 베워져있는것이였다. 척 보기도 불편하게 생각 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얼른 베개를 내리워 조심히 그의 머리맡에 베워주려고 하시였다.

순간 잠결에 인적기를 느낀 최현이 눈을 떴다. 《베개를 베워드린다는것이 그만 깨웠구만요.》

밝게 웃으시는 그이를 알아본 최현은 일어나앉으며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장군 잘 계셨습니까?》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인사들이 끝나자 그이께서와 최현사이에는 다정한 이야기들이 벌어졌다.

동안이 지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베개를 베고 더 주무십시오.》

최현은 한잠 자고났더니 이젠 거뜰하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런데 왜 베개를 베지 않고 목갑총을 베고 자나요?》

친애하는 그이의 호기심어린 물음에 최현은 웃으며 말씀드리였다.

《오래전부터 붙은 습관이지요. 어렸을 때는 목침을 베고자고 유격대에 들어가서부터는 내내 총을 베고자지요. 그래서 지금도 목갑총을 베야 잠이 잘 옵니다.》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목갑총을 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아니지요. 해방은 되었지만 38선이라는게 생겼고 남조선의 리승만이와 미국놈들이 우리를 먹겠다고 자꾸 불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 팔자는 평생 베개를 베고 늘어지게 잘 팔자가 못된가 봅니다.》

최현은 껄껄 웃었다.

그 인상깊은 대화가 있은후부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현을 목갑총을 베고자는 투사로 심중깊이 새겨두시였다.

《목갑총을 베고자는 투사》, 이 말은 그이께서 한생토록 군복을 입고 무장으로 혁명에 이바지하는것을 인생관으로 삼고있는 최현에 대한 대명사이기도 하였다.

사실 최현은 총을 떠나서 못사는 투사이다. 인간 최현은 곧 총이고 총은 그대로 그의 생활이자 생명인것이다.

잠을 잘 때에도 목갑총을 베야 편안해하는 전형적인 무관기질의 소유자, 한생을 무장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겠다는 남다른 인생관을 지닌 로투사, 그의 그 기질, 그 인생관을 끝까지 내세워주고 지켜주는것이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데 그 로투사한테서 권총을 회사받다니, 파란만장한 혁명의 풍상속에서 애인처럼 정들고 손때묻힌 권총을 내놓고 그가 얼마나 허전해하랴.

권총이 몸에서 떨어지는 날이면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것으로 여겨온 투사가 아닌가.

그러고보면 결국 그에게서 가져온것은 단순한 권총이 아니라 무관의 넋을 뽑아온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두팔을 가슴우에 엇걸으시고 집무탁둘레를 무겁게 거니시였다.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고 항일혁명투사 오동무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급히 달려온 오동무와 인사를 나누신 다음 직방 최현의 권총문제를 이야기하시였다.

《...그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총을 생명처럼 여기는분인데.

최현동지는 수령님께서 첫 상봉의 기념으로 주신 호박물주리를 40년가까이 가지고다니다가 혁명박물관에 바쳤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여간 아쉬워하지 않았다고합니다.

나는 아까 리동무네들이 최현동지가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권총을 지못게 졸라서 가져왔다는 보고를 받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혁명박물관 관장동무에게 전화로 알아보니 인차 진렬할것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저쪽 응접탁에서 자그마한 함을 가져다 앞에 놓으시였다. 최현의 권총함이였다.

《최현동지에게 권총을 돌려주어야 하겠습시다.

그를 잘 아는 오동무가 직접 찾아가서 권총을 돌려주고 리동무네들의 사죄도 대신 하여주십시오.

최현동지에게 후대교양을 위해 권총을 바쳐주어 고맙다는 나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에서는 최현동지의 권총을 비롯한 다른 유적, 유물들을 후에 전시하기로 하였기때문에 도로 가져왔다고 하십시오.》

오동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눈굽이 찢어졌다. 오랜 혁명가들을 극진히 생각해주시고 사려깊이 보살피시는 그이의 은정에 목이 매였다.

(나이를 건사한 우리들은 언제면 그 바다보다 넓고 깊은 사랑의 세계를 다 헤아릴것인가!...)

오동무는 눈시울을 습벅이며 목갈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았습시다. 말씀대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뭘니까?》

《마음이 동하면 제 바지라도 벗어주는 최현동

지의 성미에 한번 바쳤던 권총을 다시 받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에 놓인 권총함에 손을 얹으시고 소탈한 웃음을 터뜨리시었다.

《허허… 하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이께서는 권총함을 이리저리 돌려보시며 오동무의 의향을 물으시었다.

오동무는 대답대신 멧적은 웃음만 지었다. 그라고 신통한 생각이 떠오를리 만무한것이다.

《이렇게 합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에게 권총함을 내어주시며 이르시었다.

《이 권총은 로투사의 젊은 혁명동지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해줄것을 바라는 믿음의 표시로 최현동지에게 다시 보내주는 권총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받을것입니다.》

무엇인가 쿵 하고 흉벽을 울려주는 그이의 말쑤에 오동무는 경건히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는 권총함을 정히 안고 집무실을 나섰다.

조금후에 최현은 백두산시절의 사령부 전령병이었던 오동무가 느닷없이 나타나자 의아한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동무가 웬일이요?》

《며칠전에 권총을 바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거야 응당 바쳐야 하겠소… 진작 내놓지 못해 미안한데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소.》

《그런데 말입니다. …》

옛 전령병은 갑자기 말을 끊고 잠깐 대기실에 나갔다가 웬 목함을 들고와서 최현의 앞에 내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이께서 이걸 보내시였습니다.》

《뭔데?》

《열어보십시오.》

최현은 목함을 열어보고 펄쩍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내 총이요.》

《아닙니다.》

《참 사람두… 내가 아무리 늙었기로서니 제살불이같은 총을 헛갈리겠나.》

《아니란데 그러십니다. 최현동지가 일단 바쳤으니 이건 당의 총입니다.》

《영?! 리치는 그렇소.》

최현은 인차 수궁하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면서도 어째서 권총이 되돌아왔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오동무는 정중한 어조로 좁전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 달려갔던 사연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였다.

최현동지가 권총을 바친것은 후대교양을 위해서 당에 바친것이고 지금 이 권총은 로투사의 젊은 혁명동지가 인민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끝까지 헌신해줄것을 바라는 믿음의 표시로 보내시는 것이라고 그이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로장의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으흑… 이 늙은 병사가 뭐길래 그다지도 마음을 쓰시는가?!…》

최현은 좀처럼 진정할수 없었다. 오동무도 손수건을 꺼내어 눈언저리를 닦았다.

옛 전령병은 항일의 그날처럼 혁명의 사령부에서 보내는 권총을 최현에게 정중히 내밀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시는 총을 어서 받으십시오.》

로투사는 자기의 총이면서도 자기 총이 아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뜻깊은 권총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총대에 떨어지면서 눈부신 빛을 발산했다.

순간 최현은 그 빛발속에서 우주와 같은 거대한 세계를 보았다. 그것은 총대에 비친 위인의 거룩한 인간상이였다.

그는 이제와서 그 의미가 달라진 권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내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무장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겠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이 최현의 결심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오.》

그후 최현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합니다.》

김일성

반향묵음

오늘의 이 감격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이 격동적인 소식이 각지의 당대표회장들마다에서 울려나와 온 나라가 환희와 걱정의 파도로 차넘치는 가운데 문화예술부 당대표회에서도 전체 작가,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결정서를 전체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자는 장내는 기쁨의 환호성으로 떠나갈듯하였으며 대표들의 얼굴마다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을 진두에서 령도해오시면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신 지난 30여성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운명이시고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운명이시고 행복이시라는 신념을 굳게 하여준 영광의 나날이었다.

돌이켜보면 세상사람들이 《20세기 문예부흥》이라고 찬탄해마지 않는 우리 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령도에 의하여 그 장엄한 시원이 열려졌으며 그것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승승장구의 한 길을 역세계 이어왔다.

그 나날에 머리 흰 로작가도 신인예술인들도 다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슬하에서 독창적인 주제적문예사상과 리론을 배우며 그이의 손길따라 문학예술혁명의 첫 걸음마를 떼었고 세계적인 명작들을 창작창조하는 명작가, 명배우들로 자라났다.

하기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 30여년간의 산 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 혁명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도 반드시 승리하며 주체의 문학예술위업도 더욱 빛나게 개화발전되어간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어왔으며 그이를 더 잘, 더 높이 모실것을 일일천추로 갈

망해왔다.

이 소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당부하신 유훈교시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몇해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부터 당을 받들어 문학예술활동을 벌려온 우리 로세대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동무들은 이제는 다 늙었지만 자녀들을 잘 키워서 **김정일**동지에게 충성다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대를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겠다고 엄숙히 결의를 다지였다.

이 절절한 념원이 오늘 드디어 실현되었으니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심장속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화산처럼 터져오르고 감격의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실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특별보도를 받아안고 우리 인민이 터치는 환호성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축복에 자신의 목소리도 합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늘땅 끝까지 따르려는 충성의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나는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의 한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격동된 작가, 예술인들의 환희의 감정을 창작적양양으로 지향시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여 더욱 강화발전될 우리 당의 문학예술의 위용을 힘있게 펼쳐가도록 하겠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기관인 백인준

영원한 메아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셨습니다.

감격의 환호성이 하늘과 땅으로 터져오릅니다. 나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백두산마기로 달려올라가 진감하는 조국강산을 한눈에 굽어봅니다.

백두대산줄기, 역세고 줄기찬 지맥을 따라 연 연 삼천리 동서해 푸른 바다를 거느리고 가없는 수평선 남해 끝까지 뻗어내린 조국강산이 송두리채 떠올라 일어서서 백두산을 향하여 설레이며 만세의 환호성을 울려주는것 같습니다.

우중충 솟아오른 산줄기와 봉우리들, 굽이굽이 뻗어내린 강줄기와 풍요한 어머니 가슴인양 펼쳐진 넓은 벌판들, 크고작은 도시와 마을들, 그 모두가 저마끔 정일봉을 향하여 들쭉거리며 환호성을 올리는것 같습니다.

푸른 바다, 아득한 바다 수평선으로 멀어져가던 환호성은 메아리라도 일으킨듯 불시에 살아올라 여기 백두산마루 정일봉을 향하여 세차게 되돌아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구 반만년 민족사 갈피갈피에 깃들고 부풀어있는 인민의 열망이 울려주는 거세찬 메아리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친필하신 송가 한구절이 이 시각 더욱 새삼스럽게 가슴굽을 절절히 울려줍니다.

《환호성고 진천지...》

오늘의 이 환호성은 반만년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김일성**시대와 더욱 부강번영할 새 시대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계승하는 역사적대사변에 대한 송가입니다.

나는 두분의 세기적수령을 한생에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인류사상 전고미문의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고 계승완성하는 싸움에 한몸바쳐 투쟁

하는 이 세상 가장 자랑높고 긍지높고 행복한 전사로서 가슴터질듯 절감합니다.

이제 력사에 전례없는 역경을 뚫고 진격하여온 《고난의 행군》 승리도 눈앞에 다가왔고 조국통일의 대문과 부강조국건설의 려명도 훤히 바라보입니다. 신심과 열정이 온몸에 굽이쳐오릅니다.

승패의 열쇠는 오직 우리가 어떻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장군님 계시여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미래도 있는것입니다.

오늘의 이 감격을 백배, 천배의 힘과 지혜로 바꾸어 수령결사옹위정신,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창작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앞에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환호성은 무궁토록 룡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에로 영원히 메아리쳐 울려갈것입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일성상**》계관인 **김병훈**

태양과 생명

지금 온 나라는 커다란 감격과 환희에 잠겨 세차게 설레이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한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진것이다.

수도의 위성도시 평성에서 처음 울려퍼진 이 소식은 도시와 마을, 공장과 팜산, 농촌 온 나라 각지를 뒤흔들면서 온 세계에 울려퍼지고있다.

이 격동적인 시각 나는 지금으로부터 52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해방하시고 개선하시였을 때 온 나라에 차넘치던 감격과 환희의 만세소리를 되새겨보게 된다.

나는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나서자왔다. 하지만 그 시절의 나는 단순한 생리적존재였을뿐 사회적인간은 아니었다. 하나의 망국노였고 일제의 노예였으며 착취자의 배를 불러주는 말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하던것이 8.15조국해방이라는 대폭풍을 휘몰고 나타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선광장에서 손을 높이 드시여 조선은 해방되였다, 우리 민족은 삶의 권리를 찾았다고 장엄한 선언을 하신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가치와 참된 삶을 누리게 되였다.

나는 그때로부터 무지와 몽매, 무권리의 암흑속에서 뛰쳐나와 밝고 약동하는 생활속에 뛰어들었다.

온 누리를 밝히는 태양의 빛발속에 나는 작가로 자라났다.

주체 50년대말부터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보살핌에 의해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의 한 성원으로 되였다. 그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직접 몸가끼이에서 체험할수 있었으며 이분이시야말로 아버지수령님과 꼭같은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심을 절감하게 되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처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게 되었으니 이는 나의 인생말년에 맞이한 또하나의 대경사인것이다.

어느덧 내나이 70고개, 짧지 않은 나의 한생을 한마디로 집약총화하면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것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이 두분의 위인을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민족사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년대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두분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고 그 따사로운 빛발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삶을 누려온 나의 한생

이야말로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참된 한 생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태양의 빛과 온기를 떠나서는 생명을 생각할수 없다. 태양계의 세번째 행성인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태양이 준것이다.

한즉 생명이 태양을 따르고 받들며 그 은혜로 움에 보답하는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한 우리의 태양 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오늘의 **김일성**동지이시며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다.

이것은 나의 인생체험을 통하여 찾은 진리이고 원칙이다.

내 이몸은 비록 늙었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오늘의 이 영광, 이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의 문필전사로 남은 여생을 빛내어나가며 모든 지혜와 정력을 그이를 받드는 길에 바치겠다.

《**김일성상**》 계관인 소설가 권정웅

위대한 장군님을 충효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더욱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온 겨레와 민족과 진보적인류와 함께 우리 평론가들은 격정과 흥분에 넘쳐 시대와 력사의 환호에 심장을 합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시고 태양위업의 승리의 빛나는 상징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광스러운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것은 단군조선 5천년력사에서 최대의 경사이며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일대 경륜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위업인것만큼 혁명의 대를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해서 인민의 참다운 령도자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추대되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되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고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김일성**민족의 태양위업의 광휘로운 태양이시고 미래이시며 빛나는 상징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우러러모시으로써 **김일성**민족의 태양위업은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도래하는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것입니다.

저는 태양위업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주체문학을 건설하는 최상의 영예와 긍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바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문학예술혁명을 선포하던 때로부

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문학분야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주체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우리 식의 문학창작원리와 형상구성법칙을 적용하여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령도하신 우리의 문학예술혁명의 력사는 새로운 주체적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의 력사였으며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자랑스런 승리의 력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기의 교체가 일정에 오르고있는 력사적인 전환점에 살고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들은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를 자주시대의 새형의 문학인 주체의 인간학의 세기로 되게 하는데서 전초병, 척후병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주체의 문학리론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감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민족문학의 순결성과 혁명성을 튼튼히 지켜나가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시대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대중을 태양위업으로 선도하는 주체문학의 전진은 위대한 태양의 찬란한 빛발을 따라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이 력사의 대경사를 맞이한 우리 평론가들의 뚫어오르는 감격과 환희는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나게 하려는 심장의 맹세입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위원장 **최길상**

영광의 천만리

사람들은 자기 일생에서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당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모두가 그러하듯이 저도 행복만을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가슴 빼근한 환희와 걱정애 넘쳐보기는 처음입니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당대표회에 참가하여 대표들과 함께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영광을 직접 체험한 나의 심정을 상상해보십시오.

일찌기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지어 부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혁명의 태양으로 받아들여올린 조선혁명의 첫 세대들인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그토록 부러워해온 우리들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모신 첫 세대로 되었으니 이 영광, 이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예술, 고매한 덕망을 한몸에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세상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지도를 받는 나날에 절감한것이지만 우리 장군님과 같은 문학예술의 위대한 거장은 동서고금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을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인자로 불러주시면서 작가 한사람 한사람을 나라의 재보로 아끼시여 우산장장작실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 세상에 부럽없는 창작기지와 창작조건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의 창작생활 구석구석에까지 깃들고 작가 활동의 갈피마다 깃들어있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련된 령도와 높으신 덕망은 우리 함경남도에도 뜨겁게 어려있어 저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만 하자해도 끝이 없습니다.

작가와 그의 재능을 것처럼 아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과오를 범하고 어느 광산에 나가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하고있던 한 시인이 쓴 시를 보시고 함께 일하던 우리들까지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그를 다시 작가대오에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룡성의 한 선반공처녀가 유교로 남긴 시초를 보아주시고 그의 시집을 출판하게 해주시여 그를 영원히 백두산의 꽃으로 피워주신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는 그 폭과 중심에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견줄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도안의 작가들뿐 아니라 취재차로 함흥에 출장은 다른 한 작가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고인의 유

가족들이 찾아오기도전에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파견해주시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세계적인 문호로 알려진 레브 톨쓰포이가 객사하였을 때에도 그의 곁에는 자그마한 간이역에서 일하는 사람 몇명밖에 안되는 호젓한 풍경이였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버이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온 조선의 한 소설가의 곁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사랑의 화폭이 펼쳐져 만사람의 눈굽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 자애로운 사랑의 품, 따뜻한 손길이 있기에 지난 기간 우리 도내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장편소설 《동트는 압록강》을 비롯한 수십편의 장중편소설들과 서사시들, 영화문학작품들을 내놓았으며 서정시 《어머니》를 비롯한 100여편의 시와 가사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를 받아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걸어온 천만리도 승리와 영광에 넘친 자랑찬 로정이였지만 그이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나아갈 우리의 앞길은 더욱 휘황찬란합니다.

강산에 차넘치는 10월의 환호성!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울리는 시대의 메아리이며 다가오는 세기와 세기들을 모두다 장군님께 맡기고 억척같이 나아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의 산물입니다.

문학운동과 그를 담당한 작가를 당이라는 기관차의 작은 바퀴와 나사못으로밖에 보지 못한 레닌에게는 나의 작가라고 불리울 작가가 고리끼 한사람밖에 없었지만 우리 장군님곁에는 그분의 제자들인 작가대오가 혁명의 성벽을 이루고있습니다.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혁명의 총창인듯 필봉을 높이 추켜든 우리 작가들에게는 못건널 시련의 강하가 없고 올라서지 못할 봉우리가 없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따라 천만리!

이것이 저의 필생의 좌우명이며 삶의 좌표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감격을 그대로 원고지우에 쏟아 부어 빠른 기일안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장편서사시 《넓은 품》을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위원회
위원장 민병준

우리 당은 김정일동지

송찬웅

우리의 령도자와 당은 한모습
일심의 천만심장 피뿔여주는
위대한 우리 당은 **김정일**동지

은혜론 당의 품은 령도자의 품
인민이 안겨사는 요람이라네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펴주는

어머니 우리 당은 **김정일**동지

백두의 산악같은 당의 그 기상
천하를 뒤흔들며 우뢰쳐가네
자주의 존엄높이 승리 떨치는
불패의 우리 당은 **김정일**동지

총창처럼 버려진 붓대로

기쁨을 나누면 배로 커진다는 말이 있다. 세상
천지를 들석하게 하는 환희와 감격의 파도속에
휘말려 울고 웃으며 때없이 치미는 충동으로 춤
판에도 뛰어들고싶고 어별이 크게 공연무대의 마
이크도 잡아보고싶은가 하면 학생취주악대속에
끼여들어 나팔도 불고싶은것이 요즘 나의 심정이
다.

무언가 목청껏 웨치고싶고 누구든 붙잡고 마음
껏 자랑하고싶다.

이야기판에 끼여들면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하여 남보다 하나라
도 더 말하고싶고 남이 다 알고있는 일도 뭔가
한가지라도 더 보래고싶다.

실지로 사람들은 작가의 말이라면 더 귀를 기
울인다. 그들 역시 하나를 알고 하나를 가르칠것
이 아니라 백을 알고 하나를 가르쳐야 한다는 작
가의 본분을 알고있기때문이 아닌지.

실로 지금처럼 사는 보람과 긍지를 느껴보기는
처음이다.

후날에 돌이켜본다면 나는 분명 역사적인 시기
에 산 사람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항일투사
들처럼 조국해방전쟁세대나 전후복구건설세대처
럼 나 역시 후대들의 견지에서 볼때 자랑할만한
세대중에 속한다. 허리띠를 조이며 《고난의 행
군》도 해보고 세계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한목
숨 내대고 총포성없는 전쟁도 해본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럽고 긍지로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만들어모신 영광,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행운
을 지닌 세대라는것입니다.

먼 후날 백년, 천년이 흘러도 후세사람들은 오
늘의 우리를 기억하며 잊지 않으리라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으면 자연히 어깨가 무거워
진다.

그때 가서 후세대들은 계산할것이다.

그때 군복입은 작가인 너는 무엇을 하였는가?

다른것은 제쳐놓고라도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그처럼 거만해진 미국과 당당히 맞서
단숨에 무릎을 꿇게 하신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어느만큼이나 구가했는
가?

총대로 평화를 이룩하고 사회주의를 지켜낸 그
준엄한 날에 위훈을 새기고 이름을 남긴 영웅들
을 책속에 얼마만큼이나 남겨놓았는가?

지금 당장은 그 물음앞에 나는 이렇게 했소라
고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자격을 얻으려고 한다.

내가 권 붓대를 총창처럼 날카롭게 버려가지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와 무비
의 담력에 대하여, 군령도에 바쳐오신 불면불후
의 로고와 한없이 자애로운 덕망에 대하여 붓끝
이 닳도록 쓰려고 한다.

그러면 먼 후날 후세사람들이 우리를 길이 추
억할것이다.

조선인민군출판사 소설가 박춘섭

오늘입니다

최정용

날과 날이 바뀌어
이 강산에 밝아온 오늘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감격의 이날, 환희의 이날은

10월의 해빛도 더욱 밝아진
인민의 소원이 꽃피난 이날은
아, 하늘이 낸날도 아닙니다

50여성상
정일봉의 노을과
당중앙창가의 정다운 불빛을
마음에 안고산
우리 인민

행복한 날에는
행복에 젖어 그 품을 따랐고
어려운 날에는
입술을 깨물며 허리띠를 조이며
더더욱 그이께
운명을 맡기고 따라온 인민이거니

하늘도
땅도
흐르는 세월도
그이께 축하의 큰절을 올리는

조선의 명절, 세기의 명절

아, 오늘입니다
김정일 장군님을 천만년 모시고
그 품에 안기여 천만년 살고싶은
우리의 마음에 밝아온 오늘입니다

누려온 행복
누려갈 영광을 다 안고
신념에 꿋고
량심에 더워진
우리의 심장에서 밝아온 오늘입니다

억만년 무궁한 세월이 이어지고
우리 당의 영광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이
빛나게 떠실린 우리의 오늘

마음에 밝아
해빛도 밝아진 오늘입니다
미래가 밝아진 오늘입니다
세상이 밝아진 오늘입니다

아, 마음에 밝아
억만년 세월이 흘러간다 해도
인민의 마음에 지지 않을 오늘입니다
영원히 빛날 태양의 날입니다

영원히 해빛밝은 날로

김철혁

하늘도
더 푸르게 열리였구나
해빛도
더 눈부신 빛발 누리에 뿌리누나

터치는 감격이여
넘치는 환희여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우리 당의 총비서로
우러러 높이 모시여
강산도 한껏 밝아진 이날이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정답고 친근한 이름으로
꿈결에도 그이를 찾고부르며

우리 한마음
일찌기 높이 우러러모셔온 그이

부어주시는 어버이사랑
하늘같은 그 믿음을 받아안으며
감격에 울며 웃던 그 나날은
이 땅의 해빛이 더 밝아진 나날
우리 마음이 더 밝아진 세월

모서울수록
더 깊이 깨우친 그이 위대함
따라걸을수록
더 뜨겁게 새겨안은 그이 귀중함
저절로 마음 이끌려
운명도 미래도 다 맡겨온 은혜의 그 품이여

영원한 태양으로
 어버이수령님 높이 모신 우리 하늘
 저 밝고밝은 세기의 광명은
 정녕 수령님 그대로이신
 우리 장군님의 해발이 아니던가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시며
 걷고 또 걸으신 전선길
 그 길우에 빛나오른 아침노을은
 백두산장군의 호방하신 그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거니

아, 그이를 높이 모시여
 조국의 천만년 미래가
 더 밝게 내다보이는 이날이여
 이날을 맞아

환희에 빛나는 눈빛들이여
 끝없이 설레이는 강산이여

이제 우리
 이루지 못할 소원이 무엇이고
 이기지 못할 고난이 무엇이라
 그이 모시여
 우리의 하늘땅은
 오늘도 햇빛밝은 날
 래일은 더욱 햇빛찬란한 세월

아, 세기와 세기를
 오늘의 이 감격으로 이으며
 이날은 우리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리라
 언제나 저물지 않는 날로
 영원히 햇빛밝은 날로...

환희의 분출

리영

그것은
 한껏 고였다가 터지는 샘물처럼
 맑고 즐기찬것이였다
 지심에서 뿜다 솟구치는 용암처럼
 뜨겁고 열렬한것이였다

환희의 분출이여
 인민의 환호성이여
 이날을 그리며 가슴에 쌓이던
 그 소원의 세월은
 길었던가 짧았던가

어버이께서 우리 곁을 떠났음을
 단연 부인하신분
 텅빈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수령님 모습만을
 절대의 진리로 새겨주신분

아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분만을 우리 당 수위에
 인민은 벌써 받들어올렸건만
 그 소원만은 우리의 그 소원만은
 부디 미루고 또 미루어오셨거니

수령을 어떻게 길이 모셔야함을
 전사의 의리로 깨우쳐준 그 나날이여
 그래서 기다림의 이날은
 이렇듯 격동적인것인가
 이렇듯 환희로운것인가

그것은 마치도
 수년세월 한껏 고이다 터져오른
 맑은 샘과도 같은것이다
 천년세월 지심에서 뿜다 솟구치는
 그-용암처럼 열렬한것이다

기쁨아 밀림처럼 설레이라
 행복아 열매처럼 주렁지라
 가장 친근한 김정일동지
 세상천지 한분뿐이신 절세의 위인을
 우리 당 총비서로 우러러 받들었거니

환희의 분출이여
 인민의 목멘 환호성이여
 만민은 오매불망 그리여오던
 어버이수령님을 분명 보았다
 불멸의 태양철리를 또다시 깨우친것이다

열망

석유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끝없이 펼쳐진 춤바다, 설레이는 꽃물결...

온 거리가, 온 수도가, 아니 온 나라가 감격과 기쁨의 파도속에 설레인다.

한생을 두고도 체험하기 힘든 이 격동적인 감격을 서로 나누고 싶어 사람들은 모두 떨쳐나섰다.

꽃밭이라도 익힌 사람이면 마주 달려가 두손을 덥석 쥐고는 오래도록 흔든다.

《정말 기쁩니다. 이런 경사가 또 어데 있겠습니까.》

그다음 무슨 말을 또 하랴. 기쁨과 환희가 격동된 가슴속에 응축된 절절한 심정을... 그 감정의 분출을 구사할 말이 과연 더는 없단말인가.

속이 탁 트이게 쏟아지는 열변에 취하고싶은 생각에 앞선 나는 중학교때 동창생이며 지금은 력사학계에서 명망있는 최교수를 먼저 찾았다.

수많은 력사적자료와 가치있는 사실들을 안고 정력적인 사색과 진지한 탐구로 긴장하게 정력을 쏟아붓던 그는 오늘 서재에 없었다. 과학의 전호처럼 책자들이 준비하게 들어찬 서재에서 찾아올적마다 반겨맞아주곤하던 그를 대동강반에 펼쳐진 출판에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천만뜻밖이었다.

학창시절부터 생활에서는 퍼그나 과묵한 편이지만 일단 학술적인 문제에 들어서서는 론리가 당당하고 분석이 예리한것으로 하여 그의 말은 언제나 인기였다. 학술적인 탐구와 사색에서 언제나 남다른 정력을 기울여오던 그가 선뜻 출판에 뛰어든것도 놀랍지만 뛰어들어서도 귀밑머리가 희숙해진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은이들 보란듯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것이 더 이채로웠다.

벌써 몇고래 출판을 돌았는지 얼굴에 땀이 번지르한 그는 나를 알아보자 반갑게 웃으며 손짓을 하였다. 나는 나이와 체모로 보아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지만 저도 모르는사이 출판에 끌려들었다.

우리는 이윽해서야 서느러운 가을바람이 싱그럽게 불어오는 유보도로 나왔다. 푸른 물이 유정하게 출렁이는 대동강물을 바라보느라니 마치 아이가 부풀어오르는듯 흥그러운 마음도 저도 모르게 가벼워졌다.

《력사학계에서 제노라하는 반백의 학자님이 출판이 흥겨워 시간가는줄 모르니, 참...》

《오늘처럼 기쁜 날에 나이나 체면을 가리게 댔나. 더우기 잠자리같은 옷을 입은 꽃같은 처녀와 짝을 무었는데야...》

그도 가벼운 톤담으로 내 말을 받았다.

《어쨌든 흥안의 시절이 아니라는것만은 잊지말게. 더우기 누구보다도 리성적인 사고를 존중하는 자네한테야...》

《어쨌겠나.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사변을 맞이하는 격동적인 오늘 력사가라고는 하지만 관조적인 기록자로만 될수 없네그려. 나도 피가 끓는 인간인것만큼 시대의 맥박에 내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야 할게 아닌가. 허허.》

즐거운 덕담에 취해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크게 웃었다.

강반에 퍼져가는 그 웃음속엔 기쁨으로 일렁이는 우리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어 오히려 백마디 말보다 더 많은것을 이야기해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다는 아니라는듯 그는 나를 돌아보며 문득 물었다.

《내 오늘 자네한테 한가지 묻고싶네. 과연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 그야 사람마다 제 나름으로 생각하지. 어느한 유명한 문호는 남을 위해 사는것이 생활의 둘도 없는 행복이라고 했네만 실은...》

온몸에 함뱍 어리었던 기쁨이 아직도 어른거리는 그의 눈길을 지켜보면서 나는 현학적인데로 기울어졌다는것을 깨닫고 말꼬리를 저도 모르게 얼버무리었다.

《우리 시대 인간의 참된 행복을 그려내는 작가 앞에서 행복을 운운한다면 유별난 일이겠지만 이처럼 크나큰 행복을 받아안은 오늘 그에 대하여 부러 생각하지 않을수 없구만.》

그의 눈가에는 진지한 시색이 번뜩이었다.

《오늘처럼 가슴벅차게 만복을 누리고보니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절절한 념원이 성취된것으로 해서 행복의 절정에 오른듯싶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담담하게 들리는 그의 말은 더더욱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우리 인민모두가 한결같이 생각하는바이지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하는것은 물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지난 시기에도 30여년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해오시였으며 지금도 령도하고계시지 않는가.

우리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하는 이력사적인 위업은 이미 3년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직후에 진행되었어야 할 일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빨리 추대하려는 온 나라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어찌 이루 다 헤아릴수 있으랴. 허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만민의 절절한 열망마저도 엄격히 만류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만 열중하시면서 혁명가들이 서거한 수령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너무나도 진지한 그의 말을 들으니 생각은 자연 깊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장군님의 것처럼 굳건한 의지와 불타는 신념, 진리성과 실천력을 우리는 조선혁명을 함께 령도하여오신 지난 30년과 아버지수령님의 서거후 지난 3년동안 얼마나 감명깊게 체험하였던가를 새삼스레 깊이 느끼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아온 우리 인민은 난관이 겹쌓이는 《고난의 행군》도 웃으며 헤쳐가면서 승리의 래일을 굳건히 믿어온것이 아닌가.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절절한 열망의 분출은 바로 전인민적감정이었다. 그 절절한 열망이 비로소 성취된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은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싸여 춤추며 노래하고있는 것이다. 이 세상 만복을 다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속에...

우리는 어느덧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한 주체사상탑 앞마당에 이르렀다.

하늘높이 치솟아 황황 타고르는 붉은 봉화는 마치도 수천년 인류력사를 굽어보면서 온 세계 자주화의 새 길로 힘차게 고무해주는듯싶었다.

《확장시절에 우리는 이 대동강반을 거닐며 밤을 새우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간절한 열망이 현실로 되었으니 우리는 진정 얼마나 복된 세대인가.》

《그야 우리 인민만이 누리는 수령복이지. 난 지난봄 유럽에서 열린 원탁회의에 참가했던 일이 잊혀지지 않네. 이전부터 면식이 있던 이름있는 한 역사학자는 그만 사회주의가 붕괴된 오늘에 와서 하루 세끼 때식을 건네지 않을 격정뿐이었네. 시대를 부감하던 그에게 암담한 래일밖에 기다리는것이 없으니 참 가궁하기 그지없네구려.》

붉게붉게 타고르는 봉화를 올려다보면서 나는 심중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열망을 토로하였다.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이 성취된 오늘의 크나큰 행복을 받아안고보니 더 찬란해질 래일을 그려보게 되네.》

오늘세계 혁명적인민들도 우리 인민과 함께 오늘의 이 대경사를 경축하고있지 않나.》

《그야 당연한 일이지. 올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어느 한 나라 공산당 대표는 현시기 사회주의를 재생하자면 그것을 통일적으로 령도할 국제당을 내와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당의 본부는 평양에 두어야 하며 국제당을 이끄실 유일한 령도자는 **김정일**동지밖에 없다고 하였네. 그러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국제당창건위원장으로 되여주실것을 간절히 부탁했네.》

《우리 장군님을 세계 자주화의 방향타를 틀어잡고 나가실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려는 추이는 날이 갈수록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지 않나.》

《참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긍지높은 민족이고 복된 세대인가. 그러니 온 세계가 부러워하지.》

봉화의 화광이 붉게 어린 그의 얼굴을 이윽히 지켜보는 나는 설레이는 마음을 달래일길 없었다. 《이보게, 세월이 흘러간뒤 후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세대의 영광을 어떻게 빛내였는가 우리 세대에 물올테지.》

《아무렴. 누구나 력사의 이 물음앞에선 성실해야지. 더우기 우리 력사가들앞에는 준엄하고도 격동된 우리 시대를 자주의 새 시대로 령도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로 새겨갈 숭고한 의무가 주어져있네.》

그의 얼굴엔 어느덧 근엄한 빛이 어리었다.

《그것이 어찌 력사가들뿐이겠나. 우리 장군님을 받들고 새 세기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모두가 누리는 행복이고 영광이지.》

숙연해진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퍼그나 젖은 음성으로 뇌이였다.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런 력사를 펜과 종이로써가 아니라 열화같은 충성과 지극한 효성으로 새겨야 한다는걸 명심하게 되네. 그러고 보면 나는 남다른 의무와 남다른 긍지를 안고 사는 행복한 사람일세.》

아니 그것은 그만이 지닌 긍지와 행복이 아니다. 행복의 절정에 오른 이 시각에 온 세계의 자주화를 향도해나가실 우리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가슴 후덥게 안겨온다. 자고로 나이가 들면 인간의 욕망도 소원도 잦아들게 마련이라고 했다. 하지만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나의 가슴 속에는 더 큰 소원, 절절한 열망이 사품친다.

나는 최고수가 묻던 인간의 행복이란 결코 범속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 바쳐갈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행복은 수령복을 누리는
인민만이 누리는 영광이다. 하기에 남다른 긍지
를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은 오늘의 《고난의 행
군》도 웃으며 헤쳐간다. 날과 더불어 커가는 긍
지와 행복속에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가는것이다.
그 투쟁속에 새시대의 장엄한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함께 빛나게 탄생하는것이
아닌가.

날이 어두워질수록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더욱
붉게 타오른다. 시간이 갈수록 출판은 더 고조된
다.

《자, 우리도 춤을 추세.》

이번엔 내가 제먼저 펼쳐나 그의 손을 이끌었
다. 내 마음을 알아차린 그 역시 히죽이 웃으며
나를 따라나섰다.

해빛눈부신 평양의 하늘아래서

김휘조

시대가 쌓아놓은 념원을 담아
가슴마다 얹힌 소원들을 담아
조선은 오늘
그이를 높이 추대한다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가슴에 뛰는 영광이여 기쁨이여 긍지여
이 마음 꽃다발에 담노라
그이께 드릴 향기 그윽한 꽃다발에 담노라
해빛눈부신 평양의 하늘아래서
이 가슴은 저 푸른 하늘과 뜨거운 태양과
떠오를 달과 별들을 다 안은듯

내 지금껏 수많은 행복에
노래의 붓을 적어왔다만
감격의 날이여
21세기를 이끌 령수로 세계가 우러르는
그이를 높이 추대하는 날이여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안고있었구나

아, 언제나 우릴 보살피시는
그이는 대해같은 사랑을 지니신분
인간의 운명을 밝힌 위대한 철학
위대한 령도력
세계를 움직이시는분
그이 말고 그 누가 파란많은 이 세계에
밝은 웃음을 주랴, 노래를 주랴

영광빛나라 력사의 날이여
그이는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 수호자
인민의 오늘과
래일을 책임지신분
21세기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기

해빛부신 저 거리에 마을에
더 밝게 흐를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화목한 온 나라 한가정에

날마다 경사가 넘칠 새 세기를 위해
부강한 내 나라 내 조국이
세상에 더 빛날 미래를 위해
그이를 높이 추대한다

질곡으로 얼룩진 암흑을 가시고
자주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인디아자
그이 이름은
세계가 다 비껴있는 이름
온 우주의 무게가 다 담긴 이름

정의가 영원히
피에 젖은 침략을 승리하고
어두운 불의를 쓸어버릴 21세기를 위해
인간이 흘리는 땀과 성스런 로동이
어디서나 영예로 되고 존엄으로 되고
빈궁이 없는 세계에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어질 새 세기를 위해
그이를 높이 받들어올리나니

아, 나는 듣는다, 지금
해빛눈부신 평양의 하늘아래서
그이를 우러르는
인류의 환호성을, 들끓는 환호성을
그이 계시는 평양, 여기선 이 시각
가장 아름다운 인류의 노래가 시작되고
화창한 인류의 새 아침이 시작되나니

세월이여 기억하라 이날을
가없이 푸른 저 하늘과
눈부신 태양을 다 안고
나는 웨친다
조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올린다
력사우에
영광의 21세기를 높이 받들어올린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사상사업의 전조선이며 작가는 이 전조선을 지켜선 문예전선의 초병들입니다. 작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혁명에 복무하는 혁명가입니다.》

김정일

잡지 《조선문학》과 작가

오영재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오늘 가장 간고한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드높은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는 조선문학의 얼굴이며 우리 작가들의 선생이고 친근한 벗인 잡지 《조선문학》 발행 600호를 기념하게 된다.

해방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직접적인 배려에 의하여 《문예전선》이라는 표제를 달고 창간된 때로부터 무려 반세기가 넘는 50여년이라는 역사를 우리의 《조선문학》은 기록해왔다.

참으로 잡지 《조선문학》은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문예정책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의 풍만한 결실을 가득실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역사와 함께 풍파많은 년대들을 헤쳐온 한 폭의 자랑스러운 붉은 돛이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세월 달마다 수많은 부수로 출판된 잡지 《조선문학》은 이 나라 방방곡곡 인민들이 살고있는곳이면 그 어디라없이 찾아가 말없는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잡지는 새 조선 건설로 들끓는 공장과 농촌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점심밥과 함께 있었으며 송진내 풍기는 농촌민주선전실의 샷자리우에 있었다.

전화의 준엄한 날에는 화약내 스민 병사들의 배낭속에 탄약과 함께 들어있었으며 복구건설의 나날엔 목고채를 멘 청년건설자들의 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독자들은 이 잡지에 실린 소설과 시와 평론을 읽으면서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위대함과 고마움을 더욱 가슴뜨겁게 감수하였다.

지나온 년대들마다에 잡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것이 보람있고 떳떳한 삶을 누리는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영생의 길로 떠밀어줌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신적인 성장과 사상문화생활에 기여해왔다.

조선문학운동의 믿음직한 무대로 된 잡지는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작품들을 발표하여 그것이 인민의 소유물로 되게 해주었으며 저마

끔 자기의 얼굴과 개성을 가지고있는 작가들을 인민앞에 소개해주었다.

지금 인민들속에 알려져 친숙해졌거나 각별히 사랑을 받고있는 작가들 그 누구나 할것없이 이 잡지와 련결되지 않은 작가가 없으며 또 잡지 《조선문학》의 혜택을 입지 않은 작가도 없는것이다.

창간호로부터 600호에 이르는 이 잡지를 더듬어 보면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와 따뜻한 지도를 받으며 우리 문학이 걸어온 력사가 아로새겨져있고 대를 이어온 우리 작가들의 연혁도, 한 작가의 성장과정도 있다. 잡지가 창간호를 발행할 당시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애국애족의 뜻을 안고 자기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이 지면을 통하여 개척한 작가들은 이제 거의나 우리곁에 없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희망과 창작적흥분을 안고 붓을 달리던 그날의 그 숨결을 잡지는 고이 간수하고있으며 그 이름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있다.

내가 이 잡지와 처음 상봉한것은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다. 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기 전에는 남조선에 살았고 인민군대가 남녘땅을 해방하였을 때 의용군으로 입대한 경력을 가지고있었던 관계로 잡지 《조선문학》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주체41(1952)년 가을쯤이라고 생각된다.

진지방어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 중대에 하루는 련대에서 기통수가 찾아왔었다. 그 기통수가 풀어놓은 가방속에는 고향에서 전선으로 온 편지들도 있었고 여러가지 출판물들도 있었는데 그속에서 나는 《조선문학》이라는 표제를 단 잡지를 찾아보았던것이다. 나는 밤이 새도록 수류탄까지로 만든 등잔불밑에서 이 잡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내려갔다. 싸우는 전선과 후방에서 우리 인민들과 전사들이 발휘한 영웅담과 가슴을 격동시키는 전투적이며 생활적인 시들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잡지 《조선문학》의 열렬한 애독자가 되었다. 기통수가 올 때마다 다른 동무들이 고향에서 오는 편

지를 기다렸다면 나는 《조선문학》 잡지를 기다렸다. 기동수의 배낭에서 이 잡지를 보게 되면 전우들은 나를 찾으며 마치도 내가 이 잡지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나에게 넘겨 주곤 하였다.

이렇게 나는 《조선문학》 잡지를 통해 선배작가들과 지면으로 낯을 익혔고 그들의 작품을 통하여 문학의 뜻을 키우며 신인작가로서의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참으로 잡지는 작가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없어 안타까와하던 나에게 말없는 선생이 되어 주었으며 나를 문학의 길로 이끌어준 조연자 창작적열정을 불태워준 벗이기도 했다.

나는 그무렵 초학도의 무분별한 열정으로 쓰고 또 썼으며 자기의 창조물에 대한 아이적 애착이 성급한 공명심으로 나를 부추겨 한편의 시가 손에서 떨어지면 <<조선문학>편집부 앞>>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투고했던 것인가.

거기에 이 《병사시인》의 시가 실리게 된다면 성공의 정상에 오르게 될것만 같은 그때의 들뜬 기분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잡지 《조선문학》은 나에게 있어서 귀중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서도 범접하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했다.

그후에 나는 《조선문학》 잡지를 편집하는 편집성원으로도 일해보았고 이 잡지에 수백편의 서정시, 장시, 서정서사시, 서사시 등을 발표하였지만 지금도 이 잡지를 대할 때면 어제날 병사시절에 간직했던 그 애정과 존중심, 시인인 나 개인과 맺어졌던 그 깊은 인연을 잊을 수 없다.

작가는 한편의 짧은 글을 쓰더라도 결코 소홀히 쓰거나 적당히 써버리는 그런 버릇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선배작가들의 교훈도 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립장과 자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지만 때로는 왕왕 글을 날리는 현상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날 때가 있군한다. 그러나 《조선문학》 잡지에 실리게 될 작품에 대해서는 오늘도 심사숙고하며 작품을 충분히 무르익히기 위하여 애쓰군한다. 아마도 이 잡지를 사랑하고 중시해온 그 감정이 오늘도 내 가슴속에 간직되어있어서가 아니겠는가. 그 누구나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는 자기의 가장 귀중한것을 제공하고싶은 그런 심정에서부터라고 할지.

그러면 이 잡지에 대한 그 사랑과 존대는 어디 서부터 오는 것이겠는가.

한것은 우리 당의 문학, 인민의 문학의 화원이 가꾸지고 꽃피는 무대로서 이 잡지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우리의 문학에 대한 불멸의 령도가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이 잡지에는 때 시기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가 반영되며 그 어떤 이색적인 풍조도 허용하지 않는, 주체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립각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우리 문학이 만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자기의 생활력을 빛나게 파시하고있기때문이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이 이 잡지에서 《문학을 통하여 불패의 조선식사회주의》를 보았다고 말하고있는 것이다.

나는 가끔 해외동포작가들이나 외국작가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우리 문학에 대한 론의가 벌어질 때면 그들은 레외없이 《조선문학》지에 실린 작품들을 레중하군한다.

잡지 《조선문학》은 우리 문학의 대표적인 잡지이며 얼굴로서 그들은 이 잡지에 실린 작품들을 자기 나라에 소개하기도 하며 그 작품들을 분석평가하면서 조선문학의 실태를 연구하고있다.

나는 우리의 문단이 잡지 《조선문학》을 가지고 있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자랑으로 생각하고있다. 이 잡지야말로 우리의 녀과 열정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창조물이며 당과 수령께 바치는 작가의 깨끗한 량심과 정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숭고한 사명의 활무대이다.

잡지는 주체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과 함께 자기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될것이며 지면마다 아름다운 화원으로 펼쳐져 우리 문학의 향기를 만방에 뿌리게 될것이다.

잡지는 진취성이 강하고 패기와 정열에 넘친 대담한 새 세대작가들에 의하여 나날이 청춘의 활기에 차넘칠것이며 1000호, 2000호로 이어질 주체문학의 영원한 길에서 그 가치와 영향력으로 세상사람들의 사랑과 기쁨속에 자기의 존재를 빛내여갈것이다.

나는 잡지 《조선문학》과 문학의 한길을 걸어오는 한 시인으로서 600호의 발행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잡지가 앞으로 더 큰 성과와 공적을 이룩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나의 스승

백보흠

땡벌이 내리찍는 8월초 어느날이었다. 《조선문학》 편집부의 젊은 녀성기자가 뜻밖에 나를 찾아와 원고청탁을 하면서 《이해 <조선문학> 10월호가 600호로 된답니다.》 하고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순간 나는 어째서인지 가슴속 깊은곳에서 강한 진동이 일어나는것 같은 충격을 느끼었다. 나도 명색은 작가이니 《조선문학》과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온 사람인것이다.

《그러니 선생님도 무슨 소감의 글을 한편 쓰세요. 꼭 쓰십시오.》

이렇게 덧붙여 강조하는 기자의 눈은 인생의 서리가 내린 나의 머리를 의미심장히 지켜보는듯 싶었다. 그 눈빛앞에서 나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덧없이 머리는 회여졌지만 나는 작가로서, 이 나라의 문필가로서 600호를 내는 《조선문학》에 자랑스러운 공적을 이야기할만한것이 별로 없었던것이다. 그 공민적자책감이 나를 부끄럽게 하였다. 더구나 나는 최근 몇년간 창작과제가 바쁘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대고 《조선문학》에 낫을 돌리지 않은터여서 기자앞에 서있기가 먼구하고 죄스러웠다.

사실 《조선문학》은 40여년 세월 나를 배워준 고마운 스승이다. 그리고 주체문학의 길을 함께 걸어오고 생활의 희로애락을 같이한 혁명의 벗이요 인생의 반려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렇다. 내가 처음으로 《조선문학》을 읽기 시작한것은 멀리 40여년전 초급중학교 3학년때부터였다. 그후 고급중학교시절에는 《조선문학》을 그 무슨 호신부처럼 늘 몸에 달고다녀서 어지간히 소문도 났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주체44(1955)년에 《조선문학》 열성독자의 명분을 가지고 고급중학교 학생으로서 평북도신인작가대회에 참가하였던 일이다. 《조선문학》에서 이름을 익힌 시인, 소설가들의 얼굴을 나는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얼마나 황홀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는지 모른다. 《저 선생이 정서촌선생이래!!》

나의 옆에 앉은 같은 나이또래의 학생이 소곤거리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가 바로 최창학동무였다. 그도 역시 《조선문학》 열성독자로서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그 시절에 작가라고 하면 그 어떤 신비로운 지성의 봉우리에 높이 서있는 특별한 존재로 끝없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였다. 아마도 그것은 작가들이 형상한 거인적인 인간들, 고상하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에 무한히 매혹되었기때문 일것이다.

아닌게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시절에 나는 《조선문학》을 놓고 울고웃으며 밤을 새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 《조선문학》을 통하여 백두산의 빛나는 력사와 압록강, 두만강의 혁명적유래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영웅서사시적 주인공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배우게 되었다.

나는 분명히 그러한 매혹과 예술적공감으로 하여 어릴적부터 《조선문학》의 애독자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 나의 가슴속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인간성격의 창조자-작가로 되려는 욕망이 싹 트게 되었다.

그러나 한 민족의 지성을 대변하는 작가, 정신도덕적으로 최정상에 서있는 인간정신의 기사로서 못사람들에게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작가가 되기에는 내가 너무도 둔재였다. 나는 점차 그것을 깨닫게 되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는데》하고 생각하는 때가 많아졌다.

옛사람들도 문호를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나는 일찍부터 주변의 어들과 선생들한테서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들었었다.

《누구든 노력하면 의사로도 될수 있고 력사학자나 어학자로도 될수 있지만 작가로는 될수 없다. 천부의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애당초 작가 수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실로 나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조언이요 훈시들이었다. 작가를 신비화하는 관심이 나로 하여금 그후 문학이 아니라 지질부문의 정규교육을 받게 하고 지질탐사배당을 지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하였다.

나는 언제인가 《조선문학》에서 탐험가의 일화에 대하여 감동깊게 읽은적이 있어 탐험가, 지질학자가 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비로운 문학의 힘에 이끌려 그후에도 계속 《조선문학》을 끼고다니면서 단편소설습작을 하였다. 누가 시키지도 바라지도 않았지만 나는 탐사천막안에서 밤을 새워가며 소설이랍시고 글 갈지도 않은 글을 쓰고 또 썼다. 어디서 문학작품현상모집을 한다고 하면 습작품들을 골라서 부지런히 투고하였다. 물론 매번 퇴짜를 맞았다.

《나야말로 둔재지, 도대체 내가 무엇때문에 이 놀음을 한단말인가? 지질공부나 착실히 할게지.》 하고 스스로 화를 내면서도 《조선문학》과 결별하지 못하는것은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다시는 글쓰는 놀음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였다가도 《조선문학》에서 좋은 단편소

설 한편을 읽고나면 미칠듯한 창작적충동을 받게 되는것이였다.

이러한 고초와 실패의 연속속에서 이 문제도 다소나마 단편소설의 묘리와 《문법》을 익힌것 같았다.

나는 주체51(1962)년도부터 비록 변변치는 못하지만 소설이나 과학환상이야기같은 문학작품들을 신문과 잡지들에 가물에 콩나듯 드문드문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작가동맹기관지인 《조선문학》에 처음 소설을 발표한것은 주체57(1968)년이였다. 그해 5월호 《조선문학》지면을 펼치면 《뜨거운 심장》이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을 볼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국의 푸른 산줄기를 타고다니던 혈기방장한 시절, 랑만적인 탐사의 길에서 쓴 나의 글이다. 그것은 지금에 와서 거의 모든 독자들의 기억에서 가뭇없이 사라져버린 졸작의 소설이지만 나로서는 병신자식같은 그 작품이 각별히 잊혀지지 않는다.

그도 그럴것이, 졸작이든 걸작이든 그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러러운 《스승》앞에 첫얼굴을 보여준것이 아니겠는가. 언제면 나도 《조선문학》에 글을 낼수 있을가 하던 그 연연한 소원이 그토록 늦어서야 실현된것이다.

내가 더욱 레의 그 작품을 잊지 못하는데는 또 하나의 다른 사연이 있다. 단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세상에 발표하기까지에는 참으로 눈물겨운 당의 사랑이 깃들어있다. 당시 당에서는 그 보잘나위없는 조그마한 작품을 완성시켜주기 위하여 나에게 20일동안이나 특별휴가를 배려해주었다. 그리고 《조선문학》편집원은 그 작품을 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러행가방을 메고 수천리나 되는 백두고원의 탐사현장에까지 달려왔었다.

하기는 그전에 발표한 문학작품들도 다 그러한 사회적혜택과 벼들의 고무속에서 쓴 글들이다.

나는 그후에도 매년 한달씩 창작휴가를 받고 우산장창작실이나 기타 안정된 장소에서 유능한 작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글을 써서 《조선문학》에 발표하곤하였다.

당에서는 현직맹원들과 문학신인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창작강습까지 조직해주었으니 세상에 이런 고마운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현직맹원으로 있을 때에도 자기가 장차 장중편소설을 쓰는 작가로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나는 현직맹원으로서 《조선문학》에 단편소설을 발표하는것만으로도 더 바랄것없는 최상의 행복으로, 과분한 영예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의 어릴적소망을 헤아리시여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말그대로 《도끼작가》에 불과한 나를 현역작가대오에까지 내세워주시였다.

만약 사람의 나이 40살을 기준으로 하여 인생의 전반생과 후반생을 가른다면 나의 현역작가생활은 청춘기가 다 지나가버린 후반생부터 시작되였다. 그러다보니 현역작가생활기간은 이제 19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 19년동안에 작가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리였고 받을수 있는 모든 영예를 다 받았다.

나는 현역작가생활을 하면서 장편소설도 쓰고 중편소설도 썼으며 나의 이름으로 《단편소설집》도 냈었다. (물론 걸작품을 쓴것은 없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멀리 북방 한끝에 있는 나를 가까이 부르시여 총서문학을 쓰는 4.15문학창작단의 작가로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신듯 얼마전에는 《김일성상》계관인의 영예까지 안겨주시였다.

너무도 과분한 영광을 받아안아서 나는 이 모든것이 꿈같이 생각된다.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당원으로, 작가로 키워주고 나라의 최고영예상인 《김일성상》의 영예까지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이제 아무런 세월이 흘러간들 내 어찌 이 사랑, 이 믿음을 잊을수 있겠는가.

이야기가 두서없이 흘러가는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것은 천하의 문제인 내가 어떻게 작가가 되고 그런 영예를 받아안게 되였는가 하는 그것이다. 그마운 사회제도가 있고 은혜로운 당의 사랑이 있고 탁월한 령도자의 현명한 지도가 있어 나는 작가가 되었고 우리모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였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것처럼 받아안은 영광에 비해 나는 해놓은 일이 적어서 지금 자책감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중요한것은 이제부터 더욱 건인불발하여 지난 기간에 하지 못한 일들도 다 벌충하면서 남은 한생을 빛나게 살아가는것이다.

하기에 나는 4.15문학창작단창립 30돐행사때에도 이렇게 결의토론을 하였다.

《...지금 뼈저리게 회회되는것은 피가 끓고 힘이 약동하는 젊은 시절에 장군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한것입니다. 그러나 로당익장이란 말이 있듯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저는 청춘의 패기를 잃지 않고 남은 한생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깡그리 바치고 이 한몸을 장군님을 위하여 다 불태우겠습니다. ...》

나는 동지들앞에서 다진 그날의 결의토론의 한 대목을 여기에 적는것으로써 두서없는 이 글의 결구를 대신하려고 한다.

600호를 내는 나의 존경하는 스승 《조선문학》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벗과 함께 걸어온 나날

백은팔

아직은 내가 어떤 사람이 작가로 될수 있는지 잘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다.

우리 마을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선에 나가 싸우다 돌아온 한 제대군관이 있었다.

다리에 부상을 당한 그는 새로 조직한 협동조합에서 회계과장사업을 하였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는것이 꽤 많은 그였지만 짬만 있으면 소설책을 읽었고 특히 잡지 《조선문학》을 자주 들고다니며 보았다.

그는 《조선문학》의 열성독자였다.

온종일 주산알을 튀기며 수자와 씨름을 하는 사람이고보면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회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강마르고 꼬장꼬장한게 일쑤이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타를 잘 타던 그는 감정이 매우 풍부하였다.

휴식일이면 동네아이들과 함께 강가에 나가 어죽도 쑤어먹었고 버들숲에 앉아 기타를 타며 전선에서 배웠다는 노래도 곧잘 부르곤하였다.

아마 문학서적을 많이 읽은 덕에 감정이 풍부한 인간이 되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그가 장차로는 회계일을 그만두고 작가가 되기 위하여 문학수업에 전념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소설이나 시를 쓰기 위하여 책을 읽은것이 아니라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열심히 독서하였다.

나는 그를 몹시 부러워하며 존경했다.

언제면 나도 어른이 되어 《조선문학》을 볼수 있을가. 그것만 손에 쥐면 회계과장못지 않게 지성의 탑을 높이 쌓고 작가로 되는 지름길에 쉽게 들어설것 같았다.

나는 회계과장에게 졸랐다.

회계과장은 나의 애원을 꽤히 수락하였다.

《읽으라구. 잡지에 실린 글을 하나도 빼놓지 말구 모조리 다 읽으라구.》

잡지를 얻어진 나는 정신없이 읽었다.

《조선문학》의 매 글줄마다에는 인간생활의 다양한 세계가 진실하고 폭넓게 담겨져있었다.

말그대로 《조선문학》은 나에게 풍부한 지식을 안겨주었다. 《조선문학》은 나의 생활과 떼여놓을수 없는 친근한 길동무가 되였다.

작가로 되려는 나의 욕망과 충격은 몇배로 커졌다. 나는 표절도 하고 모방도하면서 몇편의 글

을 써보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너무도 유치한것이였다. 천성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내가 작가로 된다는것은 어방없는 일이였다.

욕망이 곧 리상으로 실현된다면 누구나 자기의 념원을 쉽게 성취할것이다.

작가가 되려던 나의 소원은 한갓 꿈에 불과하였다.

문학의 세계는 무변광대하며 참말로 오르기 힘든 아득한 봉우리였다. 작가는 남다른 재능을 타고난 특정한 사람들만이 지닐수 있는 영예로운 칭호이다.

하지만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중에 진학한 다음에도 《조선문학》의 열성독자대렬에서는 빠지지 않았다.

머리를 흔들며 동요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않은 나는 군복을 입은 다음에도 군무의 여가시간에 문학서적을 읽는것을 잊지 않았다.

특히 잡지 《조선문학》은 내가 탐독한 유일한 도서였다.

부대에서는 내가 문학에 취미를 가지고있다고 사단에서 조직하는 문학강습이나 음악강습에도 참가시켰다. 나는 부지런히 공부하며 시도 써보고 병사들의 생활을 담은 재담과 촌극도 써서 써클무대에 올리기도 하였다.

나의 리상과 소박한 꿈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서 꽃피워주었다.

제대되어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던 나는 당의 은혜로운 손길에 이끌리어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과에 입학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배움의 교정에서 잡지 《조선문학》을 다시 손에 쥘수 있게 된 나는 열성독자가 되었다.

나는 문학의 기초와 원론들을 배우면서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방조를 받으며 창작수업을 본격적으로 하였다.

문학의 기초를 닦고 소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였지만 아직 작가로 되자면 먼 거리에 있는 나는 창작전문가라는 자격증을 받아안았다.

하지만 작가는 자격증을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창작실천으로 얻는 고귀한 칭호이다.

나는 작가동맹에 들어와 선배들의 각근한 지도와 방조밑에 소설의 진미를 더 깊이 터득하게 되었고 부지런히 습작하였다.

그렇게 몇년 도를 닦고 고심한끝에 단편소설 《추억》을 써서 잡지 《조선문학》에 투고하였다.

편집부에서는 나의 미숙한 처녀작이 정서적인 색깔이 짙다고 하면서 적극 장려해주었고 약점을 바로잡아주었다.

그리하여 나의 첫 단편소설 《추억》이 지상에 발표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이때의 나의 기쁨과 환희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온 세상을 다 얻은것 같은 나의 온몸과 마음은 높디높은 저 하늘로 뚝뚝 떠오르는것이였다.

소설창작의 묘미를 실천적경험으로 체득한 나는 단편소설 《자기가 선 자리》, 《전환의 봄》, 《사랑의 샘》 등 여러편의 작품을 련이어 《조선문학》에 발표하였다.

내가 쓴 소설이 《조선문학》에 실린것을 보고 제일 기뻐한것은 물론 그때까지 고향땅에서 부기장을 하고있던 그 제대군관아바이였다.

그는 휴가를 받고 고향에 내려간 나의 어깨를 그러잡고 개천에서 룡이 났다며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참말이지 산골농촌에서 태어나 자랐고 제대후에는 달구지를 끌며 농사를 짓던 이름없던 농장원이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었으니 꿈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나는 《조선문학》에 발표된 소설을 읽고 나와 첫 사랑을 맺었던 그전날의 애인이 써보낸 편지도 받아보았다.

그는 내가 제대되어 대학에 가지 못하고 《농포》가 되었다고 사랑을 배반한 리기심많은 녀자였다.

나는 직업을 가지고 사랑을 저울질하며 일생의 배우자를 선택한 그의 후회의 편지를 받아보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랑관과 행복관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았고 후날 그 이야기를 중편소설의 중요한 세부로 썼다.

참으로 《조선문학》은 내가 인생을 값있고 빛나게 살도록 고무해주고 이끌어준 생활의 진실한 길동무였고 나를 작가로 키워준 참된 스승이고 벗이었다.

나는 《조선문학》을 보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로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조선문학》을 읽으면서 작가가 될 꿈을 꾸었고

《조선문학》에 소설을 발표하는것으로 작가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조선문학》은 명실공히 나의 인생의 벗, 창작의 벗이라고 나는 당당히 말한다.

어느덧 환갑나이에 다 이른 나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이렇다할 작품 한편 변변히 쓴것없이 작가라는 고귀한 이름을 지니고있는데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조선문학》의 벗으로서 문단의 한성원으로 서있는것을 긍지롭게 자랑한다.

나만이 아니다. 우리 나라 작가들치고 《조선문학》과 인연이 없는 작가는 한사람도 없으며 그들 모두는 레외없이 《조선문학》을 통하여 작가로 성장하였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과 운명적인 뉴대를 맺고있는 《조선문학》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작가들의 재능과 풍격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잘못을 타매하기도 하면서 창작과 생활의 친밀한 동반자로 변함없이 걸어가고있다.

《조선문학》은 작가들의 성장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면서 우리 나라 문학운동에 커다란 기여를 한 공로많은 잡지이다.

그러나 《조선문학》이 쌓은 보다 큰 공로는 창간이래 당과 함께 수십년을 걸어오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사상과 리론의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였다는데 있다.

잡지 《조선문학》은 우리 당 문예전선의 전초선에 확고히 서서 매 시기 제기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지면에 민감하게 담아내고 작가들을 그 관철으로 힘있게 불리일으키었다.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다.

400호, 500호 발간을 위해 원고를 편집하느라 편집원, 기자들이 뛰어다니던 때가 엇그저께같은데 벌써 600호다.

600호이면 600달, 날자로 따지면 18,000여일, 《조선문학》은 그 멀고 자랑찬 로정우에 우리 당의 뜻과 의도가 담긴 천금같은 소설과 시, 예술산문을 싣고 문학운동사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조선문학》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문학으로 받들어 나가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우리 작가들의 창작의 벗, 생활의 길동무로 힘차게 걸어 나갈것이다.

잡지 《조선문학》에 첫 시가 발표되던 때로부터

신병강

지금 내앞에는 한권의 《조선문학》(주체71년 7호)잡지가 놓여있다.

이제는 15년전의 잡지이지만 다시금 펼쳐 가느라니 참으로 많은 추억과 감회가 떠오른다.

한장, 두장 번저가면 그날에 낮익은 작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시 《통일의 이름으로 빛나는 땅에서》가 나타난다.

이 시가 바로 잡지 《조선문학》지면우에 발표된 나의 첫 시이다.

왜서인지 심장이 쿵 소리를 내는것만 같다.

아, 그때 너무도 큰 기쁨에 그 잡지를 보물일도록 읽고 또 읽던 시절의 흥분때문인가.

세월은 흘러어도 잊을수 없다.

그때는 내가 인민군대에서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어 분계연선도시 개성의 한 예술단체 작가로 있던 때이다.

군사복무도 분계선초소에서 했고 제대되어서도 분계연선땅에서 생활하게된 그 탓이었는지 어디보다 분렬의 고통을 뼈아프게 느끼고있는 고장에서 생활한 나는 류다른 체험으로 통일주재의 시편들을 많이 썼다.

분계연선을 돌아보고은 저녁이나 또 부모형제들과 생리별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고은 그런날이면 나는 뼈저리게 갈마드는 민족분렬의 아픔으로 잠못들며 내탄의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는 얼마나 많은 시편들을 써보았던가.

하지만 그것은 시의 세계에 둘수 있다고 하기에 너무도 미숙한 자신의 몸부림에 불과한것이였다.

주체59(1970)년초, 갓 제대된 20대 홍안의 그 열혈청년이 품고있던 희망과 재능의 자그마한 싹을 귀중히 여겨 애지중지 퇴위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마다 문학에 뜻을 둔 수많은 문학통신원들을 위하여 창작강습을 조직해주시고 여기에 애어린 나를 불러 재능의 나래를 펴도록 해주시였다.

이름있는 시인들과 재능있는 작가들의 지도와 방조는 한그루의 애솔포기를 키우는데 영양소로, 밑거름으로 아낌없이 바쳐졌다.

썩은 자라오르고 뿌리는 뻗어내리기 시작했다. 황해북도 평안에서 진행된 첫 문학통신원강습에서 나는 짧은 시일안에 여러편의 조국통일주재의 시들을 창작도 하고 완성도 하였다.

거기서 나는 시 《10리강》을 창작완성하였는데 그 시가 잡지 《청년문학》에 발표되게 되였다. 그것을 기회로 그후 여러편의 통일주재시들이 발표되였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을 말하건데 그때 나는 여러지면들에 많은 시들을 내면서도 감히 《조선문학》잡지에는 시를 발표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 길은 시 전문가들이나 문단에서 관록있는 작가들에게만 속하며 나에게는 아직도 먼 앞날의 길이라고만 생각되었던것이다.

바로 그러한 나에게 자애로운 아버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주시였다.

감회도 새로운 주체69(1980)년 2월 23일.

꿈결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내가 쓴 시형식의 작품인 대화시 《저는 군당지도원입니다》에 대한 그의 지도를 받는 더없는 영광을 지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연을 다 보아주시고 친히 박수까지 보내주시며 작품을 아주 잘 썼다는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시기 전문가들이 이런 작품을 보고 코웃음을 쳤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호탕히 웃으시며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아, 이 얼마나 문학통신원들과 문학에 뜻을 둔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는 고무의 말씀이신가!

물론 서정시와 무대시는 엄격한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종자, 주제, 사상을 시적형상으로 꽃피우는 작품이라는데서는 같은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산악같은 힘과 무한대의 열정을 안겨주는 그 모든 원천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두려운것을 모르고 시를 쓰고 또 썼다.

그 나날 개성에 출장오는 시인들과 편집인들은 나에게 아낌없는 방조를 주곤하였다.

그리하여 시 《통일의 이름으로 빛나는 땅에서》가 드디어 잡지 《조선문학》에 발표되게 되였다.

첫 시가 발표된 두달후엔 《림진강의 밤 여울물소리》, 다시 두달후엔 《농립모에 대한 이야기》 등의 시작품들이 려이어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되게 되였다.

그것은 그대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무한한 힘과 열정이 낳은 창조물이었다.

신심과 용기에 넘친 나는 더욱 왕성하게 창작적 열정을 불태워갔다.

평양에 출장오는 기회가 생기면 출장준비와 함께 편집부에 제출할 시원고들을 차분히 정리하여 놓았고 평양에 올라와서도 친척방문이나 사사용무를 볼 생각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렬차에서 내리는 첫걸음으로 먼저 편집부부터 찾아가군했다.

그러면 편집원들은 늘 반겨맞아주며 시의 우열함을 분석해주었고 보다 훌륭한 시로 완성되어 발표되게 해주었다.

그렇게 한편 또 한편 나간 시들이 이제는 수십여편에 달한다. 거기에는 나의 성장을 말해주는 시초, 서정서사시 등 큰 형식의 작품들도 있다.

진정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간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관심과 배려속에서 발간되는 잡지 《조선문학》은 이름없던 한 문학통신원을 시인으로 키우는데서 하나의 큰 디딤돌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나는 요즘 깊어가는 밤이면 의례히 내가 사는 통일거리의 층높은 살림집창가에 서서 불야성을 이룬 수도의 전경을 바라보며 분계선초소의 병사로부터 작가가 된 오늘에로 내가 성장해온 나날들을 감회롭게 추억해보곤한다.

그러면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3년상을 계기로 내가 쓴 서사시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를 친히 보아주시고 주신 분에 넘친 말씀의 구절구절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지며 눈시울이 젖어온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속에 낮과 밤을 보내시는속에서도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묵음으로 57분이나 되는 그 긴 서사시를 다 들어주시고 최상의 믿음과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시가 좋다고, 이 서사시를 쓴 작가가 재간이 있다고, 그가 시를 아주 잘 썼다는 정녕 한가슴

에 받아안기엔 너무도 벅찬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시를 잘 썼으면 얼마나 잘 썼으랴!

나에게 시적재능이 있다면 또 얼마나 있으랴!

내가 걸어온 창작의 길, 나에게 차려진 그 모든 영광은 오로지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마련된것이 아니던가.

자애로운 손길로 이끌어주시여 오늘과 같은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시고도 그토록 과분한 치하를 주시었으니...

이것은 새 세대 젊은 작가의 성장이 그리도 대견하시고 기쁘시여 앞으로 더 좋은 시를 많이 쓰라는 아버지의 당부이며 그것을 믿으시는 위대한령장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앞에 나의 심장은 불타고있다.

앞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수있는 작품을 쓰고 또 쓰리라!

나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잡지 《조선문학》과 함께 걸어온 우리 작가들의 자랑스러운 행로우에 나의 작은 발자국도 찍혀있다는

궁지와 자랑을 안고 혁명적시가의 붓으로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노래하고 인민군장병들을 수령결사옹위의 한길, 조국통일의 결전으로 힘차게 부르는 전투적인 시작품들을 더 활발히 창작하겠다는것을 결의하는바이다.

내 마음의 목소리

(총련)로진용

대지진을 만나 모든것을 잃고
피난온 가설주택 한칸방에서
외로움에 이 홀몸이 무너져내릴 때
조용히 울려오는 마음의 목소리

그러지 말거라, 네가 어이 외로우랴
령하의 거리에 쫓겨난 바로 그때
세상에서 제일먼저 위문금을 보내주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늘도 굽어보신다...

거리마다 요란한 반공화국소동
보이는 대서특필 울리는 방송소리
두눈은 따갑고 두귀가 아플 때
조용히 울려오는 내 마음의 목소리

생각해보아라, 이 땅이 어딘지
하마트면 앉은뱅이, 벵어리로 버림받을
불구의 이 몸을 안아주고 끌어주고
보란듯이 세워주신 조국인가...

내 찾았던 이전 사회주의 어느 나라
본색없는 하늘에 어지러운 회오리바람
가슴이 미여지고 숨조차 막힐 때
또다시 울려오는 내 마음의 목소리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돈없어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을
일자리 잃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을
얼마나 판이한가, 장군님의 나라와는...

내 오늘 다시 조국의 품에 안기여
공산주의 초행길을 이를 사려물고
백두의 솟는길 행군하던 그날처럼
허리띠를 졸라맨 인민들과 대할 때

아, 내 마음의 목소리 쟁쟁한 목소리
하늘땅이 뒤바뀌어도 살려낸 이 몸
숨겨둘 그 순간에 심장으로 불려야지
아, 나의 장군님! 아버지장군님!

붉은기정신이 구현된 우리 소설문학

김성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 기폭은 오늘 우리 주체의 소설문학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며 힘차게 나뭇기고있다. 그 붉은 기폭의 찬란한 광채와 힘찬 퍼덕임은 그대로 우리 소설문학의 알찬 종가들에 비끼고있으며 주인공들의 성격속에 깊이 되어 깃들고있다. 이 붉은 기정신을 안고 개화발전하여온 주체의 소설문학은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오늘의 《고난의 행군》에서 부닥치는 온갖 장애를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으로 과감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에 대한 불패의 신념을 지켜온 무비의 영웅서사시로 엮여져있다.

그가운데서도 잡지 《조선문학》을 불퇴진의 《전호》로 삼고 붉은기 휘날리는 주체의 사상진지를 지켜온 전투적인 단편소설문학은 우리 문학의 년대기에 길이 빛날 불멸의 자옥을 새겼다.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불타는 심장의 기록인 최근호의 단편소설들을 더듬으며 우리는 붉은기문학의 전투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게 된다.

1. 가장 숭고한 충효심의 분화 구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피눈물의 바다우에서 조국의 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작가들의 눈에 우렁이 안겨온것은 붉은 기폭에 휩싸여 밝은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이었다. 그 찬란한 태양의 모습을 우러러보며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되찾았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자옥을 더듬어 영생하는 태양의 모습을 소설에 담기 시작했다. 잡지 《조선문학》의 매호마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단편소설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일떠선 충신, 효자들의 모습을 그린 단편소설들이 연이어 실리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을 안고 심장의 붉은 피를 붓에 찍어 한자한자 적어나간 글줄마다에는 붉은기문학의 최고정화인 가장 숭고한 충효심이 뜨겁게 분출하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었다.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오랜 역사적과정에 실지체험을 통하여 신념과 의지, 량

심과 도덕으로 굳어진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김일성민족의 훌륭한 민족성의 최고표현으로 되고 있으며 김일성민족의 모든 우수성의 근본바탕을 이루고있다.》

생활을 통하여 신념과 의지, 량심과 도덕으로 굳어진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치는 높은 단결정신,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신념,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 온 사회가 한식솔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비롯한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우수성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수령을 충효일심으로 받드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그려내는것은 우리 붉은기문학의 최우선적과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잡지 《조선문학》에는 《만민의 하늘》(김명희), 《상봉》(리희남)을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을 형상의 중심에 높이 모신 작품들과 함께 《개선문》(강철), 《기다리는 계절》(한웅빈), 《그들의 마음》(리태렬), 《단풍계절》(조정서), 《신기령》(손광영)등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 관철에 헌신적으로 떨쳐 나신 인민의 모습을 감명깊게 그린 작품들이 수많이 실리었다.

이 작품들은 그 종자와 주제, 성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영원히 깨뜨릴수 없는 수령과 인민사이의 혼연일체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려는 공통된 지향으로 일관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뿔레야 뿔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를 생동한 역사적사실을 통해 확증하고있다.

단편소설 《상봉》(리희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산지구를 현지도하시는 기회에 20여년전부터 알고계시던 《애학운동》의 선구자인 대형자동차운전사 리종구를 만나보시려고 먼길을 에돌아 몸소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리종구를 70년대가 요구하는 대중운동의 발기자로 내세워주시고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도 주고 당에도 받아들이도록 해주셨으나 아직 한번도 직접 만나보신적은 없으시었다. 그러나 리종구를 자신의 심중에 깊이 새겨두시고 자신께서 것처럼 걱정하던 문제를 풀어준 고마운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도리로 보아도 그와의 상봉을 지체시킬수 없다고 생각하시었다. 나라일

때문에 껍 다망하신 나날을 보내시다나니 리종구를 만나보지 못하신채 팔손이 넘은 오늘까지 20년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그 사람도 껍 늙었을것이었다.

혁명의 길에서 전혀 만난 일이 없어도 한생의 지기처럼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중의 하나인 리종구와의 류다른 상봉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것인가.

그토록 바라시던 즐거운 예감은 뜻밖의 비보로 바뀌어지고 마음속에 그리시던 전사와의 상봉은 절벽에서 튀어나는 비발처럼 헛되이 부서지고 말았다. 리종구는 두달전에 보름동안 병으로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심장이 푹 멎는듯한 슬픔을 체험하시며 깊은 후회에 잠기신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내 그를 평양에 불러서라도 만나볼걸...)

지나온 한생을 돌이켜보면 자신께서 걸음이 늦어지는 이런 상봉을 드문히 당해보군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무산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책임자로 파견해주시였던 조운화호도 그러했고 연길폭탄을 만들다가 두눈을 잃고도 바이올린을 둘러메고 대중속에 들어가 놈들의 허위선전을 폭로하며 김일성장군님 소식을 알려주다가 체포되어 희생된 손원금이와도 그랬다. 이번엔 기어이 만나서 쌓였던 회포도 나누고 못다주신 정도 기울여주시려고 했건만 찾아가면 벌써 저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상봉이 아니라 지금처럼 가슴아픈 미련을 남기게 되는 《류다른 상봉》...

분명 상봉은 산 사람들사이에서만 잇게 되는 인간사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무엇때문에 이런 이야기에서 《상봉》이란 제목을 달았는가. 차라리 《작별》이라고 해야 어울리지 않겠는가. 아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서는 언제 한번 그들이 떠나가본적이 없었다. 어느 한 순간에도 인민과의 작별을 모르시는 수령님이시기에 비록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이의 크나큰 심장속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별처럼 새겨져 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리종구를 대신하여 달려온 둘째아들 준수를 한품에 그리안으시고 뜻깊은 말씀을 하신다.

《내 비록 한걸음 늦었지만 나는 지금 준수를 통해 저 한점의 노을과 같은 리종구들을 보고있습니다. 그들의 님때문에 오늘 이 땅이 이처럼 아름다와지지 않았습니까.

인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훌륭합니다. 력사는 웅당 인민에게 불멸의 기념탑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인민에 대한 축복! 이것은 내 한생의 의지입니다.》

이처럼 소설은 수령과 인민의 영원히 작별을 모르는 혈연적뉴대를 격조높이 형상하고있다.

생전에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심장속에서 어느 한시 작별을 몰랐던 인민이기에 그 인민의 심장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원히 떠날줄 모르신다. 너무도 크나큰 상실의 공간을 그 작은 가슴으로 조금이나마 메꾸어보려는 한마음을 안고 애어린 몸으로 정든 평양을 떠나 심심산골의 청년분조로 떠나가는 한 처녀를 형상한 단편소설 《개선문》(강철), 역시 한평생 인민생활을 두고 그리도 걱정하시며 농장길을 떠날줄 모르시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평양에서 농촌에 진출한 손녀의 뒤바라지를 위해 함께 농촌에 뿌리 내리는 할머니의 간곡한 심정을 그린 단편소설 《그들의 마음》(리태렬), 언제든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셨던 논두렁길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찾아주시리라는 믿음을 안고 논두렁손질을 정성껏 해나가는 로세대물관리원의 모습을 담은 단편소설 《기다리는 계절》(한웅빈) 등의 폐지들에는 인민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가장 고결한 충효심을 안고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감동적인 형상이 빛나고 있다.

단편소설 《기다리는 계절》은 참으로 인상깊은 세부묘사를 통해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가는 박령감의 모습을 생동하게 부각시키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기 직전인 1993년에 연백벌을 찾아오시여 풍년든 낱알을 보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다음해에도 풍년이 들면 꼭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밟으셨을 논두렁은 거칠고 미끄러운것이었다. 농사군의 일본새는 발머리와 논두렁에서 알린다는데 이 논두렁이 우리 수령님께 만족을 드리고 수령님의 걸음을 편하게 해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것인가.

다시는 오시지 못할 길로 어버이수령님을 바래드린 지금 논누렁알에 선 박령감의 마음은 몹시 아프고 쓰리기만 했다.

《내 한평생 농사를 지었으면서두 농사가 무엇인지 모르고있었구만. 농사라는게 그저 땅에 씨앗을 묻구 싹튀워키우구 낱알을 거두는것으로만 생각했지. 무심했어, 무심했지. 돌처럼, 산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가꾸는 낱알은 무엇이었던가. 그 한알한알의 낱알에서 우리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행복을 보고계시였다. 이 땅에서 자라는것은 낱알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이고 념원이였다. 하기에 박령감은 환갑나이에 다시 농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다졌고 수령님의 고귀한 발자취가 어린 논두렁을 제집 부뚜막처럼 알뜰히 고루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연백벌에 풍년이 들면 꼭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 한번 인민들과의 약속을 어기신적이 있었던가. 이 들에 낱알이 땅이 꺼지게 실린다

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꼭 오실것이다. 눈물로는 수령님을 다시 오시게 못해도 풍년날알로는 꼭 다시 오시게 할수 있다! 이것이 박령감의 굳은 믿음이었다.

바로 이런 신념을 안고 인민은 수령님의 유훈 관철에 일떠섰으며 그 뜨거운 충효심의 분화구속에서 길이 영생하시는 아버지수령님과 인민의 영원한 상봉은 마련되었다. 참으로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속에서 영생의 비결을 밝혀내는 심오한 생활철학이 이 속에 빛나고있다.

이러한 뜻깊은 진리는 단편소설 《신기령》(손광영)에서도 감동적으로 천명되고있다.

눈개비를 맞으시면서 멀고 험한 령길을 찾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이 령길을 매일 넘어다니는 류벌공들때문에 마음놓으시지 못하면서 령길관리를 잘하는것이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동계급에 대한 관점문제이며 령길문제는 하나의 류벌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날의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심장에 새겨안고 도로관리원 라정규는 남이 보지 않는 령을 지켜 40년세월 성실하게 령길을 지켜왔다. 헛되이 흘러보낸 인생을 두고 후회하기전에 마음을 돌려 때목을 타라고, 그러면 아마 영웅도 될수 있으리라는 옛전우의 권고도 물리쳤고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도 이전같지 않으니 편한곳으로 옮기자는 안해와 자식의 애원도 물리쳤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를 이 령길에서 듣게 되다니? 피눈물을 뿌리던 라정규는 이제는 영영 이 령길을 떠나겠다고 마음먹고 도시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떠났다.

소설은 그러던 라정규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새해의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또 설날아침 아들네 부대를 몸소 찾아주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끝없는 자책속에 자기를 낚아치는 모습을 그리고있다. 난 충신이 아니였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 남아있는데 이 신기령을 뜨려고했으니...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 신기령을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

언젠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옛날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오셨던 그날처럼 문득 이 령길을 찾아오시리라는 믿음을 안고 라정규와 그의 온가족은 신기령에 깊숙이 뿌리박은 거목과도 같이 대를 이어 신기령을 말아나서는것이다.

그 어느 소설을 펼쳐보아도 이러한 충신, 효자들의 감동적인 형상을 찾아볼수 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예술적견지에서는 만족할만한 감흥을 받지 못했다. 평정히 관찰해본다면 소설자체의 형상수준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였다. 주인공들의 성격적높이도 있고 주제사상의 철학적심오성도 있었다. 그러면 이 불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어떤 작가의 재능으로서도 도저히 따를수 없는 벽찬 현실이 형상을

압도하고 있었기때문이었다. 이 현실을 실지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술한 작품들의 형상이 너무 과장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리상화된 주인공들이라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한다. 여기에는 과장도 없고 리상화도 없다. 오히려 우리 수령님과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혈연적관계와 열화같이 솟구쳐오르는 충효심의 분출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너무도 미약한 형상인것이다.

2. 총대와 사람

붉은기정신은 혁명적군인정신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억세게 나뭇기는 혁명의 붉은기가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우리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주시였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주시였다.

잡지 《조선문학》은 혁명적군인정신이 높뛰는 전투적인 단편소설들로써 자기의 폐지들을 장식함으로써 붉은기문학의 전초선을 지켜선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였다.

조선의 3대장군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붉은 기발아래 높이 올리신 백두의 총성, 혁명의 퇴성을 담고있는 우리의 전투적인 단편소설문학은 총대에 비낀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한 주옥같은 형상으로 빛나고있다. 붉은기문학, 총대의 문학을 주체의 소설문학의 중심에 확고히 세워준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문학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다.

총대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우리 소설문학은 최근년간 단편소설 《너전사의 길》(조근), 《봄노래》(박춘섭), 《생활의 수업》(박운), 《별》(리정수), 《한 녀교원의 사랑》(석남진)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로서 잡지 《조선문학》의 전호를 훌륭히 꾸리였다. 이 작품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다수가 군인이 주인공으로 되어있고 준엄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진지를 지켜가는 침예한 현실을 담고있으나 사랑과 인정의 질은 향기에 휩싸여있다는것이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 총대는 강철로 되어있고 총알도 강철로 되어있다. 그것처럼 군인의 심장도 강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때까지 공인되어온 군인철학의 기본내용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총대를 주제로 한 우리 작품들에서는 강철로 된 총대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총대를 잡은 인간들에 대해 말하고있으며 그 인간들의 심장에 강철의 의지를 안겨주는 참된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군인은 자기를 무장시켜준 강철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 애인과 미래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강해지는것이다. 이러한 사랑이 비낀 총대만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위하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낼수 있다.

단편소설 《너전사의 길》(조근)에는 수도의 하늘을 지키는 한 녀성고사포구분대의 지휘관이었던 강운심이가 뜻밖의 부상으로 하반신마비의 불구로 되었으나 상급참모 명도철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다시 대오에 들어서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져있다. 그들의 사랑이 그토록 승고한 높이에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삶의 좌표를 밝게 조명해주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담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것으로 될수 있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되는 사랑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께수 없는 무한히 고상하고 위대한 정신세계에 기초하여 솟구쳐나온것이다.

운심이가 도철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불구로 된 자신을 두고 그의 결혼제의를 굳이 거절해나섰을 때 도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 걱정을 끼쳐드리진 마오. 전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분이지오. 그런분께서 한 녀전사가 침상에서 홀로 나이를 먹고있다는것을 아신다면... 죄스럽소. 아직도 피눈물을 그대로 안고계신 장군님이시오. 우리 포에 장군님을 모시여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할마정 괴로움을 끼쳐드리셔야 무슨 장군님의 전사, 장군님의 제자겠소. 부끄럽소.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던 그 녀성소대장동지앞에 말ियो.》

운심은 비로소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제 몸을 감싸고있던 자기 기만의 허물을 벗어버린다. 단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세속적인 견지에서 본 사랑은 그로 하여금 장차 도철이와의 부부생활에서 당하게 될 정신적고충과 자기 번민을 두려워하게 하였고 그것을 피하여 홀로 편안히 근심없이 살려는 나약한 길을 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궁지높은 삶을 누려가려는 혁명적인 인생관의 견지에서 본 사랑은 세속적인 감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힘겨워도 나날이 중대결에, 동지들결에, 포결에 다가가는 보람찬 길을 택하게 하였다. 운심은 도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가 밀어주는 삼륜차를 타고 그림던 포진지를 찾아갔으며 1포의 검푸른 무쇠덩이를 쓸어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쏟는다. 이때 불현듯 그의 다리에 힘이 알리기 시작했고 두손을 뻗쳐 포신을 꼭 그러잡은채 운심은 드디어 일어서게 되는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충효의 감정속에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더욱 순결하게 정화된다...

이러한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단편소설 《한 녀교원의 사랑》(석남진)에서도 계속된다. 나이가 36살, 조국이 통일되는 때까지 병사로 살

겠다고 편이어 제대명령을 거부하고 군대복무를 계속해온 병사 황명진에게는 역시 그를 기다려 10여년간 순결한 사랑을 바쳐온 처녀교원 금숙이가 있다. 무엇이 금숙이로 하여금 서른이 썩 넘도록 오직 명진이만을 생각하며 자기를 지킬수 있게 하였는가. 그 역세고 열렬한 사랑의 밑바닥을 관통하고있는 정신은 무엇이었던가.

명진은 그저 수수한 보통병사, 이름없는 영예군인로병의 아들이였다. 그 어떤 특별한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그에겐 없었다. 그러나 그에겐 보통사람들로서는 쉽게 간직할수 없는 크고 뜨겁고 역센 심장이 있었으니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병사로 살려는 승고한 헌신성과 애국의 일념이였다.

군사규정에 의하면 병사는 결혼할수 없다. 지금껏 명진이가 그 어떤 처녀에 대해 생각한적이 있었다면 그건 오직 금숙이 하나뿐이였으나 그는 언제까지라도 병사인것이다. 이 불같은 심장의 고백앞에서 처녀도 이렇게 고백하였다. 《알고있어요. 하지만 저도... 병사예요. 언제까지 라도...》

이런 정신으로 관통된 사랑은 아름다운것이다. 동시에 그 무엇에도 비길바 없이 강한것이다. 그것은 한생을 서로 합칠수 없는 량기슭에 갈라선대도 심장과 심장을 타고 흐르는 사랑의 열정으로 하여 자기를 지켜낼수 있는것이다.

소설은 바로 이런 사랑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 있었음을 감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런 사랑은 반드시 값진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천명하고있다. 전연지대의 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한 병사의 위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게 공화국영웅 칭호와 함께 상위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진짜 영웅이며 우리 나라의 자랑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신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해 가는 길,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 참다운 청년전위들이 가는 이 길에서 그들의 결혼도 실현되였다.

이러한 사랑의 뜨거운 불꽃은 단편소설 《별》(리정수)의 주인공들인 현희와 경희의 사이에도 튀고 있으며 단편소설 《봄노래》(박춘섭)의 주인공들인 기학과 그의 고향마을 《팔랭이》 처녀 사이에도 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쥐여주신 총대를 틀어잡고 조국과 인민을 지켜나선 군인들의 심장속에 깃들인 이 참된 사랑의 의미, 사랑의 힘을 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참신한 생활적인형상으로써 감명깊게 밝혀낸데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차넘치는 붉은기문학의 또하나의 본질적면모가 있는것이다.

총대와 사랑의 철학은 혁명군대의 대렬안에서 지휘관과 지휘관, 지휘관과 전사, 전사와 전사들 사이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화폭속에도 구현

되어있다. 이 점에서 단편소설 《생활의 수업》(박윤)은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소설은 그 주제사상의 심도에서 형상의 생동성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는 성과작이다.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된 《나》는 중대장 김삼덕과 전사 박철남과의 관계에서 참된 동지적 사랑과 의리를 꽃피우고있는 뜻깊은 예술적전형이다. 그는 자기 친부모에게 부닥친 불상사를 돌보기에 앞서 한 전사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 그의 고향에 갔다왔다. 전사들이 지휘관을 이해해 줄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사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의 신조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바라시는 전투도덕적품성의 하나였다. 하기에 그의 이 신조앞에서 전사 박철남만이 아니라 중대장 김삼덕도 크게 감복되게 되는것이다.

이런 사랑으로 굳게 뭉친 혁명대오는 강철같이 억센 법이다. 그들은 죽음도 이기고 자기 수령이 안겨준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을것이다. 이런 믿음을 안겨주는데 이 소설의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

우리의 전투적인 단편소설문학은 이러한 사랑의 정신우에 꾸려진 우리 인민군대는 전투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불멸의 위훈을 창조하는 혁명의 미더운 기둥으로 되고있음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3. 래일을 위한 오늘

붉은기정신은 《고난의 행군》 시기 력사에 유례없는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나가며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라관주의, 고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다. 오늘의 우리 붉은기문학에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의 인생관을 구현한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고있다. 단편소설 《바다사람들》(김은옥), 《래일을 안고산 사람》(손광영), 《생활의 시작점에서》(한형수) 《푸른 제방》(변월녀), 《제주도의 동백꽃》(양의선)등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흐르고있는 주제사상적지향은 자기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효심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락관에 기초하여 헌신적으로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나가는 인간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이다. 래일을 위한 오늘의 의미는 무엇인가. 비록 자기 대에는 그 락을 보지 못한다 해도 후대들의 삶에 기쁨진 터전이 되고 한줄기 빛발이 될수 있다면 서슴없이 자기의 모든 귀중한것을 다 바쳐가는 숭고한 자기 희생성인것이다.

단편소설 《래일을 안고산 사람》(손광영)의 주인공 리정현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 소설은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신심

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고있는 현시점에서 자기의 한생을 바쳐 소문없이 동발림을 키운 재령산림보호원과 그의 소원에 따라 탄부가 될 결심을 표명해나선 아들의 감동적인 소행이 형상되어있다.

리정현의 고향은 파도소리를 지척에서 들을수 있는 강원도 원산이었다. 제대되어 고향으로 가던 길에 그는 열차방송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논까비 내리는 령길을 걸으시며 손수 탄광위치까지 잡아주신 천동땅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련일 탄원해간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제날 일선 초소에 섰던 제대군인들이 서야 할 위치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석탄문제를 푸는곳이라는 자각을 안고 조국의 앞길에 밝은 빛과 열을 주는 석탄을 캐는 탄부가 될 결심을 다지며 천동으로 왔던것이다. 그런데 새 탄맥을 잡기 위하여 준엄한 자연과 겨루는 굴진의 길을 힘겹게 걸어야 했던 어느날 정현은 기울어진 현수동발을 어깨로 떠받들어 막장과 함께 동지들을 구원하고 병원에 실려갔다.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더는 막장에 들어가 착암기를 잡을수 없는 몸이 되었다. 자기가 목숨으로 지켜낸 막장에서 자기가 구원해 낸 동지들이 정현의 이름으로 탄을 캐고 또 캐지만 정현은 단 한번만이라도 직접 착암기를 잡고 막장에 서고싶어 몸부림을 쳤다. 하루하루 값없이 보내는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해 막장에서 마음껏 석탄을 캐는 보람찬 오늘을 되찾을수는 없는가.

어머니가 성한 몸이 아닌 아들을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정현은 탄광을 떠났다. 그로부터 20여년... 정현에게서는 소식이 없었다. 정현은 나라의 혜택속에 한생을 편안히 살수 있었던 그 나날에도 스스로 재령의 산림보호원이 되어 무성한 동발림을 키우며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인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다 자라 청년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그토록 소원하였던 탄부가 되라고 탄광으로 자원진출하도록 하였던것이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언제나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수령님의 높은 뜻을 관철하는 한길에 온 몸을 깡그리 불태워 헌신하고도 성차지 않아 후대들까지 그 길에 내세우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았다고 자부할수 있다.

소설에는 리정현이 탄광을 떠나 고향으로가 아니라 재령의 림지로 떠난뒤에 그 어떤 인생고초를 다 겪으며 무성한 동발림을 키워냈는가에 대하여서는 별로 형상되지 않고있다. 그대신 영광의 절정에 오른것은 현재의 탄광지배인인 전우재봉이다. 그렇다고 하여 소문없이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 정현의 형상이 흐려지는것은 아니다. 그가 남 모르게 걸어온 위훈의 행로가 얼마나 값있고 보람찬것이였는가 하는것은 그가 대준 동발로 개척해 나간 껥도를 따라 사랑하는 전우들이

걸어간 창조와 위훈의 력사가 보증해주고있으며 부강번영하는 오늘의 조국이 확인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뜻깊은 형상은 단편소설 《바다사람들》(김은옥)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젊은 연구사 장진규가 새로운 양망기를 연구도입하기 위한 시험은 해를 거듭하면서 실패만을 가져왔다. 다른 배들에서는 련이어 물고기잡이기록을 올리는 때에 양망기시험에 몰두하고있는 배에서는 연신 앓은방아만 짙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성공이란 저 수평선과도 같은것이다. 다가서면 멀어 지고... 물러설가 하면 유혹하듯 손저어부르고... 하기에 한때 연구사업에서 멀미를 일으키고 배를 떠났던 진규가 끝내 다시 새 방도를 찾아가지고 돌아올수 있었고 성공의 열쇠를 마침내 틀어잡고야마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거칠면서도 이악하게 정을 주고 등을 떠밀어주던 바다사람들, 선장 최민과 바다처녀 순아의 진정과 사랑이었던가. 물론 그것도 꼽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저 거세찬 날바다우에서 인민을 위해 고기를 잡는 어로공들이야말로 제일이라고 몇번이나 엄지손가락을 내흔드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웅심깊은 사랑과 믿음이였고 수령님앞에 어로공들을 내세워주시며 하루빨리 어로작업을 개선시켜 어로공들의 힘든 일손을 덜어주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다심하신 인정과 심려였다. 그날 수령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에서 아버지수령님의 해빛같이 밝은 미소와 격려의 말씀과 비에 젖은 옷자락을 보고 우리 어로전사들을 지켜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다심한 눈빛을 뵈는것 같은 뜨거운 체험을 안고 진규는 새 양망기시험에 뛰어들다.

소설은 오늘의 《고난의 행군》길에서 주저와 락망을 모르는 승리의 래일을 확신하며 과감히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락관주의의 기초에 놓인 가장 숭고한 충효심의 세계를 참으로 인상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혁명하는 사람들의 불굴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준 작품의 하나로서 단편소설 《제주도의 동백꽃》(양의선)도 반드시 언급해야 할것이다. 이 작품은 최근 잡지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들 가운데서 그 주제명령으로 보나 양상으로 보나 좀 이채로운 작품이다.

이 소설은 주체37(1948)년 9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던 력사적 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남조선혁명가 강규찬, 고진히부부의 투쟁이야기를 소재로 하고있다.

조국의 남단 제주도에서 우리 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선거에 마지막 한사람까지 참가시키고 그 선거자명부를 가슴에 품은채 사선과 사선을 넘어 평양으로 찾아온 고진히녀성의 불사신의 형상은 실로 가슴뜨겁게 그지없다. 연약한 녀성의 몸으

로 원썬들의 살벌한 경계망을 헤치며 수십개의 섬과 수령관을 지나 험한 산밭과 여울물을 극복하며 드디어 38선을 넘어 섰을 때 그는 드디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백지처럼 해쓷하고 여윈 얼굴에 찢어진 저고리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어깨며 너털너털해진 치마기슭에 드리운 가느다란 다리... 그는 분명 산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몇번이고 꺼지려하는 생명의 불꽃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그 험난 한 행군을 계속하게 하였던가. 눈물많은 설음많은 운명의 수령창에서 인민을 건져내시여 은혜로운 내 조국의 품에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충성의 일념이었다. 위대한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날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밝은 래일에 대한 락관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소설을 단순히 조국통일주제작품이라 부를수 없다. 소설은 력사의 시점에서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투시하면서 오늘의 시련을 과감히 넘어 래일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고무추동하는 강력한 사상적 량식으로 되고있다. 《고난의 행군》은 이제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다. 항일의 선렬들이 처음으로 이 길을 개척했고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전사들과 조국통일렬사들이 또한 피로써 이 길을 걸었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려는 혁명적인생관이 그들의 간고한 발걸음을 부추겨주었다. 바로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계속하고있다. 붉은기정신으로 심혼이 불 탈 때 우리는 반드시 **김일성**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것이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적인 생활을 예술적으로 구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련의 부족점들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 많은 단편소설들이 창작발표되었지만 오늘의 《고난의 행군》로정에서 발휘되는 영웅적인민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품도를 만족하게 반영하였다고 말할수는 없다.

우선 오늘의 현실이 보다 방불하게 안겨오는 진실한 생활이 탐구되어야 하겠고 《고난의 행군》정신을 다각적을 심도있게 밝힐수 있게 주제도 보다 심도있게 제기되어야 할것이다. 우에서 언급한 성과작들의 경우에도 몇구절만 빼버리면 《고난의 행군》이전에 창작되었다고 하여도 무방할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욕심이다. 붉은기문학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자면 끊임없이 요구성을 높여야 하겠다는 자각만을 깊이 간직하고자 하는것이다.

×

붉은기는 나날이 더 진하게 물들여지고 더 세차게 나뭇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기수가 되시여 시대의 폭풍을 맞받아안고 높이 추켜드신 혁명의 붉은기, 신념의 붉은기! 그것은

우리 주체의 소설문학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며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더 대담하게, 더 열정적으
로 시대를 구가하는 전투적인 단편소설을 쓰도록
고무하고 있다.

참다운 붉은기문학, 주체의 소설문학을 건설하
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작가들의 혁명적량심을
정화하고 **김일성**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충효심의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것이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고 부단히 앞서나가
면서 혁명적 량만과 정서로 넘치는 참문학, 락관
의 문학을 창작하는것이다. 그럴 때만이 잡지
《조선문학》은 영원히 붉은기를 지켜가는 사회주
의사상진지, 주체의 사상진지의 빛나는 초소로
그 영광을 길이 펼쳐갈것이다.

나를 알려거든

김철

가까이 한구들에 손자들이 자라고
먼 다른 고장에 외손들도 커간다
이제 세월이 더 흐르면
사진첩갈피에서 나를 짚으며
이 사람은 누구냐고 묻는 애도 생기려니
그래 과연 나는 누구, 어떤 사람인가

살아온 먼길이
인생의 첫기슭이 떠오른다
해방된 조국, 들레이는 강산...
-민중의 기 붉은기는...
이 노래 크게 따라부르며
쳐다보았지
사람들 떼지어 밀려가는 앞장에
펼 펼 나뭇기는 붉은 기발을

백두의 선혈이 물든 기발
위대한 수령님 들고오신 기발
아, 그 붉은 기폭에 마치고 닳과 붓
마치고 닳과 붓이 하나되어 안길 때
나는 정녕 자기가 가야 할
필생의 끝은 길을 내다보지 않았던가

살아왔노라 그 기발밑에서
진정 사람다운 삶을 누리였노라
전화의 나날에는
그 붉은 혈조에 나의 피도 방울방울
건설의 년대들엔
그 더운 열기에 구슬땀 아낌없이

다른 어떤 길과도 타협할수 없고
그 누구의 배신도 허용할수 없기에
그 기발 총대마냥 고누며
노래했노라
-비겁한자야 같다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오, 위대한 기수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러러 다진 맹세 거기 불타고
목에 칼이 닿는대도 눈에 흠이 덮인대도
버리지 아니할 지조와 량심이 거기 있어

사노라 내 오늘
헐거워진 띠를 다시 조일지언정
흰 기발, 누런 식탁엔
결코 허리굽히지 않는 존엄높은 삶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포위봉쇄
그 먹구름 그 미친 바람도
맞받아 물리치며 누리에 웨친다

-붉은기는 **김정일**!
사회주의 만세!

오, 이 소리 이 웨침을
듣느냐 후대여 동터오는 새 세기여
지켜낸 붉은기
승리한 사회주의
무궁번영강성할 주체의 내 조국은
네게 말해주리라

백날만이 아닌 천날만도 아닌
반세기를 헤아리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길을
오직 붉은기와 더불어 끝까지 견고걸은
자그마한 이 사람이
바로 너의 할아버지 오늘의 나라고!

하거니
사랑하는 나의 피출들이여
후날 너희들이 나를 알려거든
너희 머리우에도 펼 펼 나뭇길
우리의 당기를 쳐다보아라
그 붉은 기폭에 내가 산다
그 큰 기발에 너희도 산다

조선의 선언 외1편

김석평

월가의 황금을 다 모아도 살수 없으리
온 세상에 다 합쳐도 얻지 못하리

인류의 악한들때문에
너무도 많은것을 잃은 인민이기에
더이상 잃을것이 없는 인민이기에
너무도 많은것을 찾아야 할 인민이기에
허리띠를 조이며 이를 악물고
영웅조선이 이룩한 빛나는 재부

황금으로 살수 없고
시간으로 얻을수 없는
우리의 힘 우리의 재부
우리는 자랑한다 일심단결을

그 어떤 현대적무기에도
요격되지 않을 우리의 일심단결

온 세상에 그 위력 떨치나니

백두의 장군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
하늘땅에 번개를 일으키며
결전의 명령 내리시면

온 세계는 보게 되리라
영웅의 나라 조선이
민족의 존엄을 어떻게 고수하는가를
세계의 정의를 어떻게 지켜내는가를

일심단결
조선은 이 무기로 원썩을 쳐부시리라
일심단결
조선은 이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리라
지구의 평화를 지켜내리라

믿음

묻지 않으셨더라
반년걸릴 용광로 대보수를
한달에 해낼수 있다는
용해공들의 맹세를 들으시고

묻지 않으셨더라
우리의 장군님께서
어떤 묘안이 있는가고
어떤 타산이 쏘는가고

그이의 심중에 하많은 말씀 계시련만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 심장을 더 크게 울려준 그 믿음
-용해공들은 맹세를 지킬줄 아는 사람들이요!

맹세를 지킬줄 아는 사람들
새길수록 답력은 커지고
지혜는 하늘에 솟구쳤나니

천만마디 말을 대신해주신
위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대로
타산을 낳고 묘안을 낳아
산처럼 큰 용광로도
순간에 통채로 넘어뜨리고
제관품도 설비도 단번에 조립되는
새로운 건설공법도 태어났거니

그 믿음속에 황철의 용해공들
나라의 맡아들로 미덥게 자라
강철의 산악을 높이 쌓아왔거니

믿음!
위대한 그 믿음
우리 생명
우리 행복이여

탄부들속에서 외2편

정서촌

생명선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탄부여 그대 들어서는 지하막장은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을 벌리는
가렬한 전투장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결사의 참호

만일 힘에 겨웁다고하여
맥을 놓는다면
막아서는 난관앞에 주저앉는다면
그리고 한걸음 뒤로 물러선다면
제국주의 야수들이 먹겠다고 우리를 덮치리니
그것은 수치스러운 노예가 되는 길-

하기에 결사의 각오로 당신들은 일떠섰다
누구도 그자리를 비울수 없기에
누구도 그자리를 대신할수 없기에

그래서 통강냉이를 씹어삼키면서도
허리띠를 조이고 또 조이며
나라의 생명선을 곳곳이 지키는것 아닌가

당신들이 손에 틀어잡은것
그것은 백병전에 번개치는 멸적의 총검
당신들이 심장을 맞대고 부딪치는 암벽은
최후의 웃는자가 무너뜨리는 승리의 돌파구

그렇다, 탄부들이여
가차없이 원쑤의 가슴팍을 뚫으라
탐욕스런 아가리에 무쇠동발로 자갈을 물리라
그리고 오만하게 날뛰는 침략자들 뒤통수에
무자비하게 석탄의 폭포수를 쏟아부으라
바로 놈들이 그밑에 깔려 영영 질식하도록...
절대로 우리는 노예가 될수 없다!

내 여기 찾아올적엔

작업복 한벌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내 여기 탄광에 찾아올적엔
장알진 탄부들의 손을 굳게 잡고
-동무들, 수고합니다
이렇게 고무의 말을 해주려 하였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였으랴
갱막장 지하수에 발목이 부르터
작아진 신발을 몇번이고 칼로 찢던지면서도
오직 장군님 명령을 관철하는 그 위치에서

육탄으로 두터운 암반을 뚫고나가는
탄부들의 빛나는 눈빛
그 벽찬 숨결, 뜨거운 심장의 고동소리 들으며
내 그저 말없이 깊이 머리 숙였나니

이미 머리에 흰서리 없은 이몸
여기서 전사의 청춘을 되찾았노라
신념의 동발을 가슴복판에 튼튼히 세우고
갱밖을 나서
조국의 창창한 하늘을 새롭게 우러러보노라!

탄부의 마음

수수천만년
내 조국 깊은 땅속에 묵묵히 묻혔던
검은 석탄-
그것은 얼마나 진한 피땀에 젖으며
해빛에 태어나 광채를 뿌리는것이라

하건만
흔히 사람들은

버럭더미에 덩구는 한덩이 석탄을
발밑에 지려밟으며 무심히 지나치거니

아니여라, 탄부여
그대는 바빠 가던 걸음 멈추고
스스로 허리 굽혀
그 한덩이를 소중히 가슴에 그려안더라
잃었던 진주보석을 모래불에서 다시 찾은듯...

《우리의 혁명적문학은 주체시대인간들의 요구와 지향, 그들의 다양한 생활면모를 폭넓게 그려낼뿐 아니라 인민대중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다양하고도 풍부한 지식을 주어야 합니다.》

김정일

연단묵음

잡지 《조선문학》은 조선문단의 얼굴

최봉무

주체35(1946)년 7월 25일 잡지 《조선문학》 첫호(당시 《문화전선》)가 세상에 나간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흘러갔다.

한때 잡지 《조선문학》 편집부에서 편집원생활을 해온 나는 오늘 그 발행 600호를 맞이하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깊다. 지난날 자신이 편집한 잡지의 몇개호들을 뒤져보면서 나는 새삼스럽게도 《조선문학》은 우리 문단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된다.

일찍부터 《조선문학》 잡지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잡지 《조선문학》은 문학예술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기간행물이라고 하시면서 이 잡지를 통하여 작품이 발표되고 우리 나라 문학이 소개되며 문학운동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잡지를 잘 만드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의 깊은 의미를 편집원으로서의 지난 기간 사업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중의 하나이다.

문학건설이라고 하면 문학창작과 문학운동이 중요하게 기본내용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다. 바로 이 두가지 사업이 모두 잡지 《조선문학》 지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작가동맹 강령과 규약, 작가대회문헌들, 문학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 동맹소식과 창작소식들이 《조선문학》 지면을 거쳐 소개되고 논의되었고 단편소설 《맑은 아침》, 《백일홍》, 서정시 《나의 조국》, 《어머니》를 비롯한 우리 문학을 대표할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조선문학》 지면을 통해 태어났다. 또 그런 력작들로 하여 《조선문학》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잡지 《조선문학》은 세계 80여개 나라에 소개되고있으며 매 나라들에 《조선문학》을 전문연구하는 사람들만도 몇명씩이나 된다고 한다.

내가 《조선문학》 편집부에서 사업하던 때의 몇가지 일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그때가 주체63(1974)년 4월초라고 기억된다.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단편소설집을 출판하는데 우리 나라의 단편소설 한권을 내겠다고 제기하여왔다. 그 단편소설인즉은 주체47(1958년)에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생활을 그린 작품이 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잡지 사색에 잠겨계시다가 그들이 잡지 《조선문학》에 나가는 작품가운데서 마음에 드는것을 고르는것 같은데 그들 자신이 골라 우리에게 제기한다고 하여 덮어놓고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다른 나라 출판물에 우리 문학작품이 나가면 그 나라 인민들은 그것으로 우리 나라 문학수준을 평가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 단편소설 대신에 친히 《크나큰 사랑》을 골라주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0(1951)년대와 주체50(1960)년대에 잡지에 나간 자그마한 작품 한편까지도 다 기억하고계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조선문학》에 한해에 실리는 단편소설이 40여편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은 아주 적은량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문학》이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잡지라는데 의의를 부여하시고 잡지에 나가는 작품과 글의 편수를 늘이며 그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것은 참으로 옳은 가르치심이였다.

잡지 《조선문학》을 펼치면 조선문단을 꿰뚫어볼수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장군님께서도 《조선문학》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고 관심하시는것이 아닌가!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은정깊은 사랑의 손길아래 우리 문학이 끝없이 개화발전하고있던 주체70(1981)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조선문학》 편집부 편집원들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소개하고싶은 충동에서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라는 고정표제를 달고 편속 방문기를 여러회에 걸쳐 쓴적이 있었다.

작가들의 세계와 창작- 그 류다른 생활은 인기를 끌었다. 그것이 벌써 15~18년전 일로 되었지만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중국에서 발행하는 《세계문학》잡지에서 그 글을 보고 조선의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린다고 크게 소개하였고 신화통신사에서는 그것을 통신으로 온 세상에 날렸다. 그리하여 당의 문예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현실속에서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소식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중앙통신사에서는 신화통신을 받아 이 사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드리었다. 그것은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렸다. 그 소식에 접한 나는 북받치는 격동을 금치 못하여 두손을 받쳐들고 《아, 실로 우리 <조선문학>은 조선문단의 얼굴이다!》라고 몇번이나 쾌재를 올렸다. 잡지 《조선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안아왔던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문학작품과 문학운동은 바로 이렇게 잡지 《조선문학》을 통하여 국내뿐아니라 세계에 소개되고 리해되며 보급되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뜻깊게도 잡지 600호 발행을 맞으며 다시한번 잡지 《조선문학》은 조선문단의 집약화된 얼굴이라고 서슴치 않고 확인하는바이다.

그런것만큼 잡지 《조선문학》의 사명과 임무는 대단히 크며 그것을 동맹기관지로, 창작활동무대로 삼고있는 우리 작가들과 편집일군들의 책임감 역시 대단히 크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잡지들에 나가는 단편소설을 비롯한 모든 작품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군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잡지 《조선문학》이 우리 조선문단의 얼굴이라는것으로 하여 더욱 의미심장한것이며 무거운것이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작가들은 주체문학건설의 주인으로서 《조선문학》에 더 좋은 글을 더 많이 써내놓아도 손색이 없도록 훌륭하게 만들어줄것을 심심히 부탁하는바이다.

기다리는 《벗》

석광희

그 기다림은 류다른것이였다.

그것은 어찌다 한두번 기다려지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다. 자기 친구를 기다리면 그처럼 절절할것이며 또 련인을 기다리면 그렇듯 애를 태울것인가.

그렇다. 매달 매해 언제나 다름없이 정녕 류다른 기다림속에 50년 기다리다가 받아보는것이 《조선문학》이다.

마침내 발행 600호를 맞은 이 시각 내 가슴은 이루 표현할수 없는 무량한 감개속에 잠긴다.

창간호가 나왔을 때만 하여도 아직은 문학소년이라고 하기에다 무색했던 그때로부터 이제 70권이 된 오늘에 이르는 그 나날을 돌이켜보는 마음은 자못 무득해지지만 한다.

그렇다. 문학에 뜻을 두고 《조선문학》과 숨결을 같이 해온 나에게 되새겨보게 되는 추억이 어찌 한두가지겠는가.

지금도 생각한다. 잡지를 받아들면 첫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글 한자 빠치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탐독한 그 시절이...

생각난다. 마음에 드는 작품들과 맞다들면 두번, 세번 되풀이해 읽으며 제판에 잘된 문장이라고 여기는 구구절절을 옮겨쓰느라 여념이 없던 그 시절이...

그리고 인상에 남는 작품을 창작발표한 작가를 찾아가 경험담도 들려달라 때를 쓰기도 하고 먼 곳에 있는 작가에게는 편지를 띄워 서로 알고지내는 계기를 만들던 그 시절이 사뭇 그리워지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웃을런지도 모를 일이나 잡지에 실린 나의 서투른 첫 작품을 정히 오려내

서 오늘까지도 그 무슨 보물처럼 간수하고있음을 구태여 숨기려고 할 필요는 없으리라.

《조선문학》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창작의 첫 걸음마를 내디딘 나에게 있어서 작가로 자라난 터전이였고 자양분이였으며 없어서는 안될 독본이였고 친근한 《벗》이였다.

그렇다. 그것은 《스승》이라고도 말할수 있고 《길동무》였다고도 말할수 있다.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는 중학교 교과서와 나란히 책상우에 놓여있었고 가렬한 전화의 날에는 병사배낭속에 총탄과 함께 들어 있었으며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재날리는 현장을 취재하는 가방속에 빠진적이 없었다.

작가로서의 나의 한생을 《조선문학》과 고락을 같이하며 걸어왔다고 말한다고 해서 외람된 말로 나무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작품들이 다른 출판물에도 실렸지만 《조선문학》을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조선문학》, 이는 나의 문학창작의 활무대였고 넓으나 넓은 운동장이였다.

허나 오늘에 와서 되돌아보면 나에게 그 훌륭한 무대, 그 넓은 운동장이 차례졌건만 언제나 기쁨만 있을것은 아니였다. 보다는 오히려 너그러운 《스승》만이 아니라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심판관》이였고 가차없는 채찍이였다고도 말할수 있다. 그 엄격하고 공정한 아픈 채찍으로 일깨워주면서 자그마한 실패도 반복하지 않도록 선도해주었다.

《조선문학》은 그 어떤 추상성과 개념성도 용서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매문도 모방도 범접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 요소들을 두고 지상에서도 감론을박하면서 투쟁함으로써 우리 문학은 건전하고 특색있는 궤도를 따라 자기 발전의 길로 전진해왔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하고 자애로운 손길아래 잡지 《조선문학》은 창간 이래 일찌

기 불수 없었던 개화기를 맞이했고 당적출판물로서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 담보되고 모든 작품들의 사상예술성이 높아졌으며 그의 전투성과 혁명성이 강화되고있다.

우리가 이렇듯 권위있는 문학잡지를 가지고있다는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인가.

그 기쁨속에 나는 앞으로도 나의 진정한 《벗》인 《조선문학》을 기다릴것이다.

우리의 자욱

리광근

《조선문학》 편집부에서의 기자생활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1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발행 600호를 맞는다고 하니 감회도 새로워 책장에 꽂혀있는 잡지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던 나는 인상깊은 제목들앞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만수대》, 《다시 오리》, 《금요로동》...

이것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세상에 새로 태어난 시인 김철의 작품들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작가로서의 그의 재생의 고고성이라 할수 있다.

시인 리병철의 재생의 첫 시도 이무렵에 발표되었다.

그때로부터 《조선문학》에는 서정시 《어머니》, 《하늘》 등 이 시인들의 보답의 자욱이 새겨지게 되었다.

꼭절많은 생활의 길을 거쳐 다시금 작가대렬속에 들어선 환희와 기쁨, 뜨거운 맹세와 신념의 분출을 그대로 안고있는 《조선문학》.

평범한 로동자, 농민, 군인으로서 자기들의 처녀작을 수집게 내놓은 때로부터 유명한 작가로서의 성장의 자욱을 누구나 보게 될것이다.

나역시 그렇지 않은가. 해와 해를 거듭하며 완성하지 못했던, 포기하다싶이 했던 시초 《조국을 떠나 멀리》도 선배들과 동지들의 사심없는 방조속에 발표하던 그때의 감정을 오늘 어떻게 다 표현한단 말인가.

《조선문학》은 단순히 작가들의 작품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선전자만이 아니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믿음과 사랑으로 작가들을 키워주고 빛내여주는 그 품이 펼쳐준 활무대며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고마움의 인사터, 그에 보답하는 충성의 보고서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발행 600호!

그와 함께 자라난 작가는 얼마이며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린 우리의 충성의 보고는 얼마나 큰것인가.

이제 또다시 600호 아니 6,000호...

그속에 아로새겨질 우리의 자욱은 얼마나 궁지 높고 자랑높을것인가.